

2012 농사교육 교육 농 연구회 결과 보고서

가. 목 표

우리는 교육 농(農) 연구회 모임을 통해,

1. ‘농사 교육’을 주제로 하는 나눔과 소통의 장(場)을 만들고자 했다.

대안적 삶과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 현장에서 ‘농(農)’은 초기부터 계속 강조되어온 교육 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농(農)에 대한 ‘교육적 관점이나 방법, 프로그램 등’이 본격적으로 교사들 사이에 함께 연구 되어지거나, 각자의 연구와 실천이 공적으로 나누어지는 자리는 그동안 마련되지 못했다. 우리는 **농(農)을 교육적으로 풀어가는데 관심있는 이들이 모여, 서로의 실천과 고민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연구와 교류’의 장(場) 마련하고자 했다.**

2. ‘농사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과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자 했다.

‘노작교육, 기술교육’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농사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농사 교육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질문하고, 다양한 교육적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농(農)을 교육한다는 ‘농(農) 교육’의 관점이 아닌 교육의 눈으로 농(農)을 바라 본다는 ‘교육 농(農)’의 관점으로, 국내·해외사례를 폭넓게 탐구하며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을 연구하고 시도해 보고자 했다.

나. 사업 내용

초기 계획과 달리 사업이 의도하지 않게 확대되었다. 그만큼 농사 교육에 대한 대안교육 현장 교사들의 관심과 갈증이 컸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사업은 참가자들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참가자들의 ‘요구와 관심’, ‘입장과 상황’ 역시도 다양해짐에 따라,

1. 교사 농사 학림, 2. 교육 농 생산자 협동조합 3. 교육 농 연구회의 3가지 형태로 나누어 진행 되었다.

1. 교사 농사 학림

가) 개 요

‘교사 농사 학림’은 일년, ‘한 순환 작기’ 동안 꾸준히 만나, 농사를 함께 공부하며 각자의 현장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농사를 접근해 나갈지?’를 함께 연구하고 교류하는 자리였다. 교육 농(農) 연구소와 교육 공동체 벗이 역할을 나누어 공동 진행하였다. 대략 스무명의 사람들이 한달에 한 번 1박 2일, 꼬박 일년을 만났고, 함께 논과 밭을 경작하며, 서로의 경험과 실천, 고민을 나누었다.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 ‘교육의 눈으로 농(農)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질문하고, 생각과 경험을 함께 나누며,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속적인 ‘관계’를 만들고자 했다.

나) 활동 내용

교사 농사 학림은 크게 ‘월별 재배력’ 공부와 ‘농사 활동’, ‘사례 발표와 공유’,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첫 번째, ‘월별 재배력 나누기’는 모임이 있는 ‘그 달’의 계절과 기후, 농촌의 흐름, 농사 일에 대해 함께 공부하는 자리였다. 재배력을 배경으로 농사 교육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정리하는 것은 활동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함께 공부한 재배력을, 이후에 편찬을 계획

하고 있는 ‘농사 교재’와 농사 교육과정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했다.

두 번째, ‘함께 농사 일’하기는 공부한 농사력을 마련된 교육 농장(홍동면 운월리 792-6)에서 함께 실습 해보는 자리였다. 배운 내용을 작목반(모듬)별로 실습 해보고, 재배력을 몸으로 되풀이해 익히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각자의 교육 현장에서 이 달의 재배력을 접근해나갈지, 교육적으로 풀어나갈지’를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다.

세 번째, ‘사례 공유’는 돌아가며 각자 현장의 ‘실천사례’를 발표하고, 질문과 대화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통해 현장의 여러 고민과 아이디어를 폭넓게 나눌 수 있었다.

1월 연구 모임 (1.27~28)

교사이자 농부, 농부이자 교사에게

우리는 함께 '농사' 짓고자 합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농사는 유기농입니다. 유기농은 '순환과 공생'에 원리에 기초한 지속 가능한 농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농은 '토양, 생물 다양성, 순환'을 강조하고 중요시 합니다. 다른 한편, 유기농은 '생명을 살리고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고자는 가치와 철학,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은 소농이 중심되는 농촌 공동체와 농적 삶의 문화와 방식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교육 농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 농은 농(農)이 가지고 있는 전인적, 통전적, 생태적 가치에 주목해 농(農)을 교육적으로 선용하는 일입니다. 농(農)을 통해 생명, 생태, 공동체, 협동경제, 먹거리 교육 등 지금 시대에 필요한 교육, 지금 시대가 '망각'하고 있는 것을 '교육'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 농(農)?!

‘엘 시스테마’라는 베네수엘라의 유명한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엘 시스테마는 베네수엘라의 길거리 청소년들에게 총이 아닌 악기를 들도록 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고, 악기를 익히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오케스트라를 통해 ‘하모니’를 배우고 협력하는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적 삶을 몸으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엘 시스테마’는 많은 이들의 삶을 구하고 바꾸었습니다. 엘 시스테마는 ‘음악을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교육’적으로 선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음악 교육’을 한 것이 아니라 ‘교육 음악’을 했습니다. 우리는 ‘엘 시스테마’가 오케스트라 교육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었듯이, 농(農)이 교육적으로 선용되고 활용된다면 능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하고 배우는 벗

사계가 순환하는 한 작기를 유기 농, 교육 농을 하며 함께 어울려 농사짓고 배우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학교와 교실이 폭력과 경쟁으로 아파하고 생태계의 위기가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교육과 삶에 대해 우리는 농(農)을 통해 질문하고 찾아가보고자 합니다.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서로가 이번 아카데미(학림)를 통해 좋은 벗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어울려 농사짓는 그 사이 어느새 그런 사이가 되어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2월 연구 모임 (2.25~26)

2월 재배력

2월은 꿈꾸는 달, 디자인 하는 달, 몸 푸는 달.

2월에는 부지런히 궁리하고 슬슬 몸을 움직여 눈과 발에 퇴비도 내고 고추과(고추, 가지 등)를 비닐집에서 키우고 곧 시작 될 '시즌'을 준비한다. 농사 시즌에 첫 개막을 알릴 '감자 농사', '완두콩 농사'도 씨감자를 자르고, 완두콩 종자를 준비하며 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준비한다.

작부 계획 세우기

시. 공간에 작물을 배치하는 것. 동시에 해야 할 일을 배치하는 것이 작부이다. 일종의 디자인이고 음악으로 비유하자면 연주할 '악보'를 그리는 일이다. 오선지(땅)에 음표(작물)를 배치하고 배열하면서 리듬과 박자(이어짓고 돌려짓기)를 부여하고 화음(섞여 짓기)을 넣습니다. 하지만 연주(농사)는 기후와 기상, 하늘의 '사건'에 따라 유연하게 변주 될 수 있어야 한다. 작부 계획은 곧 '작곡'이다.

씨앗

씨앗은 살아있다. 그러나 잠들어있다. '잠들어 있는 생명'이 씨앗이다. '잠들어 있는 공주(백설공주?)'에게는 입술로 '생명의 키스'를 하듯이 잠들어 있는 씨앗에게는 '온도와 물'의 키스를 해주어야 한다. 그 래야 잠든 씨앗이 다시 깨어난다. 2월에는 농사 지을 씨앗을 챙기고 준비해 두어야 한다. 씨앗은 잘 재우는 것(보관하는 것)과 잘 깨우는(발아 하도록 하는 것)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아닌 학생이 농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대개는 노련한 '교사가 농사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상대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은 교사의 계획과 지시에 따라, 농사를 짓는 것이 농사 수업에 대개의 모습이다. 하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농사의 전 과정을 스스로의 일머리를 세워 '디자인'해 볼 수 있도록, 그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교사는 머리의 역할을 하고 학생들은 단지 손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부족함과 어설피름은 있더라도) 머리와 손발 모두가 되어 농사를 지어 보도록 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학생들은 농사를 부분이 아닌 전체로 볼 수 있다. 노동과 노작, 기술이 아닌 전인적 활동으로 농사를 경험할 수 있다. 교사는 노련한 농사꾼인 동시에 노련한 안내자이자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무엇으로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다면 농사 수업은 어떻게 재구성 되고 디자인 될 수 있을까? 현장별로 질문을 던져보자. 그리고 나름의 답을 찾아가며 계속 만나가 보자.

3월 연구 모임 (3.31~4.1)

3월 재배력

언 땅이 풀리고 따뜻한 기운 속에 생명들이 점차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때, 농부들도 다른 생명들과 리

듬을 같이 해 겨울 동안 쉬었던 몸과 마음을 깨운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생명을 기르고 가꾸는 일을 시작한다. 작물을 심어 가꿀 '이랑'을 부지런히 만들고,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는 작물들(감자, 완두콩, 양배추, 시금치 등)을 심어 가꾸는 때이다. 한편에서는 서리가 내리지 않아야 가꿀 수 있는 작물들(고추, 가지, 토마토, 오이, 호박 등)도 모종을 내어 비닐집에서 키운다.

속 깊은 이랑 만들기

작물을 심어 가꿀 '흙'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고, 작물에 다른 어떤 부분 보다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둔 이랑 만들기이다. 또, 이랑을 매해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둔 이랑을 두고 두고 기르는(Grow)는 방식이다. 이 이랑 만들기는 무엇보다 교육적 농사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작물을 기르는 동시에 땅을 기르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것(작물의 성장)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 (토양, 토양 내 미생물과 소생물)을 강조하고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랑 만들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랑 만들기에 하나로 '더블 디깅(Double digging)'이라는 여러나라에 소농의 농사 방법을 연구하는 미국에 'Bio-intensive'라는 그룹의 이랑 만들기 방법을 소개한다. 이 방법이 유일하다거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각자의 스타일과 현장에 맞게 응용하시고 변용했으면 한다.

퇴비 만들기

퇴비 만들기는 토양(흙)에 생명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농가로 부터 나온, 마을에서 나온,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을 '쓰레기로 배출하여 버리지'않고 '자원으로 어떻게 순환 할 것인가?' 라는 질문과 관심으로 부터 비롯된다. 그러기 위해 (미생물의 힘을 빌려) 각종 부산물(낙엽, 잔반, 사람과 가축의 분뇨 등)을 분해하여 순환하여 주는 일이다. 퇴비 만들기는 미생물 기르기가. 미생물을 애완동물 기르듯 먹이를 주어 잘 기르는 일과 다름 아니다. 미생물이 잘 살 수 있는 조건 '물', '공기', '먹이', '온도'를 맞추어 주면 각종 부산물은 무엇이든(물론 예외는 있지만) 퇴비로 만들어 '순환'할 수 있고 흙에 생명력을 높일 수 있다.

'흙'에 대해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전적으로 '흙'에 기반해 살고 있고, 다른 생명들도 마찬가지로 '흙'에 의존해 의지해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인류에게 '흙'은 중요한 탐구의 대상이자 경외의 대상이었고 삶의 의지처였고 '어머니'였다. 하지만 (과학 또는 지구과학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삶과는 분리된 채 배우고 있다.) 우리는 '흙'에 대해 제대로 배우거나 가르치고 있지 않다.지금 세대는 흙을 '생명의 어머니'로 여기기 보다는 털어내거나 덮어야 할 치워야 할 '더러운 것' 썸으로 여기고 있다. 흙을 느끼고 가꾸고 익히는 교육이 필요하다. 흙을 우리 삶의 연결고리로 유기체이자 생명체로 보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하나로 농사를 통해 '흙'을 배우고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할지는 '교사 농부'인 우리들이 함께 탐구해 보자.

'신체'를 배우는 농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대부분은 몸이 소외 된 삶을 살고 있다. 손가락 외에는 몸의 '용법'을 모르고 살고 있다. 그렇다면 농사를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가령 더블 디깅을 하더라도) 자신의 몸, 신체의 움직임을 '탐구'하고 '명상'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몸의 움직임과 상태를 '관(觀)'하도록 하고, 온 몸을 연결지어 힘을 쓰도록 하면 '체육 활동', '

스포츠 활동'과는 다른 영역에서 몸에 대해 새롭게 익히고 배울 수 있고, '노동'에 대한 관점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월에 심어 가꿀 수 있는 작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 '땅'에 기후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먹는 작물들이 어떤 기후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 '땅'에 기후에 대해 익숙히 알면, 그리고 우리가 작물들이 어떤 기후에 잘 자라는지 알면 3월에 심어 가꿀 작물을 험히 꿰뚫어 볼 수 있다. 작부를 '매뉴얼'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장소와 땅, 생명(작물)에 대한 '지식'으로, 경험적으로 구성하고 구조화 한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들판 곳곳에서 썩이 자라고 망초가 있을 틈이고 썩바귀, 냉이가 자라는 때에는 그 친척(?)들도 재배하고 가꿀 수 있다는 있지 않을까? 썩, 망초, 썩바귀는 모두 국화과인데 '상추, 양상추, 썩갓, 머위, 치커리, 앤디브 등'이 같은 과 친척들이고 지금 재배하여 키울 수 있다. 냉이는 십자화과(꽃이 십자 모양으로 주로 배추와 무류), 인데 친척으로는 배추 (청경채, 백경채, 잎쌈 배추, 케일, 양배추, 브로콜리, 20일무, 샐러드 무 등) 등이 있고 대부분 심어 가꿀 수 있는 시기이다. 물론 친척이라고 해서, 다시 말해 같은 과로 해서 다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산지(원래 고향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금치, 비트, 근대 등은 명아주 과인데 추위에 강해(고향이 서늘한 곳) 지금 심어 가꿀 수 있고 감자는 가지과인데 다른 가지과가 더운 기후를 좋아하는데 비해 (예를 들면 고추, 가지, 토마토 등 모두 더운 기후를 좋아한다.) 원산지가 해발 4000미터에 안데스 지방이라 서늘한 기후를 기후를 좋아해 지금 기르고 가꿀 수 있다.그 작물이 무슨 과인지 그리고 원산지는 어디인지를 알고 그 둘을 '크로스' 해보면 작물의 심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일종의 X축 Y축 이라고 할까? 그리고 보니 농사를 통해 과학과 지리 수업, (수학 수업도?)이 환상적으로 교차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쨌건 이 처럼 내가 사는 '땅'에 기후를 알고 (봄철에 연평균 기온이 어느정도인지 서리는 언제까지 내리는지 등) 작물에 '과'와 '고향'을 연관지어 알면 봄에 무엇을 심어 가꿀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참고해 보는 것(각종 텃밭재배책에 소개 되어 있는 작부표 등)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무엇보다 경험이 쌓여가면 그리고 그 과정을 성실히 기록하면 자신이 농사 짓는 토양과 기후에 알맞는 작부표를 자연스레 만들어 질 것이다.

4월 연구 모임

봄의 절정, 4월, 4월은 일어서는 달

3월이 봄에 '문턱'이고 '시작'이었다면 요사이 4월은 봄의 '절정'이다.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연두잎들이 솟아나는, 여기저기에 봄기운 곳곳에 일어나 흐른다. 논과 밭에 먹을 것도 지천이다. 사람은 농사 짓지 않았지만 자연이 농사 지은 썩바귀, 민들레, 썩, 달래도 잔뜩이고 논둑에는 미나리도 모습들을 보인다. 4월에 봄은 이곳 저곳에서 생명들이 '일어서 피어나는 달'이다.

4월은 갈아 엮는 달

농촌 곳곳에는 4월이면 쟁기를 단 트랙터나 경운기들이 많이 보인다. 논을 갈아 엮고 밭을 갈아 엮고, 로타리를 치고 논농사를 준비하고 밭 농사(고추 농사)를 준비하는 때이다.4월은 (농촌에서는) 갈아 엮는 달이다.

4월은 벼 농사가 시작 되는 달

4월 중순, 말이면 농사 중 가장 중요한, 수천년간 우리 땅에서 지속 되어 온 '벼 농사'가 시작된다.

볍씨를 소독해 실한 볍씨 종자를 고르고 물에 담가 싹을 틔운다. 그리고 모판에 볍씨를 뿌리고 못자리 만들어 모판을 못자리에 얹는다. 그리고 모내기를 할 5월말이나 6월초까지 매일 못자리를 살피고 어린 모를 보살펴야 한다.

서서히 나갈 채비를 하는 모종들

5월 부터 본격적인 노지(露地)농사(충남 홍성기준)가 시작 된다.5월 5일 부터 무상서리일(봄에 마지막 서리와 가을에 첫 서리가 내릴까지에 일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동안 서리에 맞을 까 비닐 집에 돌보고 키워왔던 각종 모종들을 서서히 적응 시키며 밖에 내보낼 채비를 한다.

4월에 가꿀 수 있는 작물들

4월 초에는 잎과 뿌리를 먹는 다양한 채소들을 뿌려 가꾼다. 서늘한 기후에 잘 자라는 작물들 열무, 비트, 20일 무, 얼갈이, 다채, 상추, 치커리, 근대 등등. 종류가 참으로 다양하다. 4월 중순이나 말에는 강남콩, 땅콩, 옥수수 등을 땅에 직접 뿌리거나 모종을 낸다. 땅콩이나 옥수수 특히 땅콩은 새 피해가 심해서 방조망을 씌우거나 모종을 주로 낸다. 작물을 심는 한편으로 심었던 작물을 가꾸는 일도 해야 한다. 덩쿨 손을 내밀었을 완두콩에 지주를 세워주고 유인도 해야 하고 (3월경에 심었다면) 4월 중순이나 말이면 싹을 내밀 감자도 살짝 김을 매주고 복도 주어야 한다. 시금치 싹도 제법 올라왔고 당근 싹도 이제는 얼굴을 내민다. 속아주고 김매주고 돌봐주어야 한다. 지난 해 가을 심은 양파와 마늘도 틈틈히 김매기도 해주고 돌봐주어야 한다. 생명들이 따뜻한 봄기운에 활발히 움직이는 그 리듬만큼 농부들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일을 찾아 해주고, 귀를 기울이고 몸을 기울여 작물에 맞장구를 쳐주어야 하는 4월이다.

계절의 리듬 = 농사의 리듬 = 농부의 리듬

계절이 리듬이 농사의 리듬이고, 농사의 리듬은 농부의 리듬이다. 농사를 짓게 되면 자연의 리듬과 호흡하며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몸에 새겨 배울 수 있다. 논과 밭은 자연의 리듬과 흐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교육의 장(場)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일'과 함께 맞장구를 쳐주어야 할, 함께 박자와 리듬을 맞추어 호흡해 주어야 할 자연의 리듬이 강조 되었으면 한다.

밥 공부

수천년간 우리 땅에서 지속 되어 온 벼 농사, 논 농사, 밥 농사는 단지 '주곡'을 생산하는 것 이상에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벼를 주식 삼아 먹고 살지만, 벼에 대해 그리고 벼를 기르는 논에 대해 배우지 않는다. 우리의 돈줄에는 관심이 있었도 밥줄에는 도통 관심이 없다. 권정생선 생님이 말씀 하셨든 '자동차를 먹고, 핸드폰을 먹고, 돈을 먹고' 살 수는 없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의지해 살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매일 먹는 '밥'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는 시간이 교육에서도 필요하다.

5월 연구모임

키운 모종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5월

5월은 서리가 내리지 않는 '무상서리' 일이 시작되므로 2월 부터 지금까지 매일 돌보아 주던 모종들을 각자의 자리에 정식해 주어야 하는 때이다.

논 준비

못자리에서는 모들이 자라나고 있고, 한편에서 모들이 심겨져 자라 날 논을 준비하는 일을 한다. 거름을 내고 논을 갈아 주어야 한다. 논물을 가두기 위해 논두렁도 발라주고 논에 썩레질도 해주어야 한다. 모내기는 5월말이나 6월초에 이루어지니 5월 한달 사이에 부지런히 ‘논 준비’를 해주어야 한다.

화창한 기운 속에..

5월의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심겨 둔 작물들이 무럭 무럭 자라간다. 감자도 어느새 한뼘 이상 훌쩍 자랐고 완두콩도 하얀 꽃을 피웠다. 시금치와 당근도 속아주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화창하고 좋은 날씨에 작물만 쑥쑥자라는 것이 아니라, ‘풀’ 들도 무서울 만큼 ‘쑥쑥’ 자라나고 있다. 상농(上農)은 풀이 보이지 않을 때 풀을 매고, 중농(中農)은 풀이 어릴 때 풀을 매고 하농(下農)은 풀이 다 자랐을 때 풀을 맬다는 이야기가 있다. 모종 심기, 속아주기, 김매기, 논두렁 바르기 등 이때부터 본격적인 농사에 있어 ‘노동’이 시작 된다.

‘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농사교육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자 숙제는 ‘노동’이다. 학생들은 노동을 노역을 여기고, 농사를 멀리하기 때문이다. 농사에 있어 노동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동 없는 농사 역시 없다. 농사에 있어 ‘노동’을 어떻게 접근하는게 좋을까? 노동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아직 우리는 뚜렷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노동’을 몸에 대한 탐구이자 공부로 접근하기, ‘노동’이 ‘노역’이 되지 않게 교사가 일을 지시하기 보다는 학생 스스로가 농사일을 계획하고 주도할 수 있게,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기 등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만 이야기 할 뿐이다. 하지만, 지금 일부 학교에서 김매기, 땅파기 등 ‘노동’을 별로 주는 사례는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땀흘려 일하는 것에 가치, 그것에 대한 존중, 예의와 대우가 필요하다. 우리는 농사를 통해 어떻게 그것을 교육적으로 만나게 할 것인가? 우리가 먼저 제대로 땀흘려 불일이다.

사 례 나누기

폐광지에서 피어나는 풀꽃들 - 정선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한 생태교육

김영주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농부 ban9680@naver.com

백두대간이 자리하고 있는 강원도 남부 지역은 폐광지이다.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막장을 떠났고, 이제 지역에는 진폐증 환자나 노인들 같이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여느 시골처럼 폐교는 늘어 가고 요즘 같은 졸업·입학 시즌에는 어김없이 ‘나 홀로 졸업식’이니 ‘1인 입학식’이니 하는 이야기가 지방 뉴스에 오르내린다. 광산이 문을 닫은 뒤 그것을 대신한 것은 카지노, 스키장, 골프장, 모텔이다. 지역 경제와 문화는 대도시와 기업에 종속되었다. 그래서 도시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골 아이들도 많이 아프다. ‘스마트한’ 도시의 소비문화를 따라가기도 바쁘고 <정선아리랑>과 같은 전통문화에는 관심이 없다. 아리랑축제는 아이들 가수를 보기 위해 간다. 이 글은 이런 폐광지 농촌에서 내가 학교 밖에서 아이들과 농사를 지으면서 웃고 떠들던 이

얘기이다.

농사와 아이들

2008년에 농사와 교육에 화두를 두고 강원도로 귀농을 한 후, 줄곧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들과 만났다. 물론 농촌 지역에서 대안적인 교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입시 교육에 대한 요구도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안에서 제대로 충족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대학 가기도 힘든 판에 무슨 대안교육, 생태교육이냐는 시선들이 많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열악하고 제한된 지역 환경이 대안적이고 실험적인 교육을 실현해야 하는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공하기도 한다. 실제로 결코 적지 않은 실험들이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작은 대안학교들도 있고, 귀농·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귀농자들이 직접 교육 문제와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든 산촌유학이나 귀농학교들도 있다. 정선군 동강 제장마을에서 한 실험들도 이러한 고민 속에서 시작되었다. 제장마을은 2000년에 영월댐(동강댐)이 백지화된 후 영구적인 동강 보존을 위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기증을 받아 5,000평을 매입하여 시민유산 3호로 지정한 생태 마을이다. 작년 한 해 동강 제장마을에서 아이들과 함께한 생태 농장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	내용	기간
제장마을 주말 체험 학습	초5, 6 25명	생태 농장 가꾸기 자연 놀이 및 생태 체험 프로그램	4월~12월 월 1회
청소년 봉사 동아리	중2, 3 15명	생태 농장 가꾸기 농촌 일손 돕기	4월~11월 월 1회
청춘 불패, 초록 세상 만들기	중2, 4명 고1~3 16명	성격 유형 검사, 집단 상담 프로그램, 생태 농장 가꾸기, 동강 생태 탐사, 대안 에너지와 적정 기술, 자연 놀이 및 생태 체험 프로그램, 동강 미션, 명상과 침땀	4월~12월, 월 2회
비밀의 회원	중2~고1 40명	청소년 도농 교류 캠프, 생태 농장 가꾸기, 대안 에너지와 적정 기술, 천체관측, 자연 놀이 및 생태 체험 프로그램, 동강 미션	5, 8, 10월 1박 2일씩 총 3회

작년에 아이들과 함께 진행했던 생태 농장 교육 프로그램들은 직접 정선 지역에 있는 청소년 관련 단체를 방문하면서 시작되었다. 방문한 단체들은 주로 방과 후나 주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었는 데, 폐광 지역의 낙후된 청소년 교육·문화·복지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들이었다. 첫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2, 3학년 40여 명의 아이들과 함께 시작했다. 감자, 옥수수, 고추, 땅콩, 토마토 등 작물을 심고 가꾸는 것을 중심으로 효소와 요구르트 만들기, 천연 염색, 들꽃 그림 그리기, 아카시아꽃 먹기, 전통 놀이, 로켓스토브 제작, 나무 피리 만들기 등을 함께 진행하였다. 중학생들은 기본적인 생태 농장 가꾸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고추 수확 시기에 농촌 일손 돕기 자원봉사 활동도 같이 했다.

정선과 분당 지역 청소년과 함께 1박 2일로 1년 동안 세 차례 도농 교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폐광 지역 청소년들과 도시 청소년들이 서로 문화적 감수성의 차이를 좁히고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갖도록 하기 위한 캠프였다. 두 지역 아이들은 농장에서 감자와 옥수수를 수확하고, 동강 모래밭에서 씨름과 닭싸움도 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직접 제작한 태양열 오븐기로 점심을 만들어 먹었다. 동강 주변의 생태·역사·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미션 수행 방식으로 진행했다. 아이들은 고성리에 있는 고인돌민박을 찾아가서 주인아주머니께 고인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고인돌을 배경으로 주인아주머니와 인증샷을 찍기도 하고, 아카시아꽃 튀김과 오디와 토끼풀 등으로 만든 샐러드를 동강 지킴이 활동을 하는 할아버지께 드리고 맛에 대해 인터뷰한 동영상도 찍기도 했다. 미션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도 예상보다 뜨거웠다. 손자 같은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 화장을 정성스레 하고 기다린 민박집 아주머니를 만나 아이들은 시간에 맞춰 미션을 완수하려 땀나도록 뛰어다녔다. 교사가 사진을 찍자고 하면 짜증을 내거나 얼굴을 돌리던 아이들이었는데, 미션을 통해 아이들이 찍어 온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재미, 그리고 작품성까지 갖추고 있었다.

1년 동안 여러 팀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모든 프로그램의 기본이자 핵심은 '생태 농장 가꾸기'였다. 생태 농장 가꾸기는 감자, 옥수수, 고추, 고구마, 토마토, 수박 등 농작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농사 프로그램이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기가 먹는 농산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라고 수확되는지를 알아보고 직접 요리하는 방법도 배우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확한 친환경 농작물을 도시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동강 보존 기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자연 유산 보존과 기부 문화 확산에 청소년이 앞장선 사례를 만들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농촌의 지역사회를 배우고 그곳 사람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배움의 과정에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파괴를 막고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이들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미션을 만들고 생태 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 판매 수익금을 동강 보전을 위해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래서다. 대부분의 농촌 지역이 그러하듯 지원과 혜택 등을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청소년과 지역 주민에게 '기부'라는 것은 낯설다. 하지만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누구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와 남이 더불어 사는 방법임을 이러한 작은 일을 통해서 아이들은 배울 수 있었다.

청춘 불패, 초록 세상 만들기

농사와 생태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유의미하게 탐색해 볼 수 있었던 기회는 '청춘 불패, 초록 세상 만들기(이하 청춘 불패)'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소외된 위기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함께 생태교육을 하는 것으로 정선군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진행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쇠락한 폐광 지역의 열악한 교육·문화·주거 환경과 카지노와 같은 사행 산업으로 인해 무너진 지역공동체의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청소년이 주 대상이었다. 그러나 위기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을 나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학교생활을 힘들어하거나 자존감이 낮은 학생을 담임교사와 상의해 선발하였고,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농장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작물을 심고 가꾸는 활동을 했다. 이와 함께 침·뜸·명상을 통한 몸 가꾸기, 태양열 오븐기와 로켓스토브를 제작하고 실습하는 동안 에너지와 적정 기술 프로그램, 천연 염색 손수건 만들기, 동강 동·식물 탐사 활동, <정선아리랑> 배우기, 동강 뽕대길 걷기, 1박 2일 캠프 등도 했다. 상담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됐다. 아이들은 MBTI 검사 등을 통해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도 탐색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아이들이 평소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사는지 궁금해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청소년들이 다니는 지역 청소년센터에 가서 수업을 하기도 했다. 아이들과 팝송을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학부모와 학교에서 원하는 탓에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과 한 학기 동안 영문법 수업을 해야 했다. 아이들도 싫어하고 나도 내키지 않는 수업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내심 수업 준비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친해지려고 고민을 좀 했다. 영어 수업에 참여하는 중2 여학생 중 4명이 청춘 불패에도 참여했는데 아이들은 나를 교실에선 '선생님', 농장에서는 '아저씨'로 불렀다. 아이들은 처음엔 영어 수업에 흥미를 좀 가지는데다 즐거었는데 갈수록 수업 진행이 힘들어졌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물론 고데기를 들고 교실을 돌아다니는 여학생까지 있었다. 아이들에게 '씨바', '아이

씨'라는 단어가 접미사, 접두사라는 사실도 처음 알았다. 그렇게 영어 수업과 생태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길 몇 개월, 조금씩 아이들이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영어 수업을 하거나 센터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아이들과 마주치면 아이들은 "제장마에 언제 가요?", "이번 주에는 무슨 프로그램 해요?"라고 물으면서 적극적으로 친근감을 표시하였다. 여학생들의 수업 태도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접미사로 붙어 다니는 '씨바'도 많이 줄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알아보고는 내 주위로 달려와 착 붙곤 했다. 아이들 손이 내 몸에 닿을 때의 느낌이란……. 센터 직원에 따르면 단지 나와외의 관계만 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과 후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한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센터에서 만난 학생들처럼 요즈음 아이들 중엔 산만하고 정서가 불안한 아이들이 많다. 이 여학생들은 처음 청춘 불패에 왔을 때 다른 친구들이나 고등학생들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했다. 상담 프로그램을 거부하기도 하고 내가 보는 앞에서 언니, 오빠들 험담을 늘어놓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훼방을 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담과 함께 서로 오해한 부분들을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더니 아이들 태도나 정서뿐만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다. 나중엔 아이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로 계획에 없던 1박 2일 캠프를 여름방학에 가기도 했다. 농사를 짓는 과정이 힘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돕고 격려해 주는 분위기도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시험 점수 매기듯 아이들의 변화를 숫자로 말할 순 없지만 풀꽃과 물과 바람을 만지고 느끼는 가운데 아이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조금씩 평화스러워졌으리라 생각한다.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아래의 소감문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평소에 자연과 가까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 잘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이 활동을 통해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제장마에 모여 농작물을 심고 키우면서 농부들의 마음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 또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아는 친구들과는 더 친하게, 약간 서먹했던 친구나 후배들과는 관계가 더 좋아졌다. 청춘 불패 활동으로 옥수수, 감자, 콩 등 평소에 우리가 먹는 식품들을 심고, 기르고, 재배하고 상품화해 보니 뜻깊었다. 그러나 이제 곧 있으면 헤어질 생각을 하니 지금까지 활동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고 그만큼 아쉬운 마음도 크다. - 사복고 2학년 학생

저는 청춘 불패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자연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들로 음식도 해 먹고, 나무로 피리도 만들어 보고, 식물에서 나오는 천연색으로 손수건 염색도 해 보았습니다. 청춘 불패를 통하여 평소에 알지 못했던 식물 이름과 나무 열매 이름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농작물 재배를 해 봤습니다. 감자도 캐 보고, 고추도 따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재미없었는데 점점 해 보니 농작물을 키우면서 성취감을 느껴 뿌듯하고 기뻛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썩뜸도 하였습니다. 처음 해 보는 뜬이라서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해 보니 재미있고 약간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청춘 불패를 통해서 많은 체험도 해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 함백여중 2학년 학생

청춘 불패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지만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은 어쨌든 학교나 가정에서 심각할 정도의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들은 아니었다. 그러다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 중이던 10월 어느 날, 정선군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특수절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청소년 2명과 그중 한 아이의 아버지가 함께 농장에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문의였다.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 망설였지만 일단 방문을 허락했다. 2명 중 1명은 고3이었고 다른 한 명은 자퇴를 한 청소년이었다. 사고를 친 자식을 둔 아버지는 쑥스러워하면서 아들에 대한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함께 고추밭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눈도 마주치기 힘들어하던 아버지가 빠른 속도로 고춧대를 뽑고 멀칭 비닐을 걷어 내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을 향해 열심히 작업을 독려하시기도 했다. 나와 상담 교사는 그런 모습을 당황하며 지켜봤다. 작업이 끝나 갈 무렵 아이들 중 한 명이 "감자는 없어요? 저 감자 좋아하는데……"라고 물었다. 다행히 여름 장마로 많이 썩고 보관이 힘들어 두 고랑 정도 캐지 않고 남겨 둔 감자가 있었다. 호미를 던져 주고 감자 캐는 방법을 알려 주었더니 둘이서 웃으면서 열심히 감자를 캐기 시작했다. 땀줄기가 목을 타고 흘러내려 아이들 옷을 적셨다. 주변에 있던 나무젓가락과 솔방울을 주워서 로켓스토브를 이용하여 라면 끓이는 방법도 알려 주었다. 땀을 흘린 후 출출했던 아이들이 라면을 끓였다. 너무 짜게 끓인 라면이었는데 자기들은 맛있다고 아버지까지 불러서 드시게 했다. 처음에는 사양하던 아버지는 나중에 그 짠 국물까지 다 드셨다. 아버지는 아들 녀석이 끓여 준 라면을 처음 먹어 본다고 하셨다. 첫날 일정이 끝나고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어릴 적에 해 보고는 몇십 년 만에 밭에서 일을 해 보니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났다고, 자식에게 모범이 될 만한 모습을 보여 주고자 무지 열심히 일하셨다고 했다. 그러고는 아들을 안으면서 먼저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원봉사를 스스로 찾아서 해 보자"고 말씀하셨다. 아이들을 계속 만나 온 상담 교사는 그 모습을 보고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잊지 못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농장에 왔을 때 상담 교사도 별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이들이 다른 봉사 활동도 해 봤지만 그저 시간을 채우기 위해 도시락 배달을 하는 정도였고, 아버지는 아들 문제를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나누

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편안한 마음을 안겨 주는 동강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제장마을에서 함께 땀흘리며 감자를 캐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교감을 나눈 듯했다.

교육과 농사, 교육과 생태

지난 1년 간 진행한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돌아보면 농사를 기반으로 한 생태 수업은 단지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적과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환경에서 더디더라도 기다리고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음 또한 만져 줬다. 수업 시간에 산만하고 불안정했던 여중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은 같이 지켜본 다른 교사, 학부모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회 봉사를 하러 농장에 온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도 딱딱한 상담실이 아닌 농장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두 사람이 각자 마음속에 지니고 있던 빗장을 열고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가한 모든 이에게 적용할 수 있거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청춘 불패 프로그램이 끝나 갈 즈음 한 여학생이 가출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성패 여부를 떠나서 작년에 내가 아이들과 경험한 것들이 농사를 기반으로 한 생태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일임은 틀림없다. 아이들의 삶 전체가 당장 생태적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건 어려울 것이다. 여전히 농장 밖의 세상은 농장 안에서 아이들과 나누었던 다양성, 협동, 여유로움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대학 입시라는 코앞의 목표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척박한 폐광지에서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틈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조각조각 나누어진 과목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먹을 것을 직접 키우고 자신이 쓸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온전한 삶'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만들어진다면, 어디서부터가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사와 아이들이, 동강의 자연과 아이들이,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려 한다.

6월 연구 모임 (6.9~10)

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농사에 있어 풀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유기농에서 대부분의 일은 풀매기이기 때문이다. 농사에 있어서 (특히 교육 농'에서는) 풀'을 적'이 아니라 '동료'이자 '선물'로 볼 필요가 있다. 풀은 '죽여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대지를 일구는 '동료'이자 농사에 있어 자연의 '선물'이기도 하다. 듣기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무슨 낭만적인 소리이냐'라고 되물을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 서서 '풀'을 대변하고 풀을 다른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제초(除草)가 아니라 억초(抑草)

'풀'은 대지를 보호한다. 강한 햇빛으로 부터 강한 비로 부터 대지를 보호하고 다른 생명들이 살 '터'가 되어준다. 또한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어 준다. 대지의 생명 그물망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이다. '풀'이 없는 땅은 사막이고 황무지일 뿐이다. 농사에 있어서 풀을 잘 이해야 알고, 적절히 활용 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풀은 좋은 뿌리 덮개(멀칭)재료이자, 퇴비재료이다. 풀을 '뿌리 덮개'재료로 적절히 활용하면 수분을 보존해주고 미생물과 소생물이 활발히 살아 움직이는데 도움을 준다. 더불어 다른 풀이 자라나는 것을 '억제'해 준다. 풀은 훌륭한 퇴비재료이기도 하다. 가축의 먹이로 쓰고 그 똥을 퇴비로 만들어 쓴다. 그냥 풀만으로도 좋은 퇴비가 될 수도 있다. 풀을 모으고 수분을 적절히 주면 좋은 풀퇴비를 만들 수 있다. 풀은 제거 하고 없애 할 '적'이라기 보다는 '도움'을 받고 '수확'해야 할 동료이자 선물이다. 풀은 제초하기 보다는 적절히 '관리'하며 필요에 의해 자람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 풀은 억초 또는 (더 적극적으로는) 선택적으로 '재배'해 주어야 한다.

병충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병충해는 약한 식물체에게 우선적으로 온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학 보다 예방의학이 중요하 듯, 작물을 기를 때도 작물을 건강하게 잘 기르는 것이 병충해를 방지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 충해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랭사나 방충망 등을 통해 초식 곤충들이 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막는 일이고, 또는 초식곤충들을 유인하는 '트랩' 등을 설치하기도 한다. 이미 충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천연농약 자재 (은행잎이나 제충국, 자라공, 쇠뜨기, 계란과 식용유를 섞어 만든 난황유 등)를 만들어 작물들에게 뿌려주기도 한다.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천적을 살포해 주거나(시설 재배의 경우) 벵크 플랜트(천적이 살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재배하는 작물)를 설치해 주기도 한다. 충해도 토양이 건강히 살아나고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그물망이 살아나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른 생명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교육 농(農)에서는 충해, 곤충이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을 먹어 생기는 피해를 어떻게 볼 지,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같이 경험해 보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결국 다른 생명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답해보는 과정이 아닌가 한다. 그들도 그들 본성에 따라 (초식 곤충이므로) 풀과 우리가 기르는 작물을 먹는 것일 뿐인데 우리가 그들을 미워할 까닭은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냥 두고만 볼 수도 없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공존 할 수 있을까? 상생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리 저리 생각해보면 어떻게 한다.

사 례 나누기

거산에서 농사짓기 / 조경삼 충남 아산 거산초 iamsam32@paran.com

거산 농사 이야기

거산의 농사는 아직 바람이 찬 3월에 시작됩니다. 부지런한 조 주사님이 고춧대, 비닐 등 지난해 흔적들을 치우시는 것을 보며 농사가 시작됨을 실감합니다. 4월이 가까워진 어느 토요일, 밭 주인

아저씨가 경운기로 밭을 가시고, 마을에서 농사지으시는 찬하 아빠가 관리기로 이랑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지원단 어머니들이 달려들어 이랑에 비닐 멀칭을 하면 농사지를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신 밭에 가장 먼저 심는 것은 감자입니다. 주사님이 뚫어 놓으신 구멍에 <씨감자> 노래를 흥얼거리며 잘라진 씨감자를 묻습니다. 이불처럼 흙을 잘 덮어 주며 여름에 먹을 토실토실한 감자를 떠올립니다. 아이들은 산책 시간마다 감자 이랑을 둘러보는데 감자 싹이 나오는 것은 생각보다 더합니다.

텃밭에 가서 씨감자를 심었다. 처음에는 씨감자에 대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씨감자 씨눈을 잘랐다. 왜 자르냐면 한 개에 여러 개가 나와서다. 그리고 씨감자 자른 것을 심었다. 어떻게 심었냐면 씨눈이 위로 나오게 심었다. 왜 위로 심냐면 빨리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씨감자라면 칼로 자르면 아주 아플 것 같다. 내가 캄캄한 땅에서 혼자 서 있으면 무섭겠다. 그런데도 감자는 그걸 참는 게 아주아주 대단하다.

_ 2007년, 3학년 꽃잎마을, 전○○

진달래 화전도 해 먹고, 썩떡도 해 먹고, 아이들이 반팔을 입기 시작하면 5월이 됩니다. 시장에서 사 온 고추, 토마토, 오이 같은 모종과 상추, 땅콩 같은 씨앗을 심고, 눈에 들어갈 모판을 만들어 비닐하우스에 키웁니다. 중순쯤에는 가을에 캐 먹을 고구마 순도 놓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당번을 정해 열심히 물을 줍니다. 심지어 비온 다음 날에도. 아침 활동으로 자기가 키우는 작물을 자세히 보고 그리며 자라는 것을 관찰합니다.

실과 시간에 텃밭에 가서 키운 채소들에게 물을 줬다. 그리고 내 감자 3개 중 1개 싹이 부러졌는데 오늘 가 보니 다른 감자의 정말 작은 일만한 작은 싹이 옆으로 나오고 있었다. 정말 고마웠다. 그런데 동하랑 같이 키우고 있던 토마토가 부러졌다. 전에는 조금 쓰러져 있기는 했는데 오늘 보니 정말 죽어 있었다.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다. 또 땅콩은 아직 싹이 크게 펼쳐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싹이 커서 정말 크게 펼쳐질 것 같았다. 그리고 고추도 많이 크진 않았지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다. 정말 채소들에게 고맙다. 특히 작은 감자 싹한테. 채소들이 정말 고마워.

_ 2010년, 5학년 산마을, 문○○

5월 말, 논에서는 모내기를 합니다. 6학년만 할 수 있는 논농사이기에 논물도 차갑고, 밭에 닿는

느낌도 낮설지만 꼭 참고 심습니다. 모내기를 마치고 먹는 쌀로 만든 참은 어느 때보다 꿀맛입니다.

오늘은 6학년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모내기 날이다. 아침부터 반바지를 입고 나가느라 추웠다. 난 논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곤란한 곳인지 몰랐다. 들어가면 온통 진흙으로 범벅이 될 것 같은. 하지만 모내기는 우리의 임무였으므로 눈에 들어가야만 했다. 용기를 내서 한 발짝, 이미 내 옆에선 아이들의 비명이 들렸다. 느낌이 참. 생전 처음 느껴 보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우리 반 전원이 조금 요란하게 논으로 들어갔다. 모를 심는 것은 간단했다. 조금은 재미있기도 했다. 예전에는 지나가면서 그냥 힐끔힐끔 보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까 새로운 느낌도 들었다. 난 눈에 생물이 그렇게 많이 사는 줄 몰랐다. 다른 초록색 이끼 같은 것도 다리에 와서 달라붙었다.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일 듯한 모내기가 재미있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다. 노랑계 익을 벼들을 생각하니 벌써 뿌듯하다. 왠지 뭔가 큰일을 치른 느낌이다.

_ 2011년, 6학년 땅마을, 김○○

별이 다가워지면서 밭에서, 논에서 작물들이 쑥쑥 자랍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풀도 매 주고 돌봐 주지만 잠시만 못 가 보면 작물보다 키 큰 풀들을 만나게 됩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감자를 수확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정성 들여 키운 감자를 땅 속에서 썩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수확한 감자는 여름방학 전까지 유용한 간식이 됩니다.

텃밭에서 맛있는 감자를 캐다. 1교시에 수학을 하고 나와서 호미 들고 목장갑 끼고 텃밭에 왔다. 텃밭에는 1학년들이 감자를 캐고 있었다. 우리는 1학년이 갈려고 할 때 감자를 캐다. 먼저 비닐을 벗기고 풀을 뽑은 다음에 감자를 캐다. 내가 호미로 파헤쳐 보았더니 개미알과 애벌레 개미들이 수두룩했다. 개미들이 놀랐는지 전보다 엄청 빨리 움직였다. 나는 감자를 꺼낸 후 다시 덮어 줬다. 초록 감자도 많이 있었는데 남자애들이 밭에다 던졌다. 감자를 다 캐고 교실로 들어갔다.

_ 2007년, 3학년 꽃잎마을, 전○○

나는 오늘 감자를 캐고 감자를 두 개 갖고 가서 씻고 교실로 들어와 수학을 했다. 선생님이 감자를 삶아 줬다. 나는 빨리 먹고 싶었다. 다 뻤다. 나는 우유를 뜰려고 했는데 안 뜰어졌다. 그래서 컵에 따라서 먹었다. 감자를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감자 캐던 것을 몸으로 표현해 보라고 했다. 뭐냐면 나는 앉아서 하아린에게 감자를 주는 거고 현일이는 들고 있는 것, 하아린은 내가 주는 감자

를 받는 거였다. 자리에 들어갈 때 쿵쿵거리는 게 재밌었다.

_ 2007년, 3학년 꽃잎마을, 김○○

아이들은 여름방학에 들어가고 돌보는 이 없는 텃밭은 풀과 해충들의 천국이 됩니다. 보다 못한 부지런한 누군가가 우렁 각시처럼 풀과 해충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정글이 될지도 모르죠. 덕분에 개학해서 텃밭에 가 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환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자 캔 자리에 다시 이랑을 만들고, 배추 모와 무씨를 심습니다. 배추 애벌레와 풀벌레 등이 달려들긴 하지만 바람이 선선해지면서 벌레들의 기승도 한 풀 꺾입니다. 가끔 고라니가 뜯어 먹기는 하지만 산짐승도 함께 살아야지요.

9월 18일 추석이 시작되기 전에 무씨를 심었다. 그 후로 10여 일 후에 아침 활동으로 무 싹을 관찰했다. 나는 그중에 가장 크고 예쁜 것을 찾아 관찰을 했다. 무 싹은 떡잎이 크게 나 있었고 본잎은 두 떡잎이 난 줄기 가운데에 고개를 숙 내밀고 있었다. 그중에 떡잎은 둥근 하트 모양처럼 생겼는데 앞 앞면은 연두색이고 뒷면은 앞면보다 살짝 연했다. 그리고 앞에 잎맥이 조금 보였다. 본잎은 아기 요람처럼 동그랗게 말려 있었다. 말려 있는 것으로 봐서는 잎의 테두리가 뾰족뾰족할 것 같다. 줄기는 길이가 약 6cm 정도 되는 것 같았고 곁에 아기 피부에 난 솜털처럼 부드럽고 하얀 털이 있었다. 10월 4일에도 아침 활동에 관찰을 했다. 다행히도 내가 관찰했던 무 싹은 다른 싹처럼 벌레가 먹진 않았다. 그리고 줄기가 땅에 묻혀 있었다. 떡잎 크기는 그 전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았고 그 전보다는 좀 시들해 보였다. 그 대신 그 전에는 작게 말려 있었던 본잎이 자라서 매우 많이 커 있었다. 왼쪽 본잎은 약 5.5센티미터였고 오른쪽 본잎은 약 5센티미터 정도 됐다. 또 테두리가 내 예상처럼 뾰족했다. 관찰을 끝내고 학교에 들어와 태블릿 피시로 무를 검색해 보았다. 무는 먹을 수 있는 뿌리채소이며 종류가 많고 어느 계절에나 재배할 수 있고 세계 곳곳에서 재배한다. 무는 보통 4~20센티미터이다. 무에는 비타민C가 많아서 겨울에 비타민 공급이 된다. 무에는 소화효소 아밀라아제라는 것이 뿌리에 많이 들어 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무가 우리 건강에 좋다는 걸 알았다. 앞으로 무를 더 즐겨 먹어야겠다.

_ 2010년, 5학년 산마을, 변○○

학교를 둘러싼 산 빛이 변하기 시작하면 논의 벼들도 황금물결을 만듭니다. 벼 벨 낱자를 정해 주시는 것도 주사님 몫이구요. 날카로운 낫의 날이 겁나 선생님들은 몇 번이고 주의를 주지만 아이들

은 아랑곳없이 잘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튼질하듯 하지만. 그렇게 벤 벼를 묶어 세워 놓으면 다 마른 후 이웃 눈에 콤바인이 들어올 때 탈곡을 하게 됩니다. 탈곡한 벼는 주사님 댁으로 가져갔다가 정미해서 학년 말 책꽂이 때 떡을 해 먹습니다.

오늘 벼 베기를 하였다. 먼저 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근처 논으로 갔다. 우리 모듬이 제일 먼저 뻗었다. 낫을 들고 벼의 아랫부분을 베면 되었다. 선생님은 풀뿌리 뽑듯 쉽게 벼를 베었다. 나는 그걸 보고 벼 베기가 쉬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다. 벼가 죽기 싫었나? 그래도 워낙 재미있어서 계속하고 싶었으나 선생님이 다섯 포기만 베라 해서 올라가 구경했다. 다른 애들은 열 포기씩 하기도 했다. 잠시, 불공평하단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어쨌든 금방 잊어버렸다. 우리가 한 뒤에는 낙동강, 한강, 그리고 금강 모듬순으로 했고 다시 우리가 베게 되었다. 이번에는 우리도 열 포기씩 베었다. 근데 어째 이상하게 내가 베는 벼들은 안 죽을라고 안간힘을 썼다. 낫으로 도끼 찍듯이 베는 걸 여러 번 해야 베어졌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다. 그 다음 벤 벼를 뿔단으로 만든 것을 한 줄로 세워 놓고 사진을 찍었다. 황천길 가기 싫은 질긴 벼들 때문에 팔은 아팠지만 마음은 즐거웠다. 농부 아저씨 힘든 걸 알겠다. 농부 아저씨, 감사합니다!

_ 2007년, 4학년 강마을, 김○○

밭에서도 고구마를 캐고, 서리 오기 전 거둬들일 것들을 갈무리합니다. 무와 배추를 뽑는데 무는 청을 잘라 놓았다가 논에서 난 짚으로 시래기를 엮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확한 무와 배추는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씹을 싸 먹기도 합니다. 물론 무는 그 자리에서 우적우적 먹기도 하구요. 6학년은 실한 논으로 무, 배추를 남겨 났다가 김치를 담급니다. 양념을 만드는 것은 도우미 어머니가 하시지만 준비에서 무치는 것까지 모두 아이들 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치가 완성되면 수육과 함께 잔치가 벌어지지요.

오늘은 6학년들만 하는 김장을 하는 날이다. 곁절이, 생채, 깍두기로 모듬이 나뉘었다. 나는 깍두기 모듬이었다. 날씨가 쌀쌀했지만 무를 씻기 위해 밖에 있는 수돗가로 향했다. 온수가 나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찬물로 무를 씻었는데 손이 너무 시렸다. 무를 모두 씻고 다시 들어가서 이번엔 껍질을 벗겨 내고 직사각형으로 썰기 시작했다. 무가 생각보다 잘 썰리지 않았다. 가둬이나 칼질을 잘 못하는데 썰기까지 어려워서 무의 모양이 이상했다. 이번에는 무의 껍질을 벗겼는데 이것도 어려워서 처음에는 애를 좀 먹었다. 하지만 곧 익숙해져서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껍질 벗겨 내기와 썰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번에는 마지막 작업인 버무리기를 했다. 위생장갑을 끼고 무를 버무리기 시작했다. 무의 양이 많아서 쉽진 않았지만 이것도 역시 잘했다. 버무리는 도중에 몇 개씩 집어 먹다 보니까 혀가 아프고 속이 쓰렸다. 그래도 맛은 괜찮은 듯해서 다행이었다. 김장이라고 마냥 어렵게 보기만 했는데 나름 재미있게 한 것 같았다. 맛도 나름 괜찮았고 다른 모듬들이 한 것도 아주 맛있었다. 다음에 또 깍두기를 담그게 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 2011년, 6학년 땅마울, 김○○

한 해 농사를 담은 것도 시작을 열었던 조 주사님 몫입니다. 땅 열기 전에 비닐을 걷고, 고춧대도 뽑아 썰어 놓습니다. 지지대도 뽑아 모으고, 쓰러지지 않게 묶어 주었던 끈도 걸어 내고 나면 텃밭도 텃논도 처음처럼 다시 텅 빈 곳이 됩니다.

거산에서 농사짓기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러한 농사는 거산에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거산에서 왜 농사를 짓게 되었는지를 알려면 우선 거산초등학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거산은 우리나라에서 분교가 본교로 승격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글쓰기 모임을 함께하던 선생님들이 연계되는 글쓰기 교육을 해보자며 의기투합하여 거산이라는 공간을 찾고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와 96명의 아이들이 함께 전입하여 전교생 삼십여 명의 폐교를 눈앞에 둔 학교에서 아이들이 복직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이 학교에서 기치로 내건 구호는 ‘참삶을 가꾸는 작고 아름다운 학교’였습니다. 이를 위해 내세운 것이 ‘환경·생태·어린이 중심의 학교 만들기, 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구성·운영, 모두의 참여로 만드는 새학교 문화’였는데 농사는 지역 여건뿐만 아니라 환경, 생태, 체험 중심의 교육, 지역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 적합한 교육 활동이자 참삶을 가꾸고 글로 표현하기에도 적합한 좋은 공부거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교가 처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힘들 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의 도움으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002년 ‘환경체험학습’이라는 이름으로 계획된 통합적 접근의 주요 내용과 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2년 환경체험학습 계획>

유형	활동 주제 및 내용	지원 체계
학년 간 통합	- 우리 들꽃 가꾸기 : 1, 4학년 - 가꾸기 : 2, 5학년	- 학계 전문가, 지역 주민, 양봉인, 수의사 등과 연계하여

	- 동물 기르기 : 3, 6학년 - 벌 기르기 : 5, 6학년	주제별 지원체계 마련
주제 간 통합	-텃밭에서 얻은 잡초를 동물 먹이로 준비 -동물의 배설물로 텃밭용 퇴비준비 -우리 들꽃 밭에서 벌을 이용한 곤충 관찰	-학기 초에 주제 간 통합을 위한 기간 조정 및 역할 분담
학습 형태 간 통합	-참여형의 준비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탐방형 학습의 주제 설정 -참여형 학습의 과정과 결과를 표현형 학습의 소재로 활용	-새로운 탐방 대상의 발굴 및 정기적인 발표회 개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텃밭은 환경체험학습의 공간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주로 2, 5학년에서만 텃밭 농사에 집중한 것으로 보이지만, 학년별 환경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보면 다른 학년에서도 감자, 고구마 심기와 모종 심고 가꾸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학년 계획을 보면 텃밭 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월의 농사 계획 세우기와 농사 준비를 시작으로 4월의 감자 심기, 5월의 모종과 씨앗 심기, 관찰하기, 6월의 고구마 순 내기, 일채소 수확하기, 7월의 쌀밥 잔치, 8월의 김장 채소 심기, 10월의 고구마 수확하기, 12월의 김장하기 그리고 2월의 마무리까지 일련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보다 더 정교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논농사는 2005년 이후 생태교육의 영역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논농사 역시 3월에 논농사 전반을 이해하는 공부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의 모판 만들기, 5월의 모내기, 6월의 김매기, 7~9월의 이삭·논 생물 관찰, 10월의 벼 베기, 11월의 짚짚 문화 체험 등 전반적인 내용과 흐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초창기 교사들은 이벤트성 체험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는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관련 요소를 추출하여 환경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실천하였습니다. 생태교육에 관심이 있는 ‘초록교실사람들’이라는 모임의 선생님들과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자연은 내 친구>라는 초등학교 체험환경지도 교재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거산에서 농사짓기는 어떻게 변화하였나?

초창기 교사들이 점차 임기 만료로 거산을 떠나고 저와 같은 2기 교사들이 찾아들게 됩니다. 2008년 거산에 처음 와서 본 농사의 모습은 계획과 달리 많은 부분이 약화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거산에 와서 그 내면의 고민들을 알지 못한 채 걸음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계획처럼 하나의 흐름이 되지 못하고 분절되는 느낌, 일상적이지 못하고 일회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나름 소화하면서 다양한 체험 활동, 독서와 글쓰기교육, 문화예술교육, 생태교육으로 일컬어지는 학교의 주요 특색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 다소 무리가 되

는 부분들은 통합되기도 하고, 강조되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면서 변모해 왔을 것입니다. 또한 초기의 다양한 시도들이 현실에 부딪히면서 '고갱이'만을 남기게 되었을 수도 있구요. 수업, 교과체험 학습, 계절체험학습,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텃밭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일상적인' 활동이 아닌 '행사적인' 활동이 되어 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가꾸고 기다리는 공부 가 되지 못하고, 심기·관찰하기·수확하기가 행사처럼 이루어지면서 여러 고민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농사에 대한 오개념 - 심어 놓고, 몇 번 자라는 것 보고, 그러면 수확할 수 있는 - 을 심어 주는 것은 아닌지, 고학년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소 유육 - 수확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의 노력(심고, 물 주고, 풀 뽑고, 수확하는)보다 더 큰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보지 못하고(밭을 일구고, 이랑을 만들고, 잡초를 뽑고, 지지대를 세우고, 겨울이 오기 전 갈무리를 하는 등) 내가 심은 것은 모두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 을 어떻게 긍정적인 나눔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등 교사들의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농사에 집중하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산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공간이고, 초등 보통교육을 실시해야 하기에 더 이상의 '깊이'를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작년 학교 교육과정 평가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깊게 논의되었습니다. 그 결과 일상적인 공간을 정하고 거기에 더 집중하며, 프로젝트식 활동을 통해 농사에서 깊이를 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 텃밭과 논농사를 주제로 갯골생태농업연구소와 연계한 연수를 진행하였고, 교육농(農) 연구소와 교육공동체 벗이 함께하는 '교사 농사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올해 농사도 예전과 비슷하거나 또 다른 모습으로 지어집니다. 4학년 강마을 발농사는 아이들과 모둠별로 채소 요리를 먼저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채소를 키워 7월과 11월 두 차례 부모님을 모시고 요리 대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사 농사 아카데미에서 배운 것처럼 모듬당 한 평씩 속 깊은 이랑을 만들고 거기에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작물을 심기로 했는데, 묘하게도 요리는 각기 다른데 작물은 오이, 토마토(방울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피망, 당근, 상추로 모아졌습니다. 조금 서둘렀다면 모종을 길러 냈을 텐데 거기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2모작에는 무, 배추, 순무 등을 심어 김치를 만들 예정이구요. 유기적 해충 방제나 거름 만들기 등 유기적인 식물 건강에 대해서도 다뤄 보려 합니다. 전 학년 공동 경작지엔 이미 감자가 자라고 있고, 5월에 고구마 순을 낼 것이고, 고추를 한 줄 심을 계획이며, 밭 둘레엔 옥수수를 심을 겁니다. 5학년이 담당하기로 한 논농사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논 생물 조사가 강조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논둑 식물, 물에 사는 생물, 거미와 곤충 등을 조사한다고 합니다.

<2012년 학년 통합 텃밭 운영 계획>

경작 - 감자 4고랑					
공동 경작 - 고구마 6고랑					
공동 경작 - 고추 1고랑					
유치원 텃밭	1학년 텃밭	2학년 텃밭	5학년 텃밭	6학년 텃밭	
통로					
텃밭 입구	하우스	통로	3학년 생태 학습장 (텃밭+곤충)	통로	4학년 생태 학습장 (텃밭+식물)
꽃밭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농사는 여러모로 매력적인 공부입니다. 하지만 깊이 있는 고민 없이 선뜻 뛰어들었다간 여러모로 힘들어지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거산에서의 '농사'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별 생각 없이 따라 하는 교육 활동이 아닙니다. 남들이 좋다니까, 특별해 보이니까 하는 활동은 더더욱 아닙니다. 흙의 소중함을 아는 것도 필요하고, 생태계의 순환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참삼을 가꾸는 거산 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보탬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은 나, 더불어 사는 우리'를 실천하는 데 꼭 필요하기에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구성원이 바뀌어도 세부적인 모습은 바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7월 연구 모임

천문(天文), 지문(地文), 인문(人文)

농사는 하늘에 의지하고, 땅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한다. 농사는 하늘과 땅, 사람과 유기적 관계 그 물망 속에 있다.

천문(天文)

날씨와 기후에 따라, 하늘의 표정과 상황 아래, 농사 일은 따라 이루어진다. '하늘이 농사 짓는다'라는 말은 참말 중에 참말이다. 농부는 그런 하늘을 잘 읽고 알아야 그때에 맞는, 그때에 필요한 일을 해 줄 수 있다.

맑은 날에는 맑은 날에 맞는. 비오는 날에는 비오는 날에 맞고 필요한 일이 있다. 서늘한 날씨에 기를 수 있는 작물이 있고, 더운 날씨에 기를 수 있는 작물이 따로 있다. 농부는 날씨와 기후, 하늘의 상태에 온몸을 기울인다. 자꾸 하늘을 바라보고, 일기예보에 유난히 귀를 기울인다. 천문을 읽기 위해서다. 농사를 몸으로 익혀 배우고 짓는 일은 하늘을 배우는, 더 구체적으로는 하늘의 움직임과 상태를 읽고 알아,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과정, 천문(天文)을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 한다.

지문(地文)

또, 농사는 땅에 의지해 이루어진다. 땅이 곧 작물이고 작물이고 곧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 생명이다. 땅은 작물을 키워내는 어머니이다. 작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 몸을 지탱하며 양분을 얻어 몸을 키워 살아간다. 우리 역시도 땅에 두 발을 붙이고 땅에서 생명을 길러 먹고 땅에 의지해 살아간다. 그런 땅을 모르고, 땅을 잘 읽어 알 수 없다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지금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 지금 내가 해주는 일이 (땅을 가는 일이건, 김을 매는 일이건, 무엇을 심거나 무엇을 파는 일이건) 땅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땅에 이로운 (결과적으로 작물과 내게 이로운) 일을 하며 건강한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농사는 땅을 읽고 알아가는 과정, 지문을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 한다.

인문(人文)

인문은 사람에 대한 공부 또는 학문을 말한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 일이다. 그것도 함께 어울려 짓는 일이다. 함께 일하는 이들, (보통 농촌에서는 함께 일하는 이들이 같은 촌락이나 지역에서 사는 이웃들이기도 하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농사를 함께 어울려 지을 수 없다. 나를 포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 지식과 이해, 같이 일하는 이에 지금의 몸상태와 마음상태 등등을 알아야 함께 어울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 농사를 짓는 과정은 구체적으로 나와 주변의 동료와 이웃들을 읽고, 알아가는 인문(人文)의 과정이 아닌가 한다.

글(文, Text)

하늘과 땅, 사람이라는 문(文)을, '텍스트(Text)'를 잘 읽고 알아야 농사를 능히 지을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농사는 하늘과 땅, 사람에 대한 공부이며 천문, 지문, 인문에 통달해 가며 전인(全人)이 되어가는 배움의 과정이 아닌가 한다.

Food, Edible.. 먹거리 교육

'먹는 것', 혹은 '먹거리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교육에 있어 중요한 핵심이다. 먹거리를 통해 (일상적으로) 우리는 자연, 사회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어간다. 먹거리는 삶의 방식이고 문화이기도 하다. 또 다른 한편 민주주의기도 하다. 먹거리는 정치적 행동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거리를 통해 세상에 참여하고 세상을 이루기 때문이다. 먹거리가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 삶의 있어 중요한 핵심적 일부이다. 해외서는 'Agriculture'에서 'Food'로 그 개념과 관심을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농업이라고 표현하면 농촌 또는 농민들의 문제로만 여기기 쉽지만, 음식 혹은 먹거리로 표현하면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우리 모두의 주제이자 문제라는 것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먹거리라는 것을 교육으로 접근해 나가는 것도 교육 農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이 아닌가 한다. Edible schoolyard라는 교육프로그램은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텃밭과 부역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텃밭과 부역이 교육 장소로, 그리고 그것과 관련 된 여러 주제와 소재가 다른 교과 수업에서도 유용히 쓰인다. 이 그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모든 학교의 교육에 먹거리에 관련 된 공부가 교

육의 중심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Principles of edible education

1. Food is an Academic Subject

A school garden, kitchen, and cafeteria are integral to the core academic mission of the school, so that ecology and gastronomy help bring alive every subject, from reading and writing to science and art.

2. School Provides Lunch for Every Child

3. School Support Farms

4. Children Learn by Doing

5. Beauty is a Language

Edible schoolyard를 포함해 해외 여러 프로그램이 흥미롭고 인상적인 것은 먹거리를 교육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는 사실이다. 직접 재배하고 기르고 가꾸고 요리해 식탁에 올리고 함께 먹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 된 인문적, 생태적, 예술적 공부를 해내 간다는 사실이다. 교육에 있어 소외 되어 왔던 생태성, 신체성, 예술성, 현장성이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두드러진다.

사 례 나누기

지상의 작은 생명들과 우주와의 대화 - 푸른숲발도르프학교의 농사 수업

이은하 푸른숲발도르프학교 freie33@hanmail.net

경기도 광주로 옮겨 그야말로 푸른숲에 둘러싸인 터전에서 인지학을 기반으로 하는 발도르프교육을 실천하는 학교이다. 우리 학교는 여타의 발도르프학교들처럼 매일 아침 1교시, 8시 20분에서 10시까 지 3주 또는 4주간에 걸쳐 하나의 주요 과목(국어, 수학, 형태 그리기, 지리, 과학, 역사 등)을 배우는 주기집중식 수업을 한다.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앎'을 기초로 하여 아이들의 발달 단계의 특성에 따라 "세상은 선하다, 아름답다, 참되다"는 것을 주요 과목 및 기타 여러 수업 (손으로 하는 수공, 목공 수업 등)을 통해 손과 발, 가슴, 머리로 배워 나간다. 아침 시간에 이루어지는 주기집중식 수업의 내용은 다른 여러 교과목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진행되며 이는 다음 학년 교과 과정과도 연계된다. 담임교사는 1학년 부터 8학년까지 아이들의 성장과 지속적으로 함께하므로 이러한 연계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발도르프학교에서 농사 수업이 교과 시간으로 편성되는 것은 6학년부부터이지만 1학년 때부터 아이들은 자연과 산책 시간을 통해 숲과 산길에서 주변 자연의 흐름과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학교는 도농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으며 뒤로는 산과 숲이 둘러싸고 있고 앞으로는 경안천 주변의 작은 논과 밭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나마 도시의 학교보다는 자연환경이 살아 있어 자연에 대한 감

수성을 키우기에는 좋으나 경작 수업을 위한 땅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학교의 과제이다. 하남에서 광주로 터전을 옮긴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학교가 위치한 마을 주변에서 작은 다랑이 논을 빌려 논농사를 짓고 학교의 작은 텃밭을 이용하여 밭농사를 짓고 있다. 현재 6학년 과 8학년은 학교의 작은 텃밭을 벗어나 차로 10여 분 거리에 밭을 빌려 일구고 있다. 전직 대안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귀농을 하신 농부님의 밭이다. 7학년은 학교와 학교 주변의 화단을 정비하고 가꾸며 학교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책임지고 있다. 최근에는 주변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몸이 아파서 일구지 못하는 밭을 사용해도 좋다는 말씀을 하셨다. 임대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마을과 함께하는 좋은 계기가 될 듯하다. 우리 학교에서의 농사 수업을 3학년과 6학년을 중심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3학년의 '농사짓기'

6학년에서 시작되는 농사 수업 전에 3학년에서 주요 수업의 하나로 '농사짓기'를 함께한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잠깐 그 시기 아이들의 발달 특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3학년 학생이 그린 허수아비가 농작물들을 지켜 주고 있는 모습의 그림.

연을 느끼고 모방하며 온몸으로 세상을 배우다가 새로운 배움을 향한 내재된 힘을 이갈이로 표현한다. 이갈이를 전후로 하여 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1, 2학년 시기, 리듬과 음률로 우리말을 익히고, 숫자 속에 숨어 있는 자연과 우주의 비밀 스런 이야기들을 듣고 배워 나간다. 이때까지의 아이들은 온갖 상상력 속에서 나 무의 정령들과 숲의 온갖 동식물들이 때론 친구도 되고 때론 놀잇감이 되기도 하는 등 세상과 하나되어 살아간다. 아직 '순수함'이 살아 있는 시기다. 이렇다 학년이 되면 차츰 자신에게 익숙했던 주변을 구분 짓기 시작하고 가까운 엄마조 차도 낯설게 느끼는 '심리적 위기'를 겪게 된다. 이러한 때에 주요 수업에서는 세상이 창조되었던 이야기(창조 신화)를 듣게 된다. 흥미롭게도 여러 민족들마다 고 유하게 가지고 있는 창조 신화의 열개는 대개 비슷하다. 태초의 어둠과 혼돈 속에서 시작되어 세상과 인간이 만들어진 이야기,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땅을 갈기 시작하여 자연에서 얻은 것으로부터 먹고 입으며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3학년 아이들은 이러한 창조 신화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의 활동, 그것도 오랜 옛날부터 손으로 해 오던 여러 전 통적인 삶의 방식들을 배워 나간다. 직접 땅을 일구어 논농사, 밭농사를 지어 내가 먹는 먹거리들을 만들어 보고, 집도 지어 보고,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도공과 대장장이들도 찾아가 보면서 말이다.

3학년에서의 농사짓기는 이렇게 다른 주요 과목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진행된다. 시기는 24절기

중 입하가 있는 5월쯤에 시작한다. 노동요를 배우며 논에 가서 갈라진 논을 엮고 물을 채워 썰레질을 하고 때맞추어 모내기를 한다. 아이들에게 논은 놀이터다. 첨병대며 논에 사는 곤충들을 쫓기도 하고 엉덩방아를 찧기도 하며 한바탕 물놀이를 시작한다. 광주로 터전을 옮긴 이래로 논은 마을에 사시는 할아버지께 임대하여 쓰고 있다. 밭은 학교 운동장 옆, 자그마한 돌밭을 일구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밭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있다. 3학년이 주로 밭을 경작하며 다른 학년, 선생님들이 함께 조금씩 힘을 보탠다. 이 자그마한 땅에서도 상추년의 농사짓기 주요 수업은 끝나지만 주기적으로 논에 가서 얼마나 자랐나 보고 한여름 몇 차례 피사리를 하고 가을이 되면 누렇게 익은 들판으로 낫을 들고 나간다. 낫으로 벼를 베기 전에 벼들 사이에 둥그렇게 모여 서서 벼를 함께 키워 준 비와 바람, 햇볕, 여러 곤충들, 자연에게 감사의 축문을 올리고 우리들의 노고를 함께 나누며 추수를 한다. 추수한 벼는 홀태와 밭 탈곡기로 탈곡을 하고 키질하여 지푸라기를 날리고 운동장 한편에서 아침, 저녁으로 별에 넣어 말린다. 정미소에 가서 도정한 쌀은 학교 식당에서 전교생들이 점심으로 함께 나누거나 떡을 하여 그해 추수의 기쁨을 함께한다. 올해는 3학년 담임인 김자경 선생님께서 작사 작곡한 노동요를 부르며 논밭을 일구었다. 이 노동요는 서로 주고받는 대구로 이루어져 있어 리듬이 있는 움직임에 흥을 불러넣어 준다.

노고지리 앞서 가자 / 해가 뜨는 이 벌판 / 초롱불에 들어가자 / 해가 지는 이 벌판 / 강 소굴레 풍경 소리 / 자고 깨는 농부야 / 들길 따라 논두렁에 / 어서 가자 어서 가
올해 3학년은 목화도 키우고 누에를 치며 여기에서 얻은 실로 실짓기를 하여 바느질을 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3학년의 한 학생이 농사를 지으면서 쓴 글 중의 일부이다.

썰레질

논에 물을 대고 흙이 부드러워지게 양말을 신고 흙을 밟았어요. 처음에는 느낌도 이상하고 물이 차가웠지만 점점 지나니 괜찮았어요. 개구리들을 남자애들이 던져서 좀 놀라기도 했지만 흙을 던지는 것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주세옹이 논바닥에 누워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는 깨끗한 물로 씻고 양말을 빨았어요. 썰레질은 하기가 무척 힘 들었어요.

누에가 고치를 만들고 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애들이 가르쳐 주었다. 고치는 꼭 공 같고 목화솜을 뭉쳐 놓은 것 같다. 책에서 여러 번 보긴 했지만 실제로 보긴 처음이다. 책에서 찾아보았는데 고치가 번데기가 되려면 70시간이 걸린단다. 예휴! 누에를 키우는 것은 너무 힘든데 누에는 너무 편하게 먹고 싸고 한다. 누에가 고치를 만들 수 있도록 집을 만들었다. 근데 상자로 만들었는데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결국 그만 만들었다. 그래도 재미있었다.

깻잎 심기

감자를 다 수확해 남은 땅에 깻잎을 심기로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모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밭으로 나가 깻잎 모종을 심었습니다. 중국어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흙을 뒤집고 깻잎 모종 2줄기를 비스듬히 놓아서 심었습니다. 다 심은 다음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나는 깻잎 째는 싫지만 깻잎 장아찌는 좋습니다. 어서어서 깻잎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 3학년 김시연

3학년의 농사 수업은 4학년의 동물학, 5학년의 식물학, 6학년의 광물학, 천문학 등의 수업 등으로 이어지며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배우게 된다. 5학년이 되면 식물학 주요 수업을 하는데 이때에는 주변의 여러 식물의 모습을 관찰하고 세밀화로 그리며 4대왕국(해, 물, 바람, 땅)이 식물의 성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통해 식물의 한살이를 배운다. 식물이 성장하는 모습 속에 숨어 있는 비밀스런 규칙들을 찾아나가며 자연의 법칙도 발견해 나간다.

6학년의 농사와 원예 수업

6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과목 수업으로서 농사 수업이 일주일에 2시간씩 진행 된다. 6학년은 아동기의 중심기를 지나 사춘기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인과론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신체적으로는 서서히 호르몬의 변화가 시작되며 팔과 다리가 길어져 중력의 힘을 강하게 느끼는 때이기도 하다. 남자, 여자 아이들 사이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상상력에서 개념적 사고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자연에 대한 감수성들을 키우는 단계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과의 관계와 그 영향과 결과들을 차츰 인식하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3학년에서는 <24절기 노래>를 익혔는데, 6학년에서는 계절에 따른 자연의 모습과 농부들의 삶을 노래한 <농가월령가>로 매일 아침 수업을 연다. 농사 수업은 2월 말 조별로 밭을 설계하고 농기구의 종류와 쓰임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3월, 밭에 씌워져 있던 비닐을 제거하고 밭 한편에 함께 감자를 심었다. '푸른숲학교'의 앞 자를 따서 '푸' 자 모양으로 밭을 디자인하고, 조별로 '속 깊은 이랑'을 만들었다. 이랑 위에는 신문지로 덮어 주고 각자 심고 싶은 작물들을 심었다. 토마토, 옥수수, 상추, 참외, 파프리카, 고추, 양배추, 오이, 상추……. 각각 각색의 채소들을 심었다. 1주일 만에 밭에 찾아가면 작물들이 쑥 커 있는 모습에 을 제거하는 데 많은 힘을 쏟다 보면 밭에서의 2시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 밭이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자주 가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아쉽다. 학교 안에 농장이 있다면 수시로 작물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돌볼 수도 있을 텐데…….

그날그날의 밭에서의 활동과 느낀 점들을 일지로 써 나가며 한 해의 흐름과 변화, 먹거리들의 생장을 돌보는 것은 소중한 경험이다. 작년 가을과 겨울, 지역 생협에서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배추를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수확하고 김장을 담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까지 함께했다. 그런 경험을 했던 아이들은 올해 가뭄과 장마의 고비를 넘기고 다시 배추씨를 뿌릴 날을 기다리며 기쁘게 밭을 가꾸러 간다. 얼마 전 감자를 수확하던 날, 아이들은 주렁주렁 달린 감자를 보며 환호를 했다. 4월 초 씨감자에 재를 묻혀 심은 후 솥에 주고, 볶을 돌아 주며 가꾸다가 드디어 감자를 캔 그날, 한 학생이 쓴 일지는 작은 농부의 마음을 보여 주는 듯하다.

감자 캐기 / 6학년 최지우

날짜 2012. 6. 20. 수

날씨 해가 짹짹, 오후에 비가 조금 옵니다

오늘 농사 시간에 밭에 가서 감자를 캐다. 먼저 호미로 감자 옆을 살살 긁어냈다. 흙을 파자 감자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감자들도 있었고 중간 크기의 감자, 큰 감자, 아~주 큰 감자도 있었다. 작은 감자들은 알뿌리 감자의 뿌리에 지난 6월, 종아리를 훑혀 남은 감자의 줄기와 잎을 거두어 내고 드디어 감자를 캐다. 말 기분이 좋았다. 감자를 캐고 그 주위도 파서 또 감자가 없는지 살펴보았다. 감자를 다 캐고 다른 애들이 판 곳도 다시 파 보니 감자가 3~4개 정도 더 나왔다. 오늘의 수확량은 상자로 한 상자 정도 되었다. 생각보다 수확량도 많고 감자도 커서 기쁘고 뿌듯했다. 물론 작은 것도 많았지만……. 감자를 다 캐고 조별로 자기 조의 밭을 돌보았다. 잡초도 뽑아 주고 물을 주었다. 방울 토마토가 많이 열렸는데 그중 딱 3개만 빨갛게 익었다. 그래서 한 개를 먹어 보았는데 그 어떤 토마토보다도 달고 맛있었다. 우리가 직접 수확한 것이라 그런가? 정말 기쁘다. 옥수수도 저번보다 2배 정도 컸고, 다른 작물들도 쑥쑥 크고 있다. 메주콩은 아직 잎도 나지 않았다. 언제쯤 싹이 틀까? 쑥쑥 커라!!!

광물학 시간에는 화산 지역과 석회암 지역의 특성과 그에 맞는 농산물을 배운다. 제주에서는 당근이 잘 자라고, 석회질이 많은 지역에는 회양목이 잘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듯 각 지역마다 그 땅의 특징에 따라 살아가는 식물들도 다르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천문학에서는 각각의 행성들의 주기를 배우고 5학년 식물학에서 관찰해 보았던 꽃잎의 수와 잎차례의 규칙들 속에서 밤 사이 별들의 운행이 식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배우게 될 것이다. 태양이 일 년 동안 남북회귀선 사이에서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이며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듯 '나'를 포함한 지

상의 작은 생명(소우주)들이 대우주와 서로 보이지 않는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농사는 어떤 의미일까

청소년기 농사 수업은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춘기 시기에 시작한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독립심이 증가하면서 자신에 대한 자각이 강해지며 스스로를 세울 지지대가 필요하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 안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들이다. 농사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많은 시기에 안정감을 주며 팔과 다리에 힘을 가져다준다. 농사 수업은 사람과 자연과의 관련성을 실습을 통해 몸으로 체득하여 살아 있는 지식이 되도록 해 준다. 청소년 시기 아이들은 사실적 활동(경험)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정원, 농장, 숲 등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직접 만들고, 어떻게 새로운 생활을 창조하는지를 경험하게 된다.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일지를 써 나가며 자연히 일하는 방법을 배우고 감성을 풍부하게 채운다. 협동 작업을 통해 책임에 대해서도 배운다. 교사는 자연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실질적인 매개자가 된다. 8학년 이후 상급(9학년 이상) 과정의 농사 수업과 2주간의 농장 실습에서는 농기구와 농기계를 다루는 기술을 익힌다. 이 과정에서 기술을 다루는 사람과 기술에 대한 신뢰를 쌓아 가게 된다. 6학년에서는 농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활동을 배우는 한편 자연의 순환도 공부한다. 잡초를 뽑아서 이를 다시 거름으로 만들어 밭으로 돌려주고, 음식물 퇴비장을 만든다. 작물의 집인 이랑과 고랑을 설계하는 등 실질적인 실습도 시작한다. 예를 들면 씨 받기, 종자 심기, 묘목 이식 등의 활동이다. 또한 땅을 돌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지식(무경운, 유기물을 이용한 멀칭, 고랑과 이랑의 순환 사용 등)을 쌓아 가는 때이기도 하다. 야채를 수확하면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준비하고 판매를 한다.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고, 판매까지 하는 활동이 '생산자'로서 삶의 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한 해 농사를 짓고 나온 벼짚이나 기타 풀 등을 엮어 실생활에 필요한 돗자리, 바구니 등을 만드는 활동도 한다. 또한 농사를 짓는 땅의 지질학적인 역사를 알아 나가며 땅과 지역의 특징에 따른 작물들의 성장 관계를 배운다. 8학년은 이전보다 좀 더 지속적이고 육체적인 힘을 요구하는 활동을 한다. 소 먹이 풀을 베고 건초를 만들고, 농기구나 기타 시설들을 수리하는 등의 숙련된 활동이다. 작물을 판매하는 단계를 넘어 농산품들을 가공하여 오랜 시간 동안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양배추 절임, 오이 피클/젼/허브/소금/산야초 만들기, 과일 장기 보존법 등)을 배우고 실습한다. 2~3년간의 농사 수업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계절에 따른 수확 계획을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도 8학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다. 또한 집 안에서 기를 수 있는 화초와 그 성장 환경을 알아보는 시기이기도 하다.

9, 10학년(중3, 고1)은 농장을 찾아가서 농부들과 함께 생활하며 2~3주간의 실습을 한다. 작물을 가꾸는 땅과 그 지역의 환경적 특징(산과 강, 토양의 조건, 기 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계기가 되는데, 이런 공부는 10학년의 산림학에서 최고조를 이룬다. 도시 공원의 역할과 이러한 도시 공원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일, 그리고 산림자원의 보존과 관련하여 산림청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함께 배운다. 시시각각으로 자연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간의 무감각과 무임은 확대되고 있는 이 시대에 청소년들이 농사를 배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동물, 식물, 토양, 날씨, 태양 등 자연물 사이의 상호작용을 배우고 계절의 규칙을 함께 호흡해 나가며 정원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과 경험은 청소년 시기를 조화로운 영혼의 경험으로 이끌 것이다. 자연과 함께 하는 조화로운 경험이 농사 수업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모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자연과 사람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책임 있는 의식과 행위를 자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8월 연구 모임 (8.10~12)

장마철 그리고 장마철 이후 발관리

풀은 (뿌리째 뽑기 보다는) 낫으로 베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번째는 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이다. 땅에 넘쳐 흐르는 빗물은 엄청나게 많은 흙을 쓸어간다. 그것도 우리 애써 가꾼 '표토'를 쓸어 버린다. 한 해 비에 의한 유실량이 2900만톤에 달하고, ha당 41톤에 달한다고 한다 (2012, 농진청 자료) 그래서 이랑 줄기를 베어주고 (주로 벼과 특히 바랭이들이 지금 밭에 많기 때문에 베어주어도 다시 자란다. 벼과 작물은 생장점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뿌리를 남겨 준다. 뿌리가 땅을 단단히 붙들어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좋은 퇴비 또는 멀칭 재료를 수확해 주기 위해서이다. 풀은 좋은 멀칭 재료이자 퇴비재료이다. 탄소질, 질소질, 미량요소도 이상적으로 잘 배합되어 있다. 낫을 베기 좋을 만큼 키웠다가 낫을 베우 모아준다. 멀칭을 하기도 하고 퇴비더비로 만들어 퇴비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그런데 단 하나, 풀 베어 주기에는 강력한 주의사항이 있다. 엄청 부지런해야 한다. 까닥하다가는 발이 제대로 풀밭이 된다. 이 시기가 학교에서는 학생들과의 방학과 겹치기 때문에 이 시기 발 관리, 무엇보다 발 관리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부지런히 또 부지런히

풀을 부지런히 관리하며 또 다른 한편 고추, 가지, 오이 등을 부지런히 수확해 주어야 한다. 덥고 습한 기후에 병충해가 오지 않도록(예방), 왔다면 적절한 조치(치료, 치유)를 해주어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가올 가을 농사를 준비해 한다. 김장채소와 상추, 양배추 등을 모종 내고, 밭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히 해야 할 8월이지만 무더위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바쁠 때 대개의 학교는 방학을 한다. 하지만, 농사를 학사일정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도학교에서는 어렵겠지만,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유연한 대안교육 현장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 보자.

사 례 나누기

실상사 작은학교 소개와 농사 현황

저희 학교는 불교계 대안학교로서 지리산 자락 남원시 산내면에 위치하고 있다. 산내면에는 실상사 도법스님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운동이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스님들이 계시는 절과 절의 농장을 운영하는 농장 팀과 영농조합, 마을 공동체 운동을 펼치는 한생명, 지리산 생명연대, 여성농업인 센터, 마을 방과 후 학교, 어린이집 등 사부대중 공동체와 마을 귀농자 300여명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이다. 지리산 산골이다 보니 농지가 넓지를 못해 귀농자들은 농사로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보다는 다른 업을 하며 살아간다. 일종의 귀촌지역이라고 해야겠다.

실상사 작은학교는 11년째이고 학생 수는 50여명 중학 3년 과정과 언니네 고등과정 2년제이다. 교사 수는 13명이다. 학교의 농사수업은 전 학년 필수수업이고 학년별 주당 90분씩이고 언니네는 시간에 개의치 않고 주당 오후에 두 번의 수업이 있다. 그리고 전 학년 교사가 수요일 오후에 자치살림을 한다. 주로 학교농사, 살림살이(효소 굽감, 마늘 까기, 잼만들기 등), 시설일들, 퐁퐁기, 농장올력이다. 농장올력이란 사부대중 공동체 식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텃밭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 텃밭의 규모는 1500여 평인데 일상적으로는 농장 팀에서 관리를 하고 수요일 오후마다 스님들과 사부대중 활동가들 작은학교 학생들이 모여 일을 한다.

작은학교의 농사규모는 현재 논 300여 평, 밭 900여 평 된다. 이중 밭 750여 평은 작은 학교 주변에 있고 학생들 개인 텃밭과 잡곡밭 나무밭 비닐하우스 한 동이다. 논과 밭 150여 평은 실상사 주변에 있고 유기농으로 농사한지 10년 이상 된 땅으로 언니네 학생들이 농사를 짓는다. 참고로 언니네 학생들은 실상사 주변에 있는 학사에 있고 중학과정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다. 학생들 개인텃밭은 약 200여 평 되고 나머지 700여 평은 학교 공동농사로 지어진다. 논은 현재까지는 학교농사로서 일상적 관리는 제가 하고 모내기과 김매기 추수는 공동으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언니네 학생들이 공동 작업으로 관리를 하려고 한다.

농사 4년 돌아보기

첫해 2008년 - 풀무전공부를 2008년에 졸업하면서 이곳 실상사 작은학교 농사 쌤으로 왔다. 첫해 2008년에는 논 300여 평 학교 밭으로 200평, 마을 밭을 500여 평 빌렸다. 첫해다보니 포부가 커서 토종잡곡농사를 많이 지었다. 토종종자는 고추, 조, 들깨, 옥수수, 호박, 콩, 수수, 케일, 쑥갓, 오이, 감자로 10여 가지 이상을 하였다. 마을 밭 500여 평에 잡곡농사를 지었는데 팝콘 옥수수와 조 수수 등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랐지만 콩등은 수확이 적었다. 잡곡농사의 가장 큰 애로점은 정미소에서 정미를 해주지 않는 점과 알곡을 정선하는 작업이었다.

첫해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농사를 하는 것으로 시키는 일만 하였다. 근데 일 년 동안 학생들과 농사를 짓는 것에 힘겨움을 느끼고 3학년 농사수업 평가때 한 학생이 작은학교에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자기보고 내년에 혼자서 텃밭을 가꾸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즉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 전체 일머리를 갖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쌤이 시키는 일만 하

는 형식을 고민하게 됐다. 내가 학생이라도 날씨는 덥고 밥 먹고 나른한 상태에서 이 농사가 내 것도 아닌데, 그것도 전체적인 일의 흐름은 모른 채 시키는 일만 한다는 것은 무지 재미없고 마음내기가 힘들 것 같다.

2008년 평가서에 쓴 제안글 - '결국에는 농사의 전체흐름을 읽게 하는 눈과 그 흐름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자발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초점이다. 농사수업시간에는 본인 스스로들이 디자인하고 계획한 안을 토대로 조그마한 개인 밭농사를 제안했다. 자기 텃밭을 가진다는 것은 농사의 흐름을 스스로 고민하고 디자인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사수업 시간 1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관심과 보살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해 밭에서 나온 농산물은 본인 스스로 들 것으로 하고, 이 농산물을 작은 가정과 학교식당에 판매하는 걸 고민했다. 아이들이 자그마한 손과 정성으로 키운 상추와 당근 채소류들을 스스로 갈무리하고 식당에 판매해 점심시간에 다른 아이들이 맛나게 그것을 먹는 모습을 봤을 때 그 학생이 느끼는 만족감과 뿌듯함은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둘째해 2009년 - 둘째해부터 논의 모 기르기 방식을 풀무전공부때 배웠던 포트묘 방식으로 바꾸었다. 포트묘의 특징은 모 활착이 빠르고 자라는 형태가 야생피와 유사한 형태로 자라는 등 생육상태가 좋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해에는 우렁이를 풀어놓아 김매기 작업을 한 번도 안했는데 우렁이를 풀지 않고 학생들이 직접 논 김매기를 하였다. 이렇게 논 300여 평은 규모가 학교 학생들이 흠뻑 일을 하기에는 규모가 작았다. 우리학교 농사시간과 규모로는 1500여 평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전 가을에 주문한 표고목 200주를 접종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해 200주와 다음해 100주를 작업을 하여 현재는 표고버섯을 학교 자급하기에 충분하게 수확을 하고 있다. 표고목은 소나무 밭에 두고 있는데 내년에 100주등 꾸준히 작업을 더 하여 남은 표고버섯은 팔아서 학교 장학금으로 충당하려고 한다. 표고목은 마을 분에게 주문해 가져오고 학생들이 직접 나르고 샘들이 기구로 구멍을 뚫고 여학생들이 균을 접종을 하는데 학생들은 이 일을 힘들어 하면서도 재미와 성취감을 느끼면서 즐거워한다. 이 해부터 학생들은 개인텃밭을 시작했다. 작년에는 물먹기 싫어하는 소 끌고가듯이 힘겹게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이 해부터는 학생들이 자신의 텃밭이다 보니 매우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한다. 수업이 시작하면 각자 자신의 할 일을 미리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는데 매우 많은 질문들이 쏟아진다.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수업시간이 다 지나간다. 이렇게 질문에 답하고 직접 시범을 보일 때 학생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른 학습과 배움이 생기는 것 같다. 5월 넘어 가면서 학생들 작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참고로 처음에 이야기 했던 사부대중 공동 텃밭이 있고 그곳에서 키우는 작물이 비숙하다보니 학생작물과 겹칠 때는 공양 간에서 매우 힘들어 하였다. 이를 테면 이 해에는 학생들이 상추는 12명, 열무는 8명 양상추는 5명이 심었다. 그러니 나오는 상추와 열무의 양이 엄청났다. 저도 채소류들을 처음 하다 보니 이런 시행착오들이 생기는 것 같다. 현재는 작물의 양 조절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긴 것 같다.

셋째해 2010년 - 이 해부터 농사와 자치살림을 단오 이후에는 오전으로 옮겨 진행을 했다. 그 전해 2009년에는 학교 일과 조정을 하지 않고 농사수업만 아침 일찍 진행하였는데 학생들이 일찍 일어나다보니 수업 시간에 조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그래서 오전에 농사수업등을 하고 지식교과 수업

은 점심시간 이후에 진행을 하였다. 물론 지식교과 수업을 점심먹고 진행하다보니 힘든 점은 있다. 하지만 농사등 야외에서 진행되는 수업은 단오이후에는 수업이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학생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을 다른 교사들이 이해해주면서 가능했다. 이는 수요일 자치살림때 전교사들이 함께 일하면서 더운 오후에 일함이 무척이나 힘들을 그리고 학생들이 무척이나 힘들어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더 쉽게 이해된 것 같다. 이해부터 논 규모를 500여 평으로 늘렸고 언니네 고등과정도 처음 생기면서 언니네 텃밭과 농사수업이 진행되었다. 모기르기 작업등은 언니네 식구들과 같이 하였다. 하지만 언니네 학생들은 해외공동체 탐방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므로 전 농사과정에 참여를 하지는 못했다. 주로 봄농사와 논 모기르기 등 모내기 작업까지 하고 해외 갔다 와서 추수와 마늘양파 겨울작물 등을 심었다. 그리고 첫해부터 학교 주변과 척박한 공간에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심은 나무의 종류와 개수는 이렇다. 총 감나무 25그루, 매화 16그루, 호두 20그루, 뽕나무 32그루, 블루베리 10그루 등이다. 이해 1학기 학생 텃밭 수확 결산 금액은 이렇다.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중등부 274,900원 고등부 276,000원 총 550,900원이다. 풀무학교 시절에 논생물 조사라는 것을 하면서 논을 보면 바라보는 일차원의 모습이 아닌 그 속에 살아가는 많은 생명이 있음을 알면서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더 가슴 깊이 알게 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논생물 조사 작업을 시작하였다. 혼자 하기가 두려워서 마을에 사시는 이선진님의 지도로 하였는데 이분은 산림청 소속 계약직 샘이신데 생물전공을 하셔서 부탁을 하였다. 논에서 보면 바라보다가 다양한 생물들을 접하고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 해 논생물 작업을 하다가 깨끗한 물에만 서식한다는 풍년새우를 발견하였다. 학생도 저도 모두 신기한 순간이었다. 와 이런 귀한 생명이 논에 사는구나, 그럼 논을 더 생명답게 가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전에는 봄에 농사계획을 세우다 보니 3월에 개학을 하고 농사계획을 2주정도 공부하다 보면 감자와 완두콩등 봄작업이 늦어져서 이 해 가을부터 농사계획을 미리 짜기 시작했다. 매해 배추를 심었는데 가을방학이 8월말에 끝나고 9월에 학생들이 오고 그러다보면 배추 정식 시기도 늦어지고 또 9월에 보통 세상보기 시간이 있다 보니 이주정도 학교를 비우게 되어서 배추 관리도 잘되지 못했다. 그래서 배추 학교 필요량의 반 이상은 외부에서 사다먹는다. 이해 가을부터 1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다. 농사와 담임을 함께 하게 되면서 일상적인 농장 관리가 힘들었다. 이렇게 담임을 일 년 반 동안 했고 이듬해 농사규모를 많이 줄이게 됐다.

넷째해 2011년 - 담임을 맡으면서 논농사를 다시 300평으로 줄이고 잡곡농사를 하지 않았다. 그동안 모종은 비닐하우스에서 키워서 옮겨 심었다. 이해 모종 평가는 이렇다. '모종 - 배추 열갈이는 씨앗이 문제인지 키우다 일찍이 꽃이 폈다. 브로콜리 양배추가 많이 모자랐다. 모종개수 (양상추 200개, 브로콜리 200, 콜리플라워 50, 배추 100, 열갈이 100 양배추 50, 바질 200, 적근대 56, 쌈개일 200, 완두콩 400) 바질은 안 올라왔고, 적근대도 많이 안 올라왔다. 완두콩은 물을 고르게 주지 못해서 싹이 불균형했다. 다음해에는 물을 조리개로 고르게 주어야겠다. 그리고 브로콜리와 양배추 양상추 모종개수는 더 늘려야겠다.' 첫해에는 가지과와 박과 작물도 모종을 내었으나 모종내는 시기가 너무 늦고(2월 말) 하우스가 보온력이 약하다 보니 모종의 생육이 너무 늦어서 2010년부터는 가지과 작물은 모종을 내지 않았다. 그리고 학생들이 여름방학으로 인해 가지과 작물은 심지 않고 봄작물류들만 심었다. 가지과 작물은 학교 비닐하우스에만 심었다. 이해부터 대파모종을 내기 시작하

여 가을부터는 대파는 학교에서 기르는 것으로 자급이 되었다. 작은학교 화장실은 생태뒷간이다. 오줌은 따로 모아 통해서 갈무리를 하고 똥은 밭에 프락스틱 통에 떨어지고 똥을 놓고 낙엽이나 톱밥을 뿌려준다. 이렇게 3주정도 똥이 모이면 자치살림 시간에 학생 6명 정도가 이 똥통을 갈무리 할 곳으로 옮기고 낙엽과 버무려 준다. 이렇게 똥과 낙엽으로 발효된 퇴비 더미에 매학기 말에 쌀겨를 사다가 한 덩어리로 버무려 큰 더미를 만들어 숙성시켜 반년 후에 학생들 텃밭에 퇴비로 쓴다. 우리 학교 자가 퇴비로 200여 평 밭농사를 충당한다. 나머지 텃밭에는 유기왕 퇴비라는 친환경자재인 유박퇴비를 사용한다. 그동안에는 퇴비장이 따로 없이 빈 공간에서 작업을 하였는데 대안학교 지원사업으로 내년 봄에 퇴비장을 짓는다. 그동안 모아놓은 오줌은 실상사 농장에서 가져다 사용을 하는데 이해 가을부터 배추밭에 오줌 웃거름을 주기 시작했다. 차에 오줌 담을 물통을 싣고 펌프로 오줌을 옮기고 물로 휘석 한 후 배추밭에 주기를 한주에 두 번씩 하였는데 예년에 비해 배추가 많이 충실하게 찼다. 2008년부터 자치살림때 곳감 만들기 작업을 하였다. 매년 작업량을 늘리다가 올해는 30박스를 작업을 하였다. 곳감 작업을 하면 일이 보통 늦게 끝나기 마련인데 학생들은 큰 불만 없이 서로 수다를 떨면서 곳감잡기를 한다. 이렇게 어떤 일들은 힘이 들에도 성취감과 재미를 느낀다면 받아들여기가 수월한 것 같다.

앞으로의 농사 계획

자연농업

학생들 밭이 유기농으로 농사지는 지 4년째가 된다. 그동안에 기계를 쓰지 않고 양질의 퇴비를 주어서 흙이 많이 살아났다. 올해 읽은 책도 있고(생규 아메바!) 자연농업 강좌도 들어서 자연농업으로 내년부터 농사를 지을 계획이다. 평소라면 퇴비를 밭에 뿌리고 삽으로 갈아엎은 후 평탄화 하는 것으로 발준비를 한다면, 이번에는 밭에 퇴비를 뿌리고 그 위에 미생물이 풍부한 산 부엽토를 부어주고 낙엽이나 짚으로 멀칭을 한다. 그리고 그 위에 모종과 씨앗을 뿌린다. 그리고 두주에 한번 부엽토 활성액비를 밭에 부려준다. 이 농법은 밭을 인위적으로 갈아엎지 않아 땅의 떼알구조와 미생물이 살아있다. 그리고 부엽토를 뿌려주고 미생물 액을 부려줌으로 풍부한 미생물들이 밭에 살아있다. 그리고 수시로 유기물 멀칭을 함으로써 미생물의 먹이를 공급하고 풀이 올라오는 것도 억제한다. 초기에 풀이 올라오면 작물과 경쟁을 시키다가 작물보다 웃자라기 전에 베어서 밭에 깔아준다. 학생들은 대개 여름작물이 아닌 봄가을작물을 심기에 풀과의 경쟁이 덜한 편이다.

잡곡농사

다시 내년부터 담임을 그만두면서 농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다시 잡곡농사를 시작하려고 한다. 언니네 교과과정도 변화된다. 해외 탐방을 늦가을로 옮기면서 농사에 집중할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변한다. 언니네는 콩과 들깨 수수 같은 잡곡들을 심는다. 언니네 텃밭은 땅이 많아 살아가기에 들깨나 수수를 해도 잘 자랄 것 같다. 이렇게 언니네 텃밭에는 들깨 수수 콩을 심고 자기 작은 가정에서 먹을 걸로 조금만 채소류를 뿌리자. 그리고 밀밭 옆밭과 교무실 텃밭 나무밭에 콩과 수수를 뿌리자. 콩과 수수를 섞어서 심어 수확한다. 그리고 언니네 학생들은 공동 작업으로 학생들이 직접 일머리를 잡고 농농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나락 침중부터 소독 모판내기 등 모든 작업을 학생

들 주도적으로 해본다. 이렇게 텃밭 잡곡농사와 논농사의 일머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잡고 진행하면서 전체 일머리가 생기고 작업의 고됨과 수확의 기쁨을 느꼈으면 한다.

닭기르기

2009년에 식당 생이 주도적으로 닭을 기르기도 했다. 그해 학생들이 닭장에서 알도 꺼내보고 학생들의 기대와 관심이 컸던 것 같다. 하지만 닭장 주변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서 물의 오염이 심각하고 학교 기숙사 등 공간 계획이 확정이 안 되어 연기가 되었다. 이제 학교 공간계획이 나왔으므로 내년엔 닭장을 짓고 닭을 기르려고 한다. 우리 학교 음식물 잔반과 주변에서 사오는 쌀겨 등으로 길울 수 있는 소규모로 하려고 한다.

퇴비장 만들기

봄에 사업비 200만원으로 학부모님과 함께 통나무 골조로 7평정도 퇴비장을 짓는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생태화장실에서 나오는 똥을 갈무리 하여 숙성 발효시켜 학생들 텃밭에 직접 퇴비를 파다가 작물을 기를이 우리 학교 농사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순환하는 농사를 직접 똥을 갈무리 하면서 퇴비를 만들면서 그 퇴비로 작물을 길으면서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게 된다. 여기에 안정적인 공간이 생김으로 퇴비 만들기 공부를 시작하려고 한다. 직접 고두밥을 지어서 숲에 가져다 미생물 밥을 만들어 보고 이를 활성화 시켜서 퇴비 만들기 작업을 한다. 또한 이렇게 발효된 퇴비 더미에 손을 넣어보아 온도를 느끼며 왜 이 더미가 뜨거운지 물어도 보고 질문도 해보자. 생물 생이 진행되는 농사와 생물이란 시간을 통해 이 퇴비 더미에 사는 미생물을 배양하여 직접 관찰하는 시간도 가져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왜 유기물이 풍부한 흙과 그렇지 못한 흙의 촉감의 차이를 느끼고 이 두 흙 성분의 차이와 미생물 활성도를 생물 수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발생물 조사

작년에는 논생물조사도 하지 못했지만 어설프나마 논생물 조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또한 발생물 조사도 해보고 싶다. 풀무학교 논문 주제가 녹비작물을 활용한 무경운 농법이었는데 그때 녹비작물 밭과 옆 동기형의 유기농 밭의 서식하는 지렁이 개체수 조사 발생물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지렁이 등 생물 개체수 조사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 어설프나마 매뉴얼을 짜서 학생들이 자기 텃밭과 관행논 텃밭의 생물조사를 직접 진행해 보고자 한다.

농사 교재 만들기

현재까지 비가 오거나 농사작업이 없을 때는 좋은 영상물 시청을 하거나 귀농운동본부에서 나온 유기농 텃밭 만들기란 책을 이용해 공부를 하였다. 이 교재에는 생명의 순환원리와 유기물의 필요성에 대해 잘 설명이 되어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제가 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준이 안 되어서(농사수업은 항상 점심먹고 오후에 있다.) 학생들이 돌아가며 한 단락씩 읽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하거나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 이때 방법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설명을 잘하는 친구에게는 호박엿을 하나씩 준다. 그리고 농한기인 9월이나 11월에는 일부러 일을 만들어서 공부를 한다. 이를테면 실상사 연 밭에 있는 연잎차만들기 작업, 비닐하우스 토마토를 활

용한 피자 만들기, 포도잼 사과잼 귤잼등 만들기, 비누만들기, 화장품 만들기 등을 했다. 그리고 동네분이 가꾸는 밤 밭이 있어서 밤따기 작업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 학생들은 무척이나 즐거워하면서 작업을 하고 만족도 또한 높은 것 같다. 내년에는 콩농사를 지으니 학교 매주 만들기를 해볼까 한다.

작업장 만들기

내년부터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치살림 시간 연장과 작업장 수업 신설이다. 현재 자치살림은 1시간 30분정도 진행이 된다. 근데 이 시간이 앞에 준비시간과 마무리 시간을 빼면 한 시간여로 일에 몰입하기에 짧은다는 평가가 있어서 총 3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학교농사 규모도 더 늘릴 계획이다. 현재 300평 논에서 최소 800평에서 1500여 평정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작업장이 신설된다. 현 시간표상에서 수요일 공동 자치살림 빼고는 나머지 요일 오후에는 농사수업과 몸과 감성 수업이 진행된다. 그 중 학교 철학(생태 자립 공동체)을 몸으로 실천하는 다양한 작업장들 수업을 실험적으로 하루 오후에 배치된다. 시간은 주 한번 3시간 정도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작업장은 제빵작업장(동아리로 3년 동안 운영되었다.) 비누만들기, 효소와 산살림, 집짓기, 시설(전기 등), 천다루기, 학교 매점운영 등이다.

농업교과 교과 과정의 현행과 제안

1. 교과의 존재 이유

(1) 농업교과

학교 철학 생태 자립 공동체의 사상을 실현하는 교과이다. 학생들은 농업교과를 통해 생명은 순환한다는 생태 철학을 배운다. 또한 몸을 움직여 자신의 먹을거리를 기를 수 있는 몸과 마음 지성을 체득하며, 나아가 농사일이라는 것이 혼자만의 작업이 아닌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가까이는 이웃들과 함께해야 가능함을 알게 더불어 살아감이 농적 삶의 기본임을 알게 된다. 또한 자신의 땀으로 생명이 싹을 틔울 때 느끼는 생태적 감수성을 배울 수 있다.

노작만이 아닌 농업교과를 매개로 토양, 생물 등 생물수업과 자신이 기른 먹을거리를 갈무리하고 가공 또는 요리를 하는 살림 수업 등 다양한 교과 영역들을 함께 배워갈 수 있다.

(2) 자치살림

자치살림은 한주 한번 모든 식구들이 함께 농사 시설 등 학교가 움직여 가는데 필요한 모든 살림살이들을 직접 해나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은 단순한 교육 수요자만이 아닌, 교사는 자신의 교과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학교의 주인임을 알아간다. 일 년 살림살이를 통해 한해 자연의 흐름을 몸으로 체득하고, 더불어 살아감의 공동체 철학을 배운다.

2. 현행 교육방법

(1) 중등과정

중등 교육시수는 일주일에 한 학년 당 80분씩 진행한다. 자신이 스스로 텃밭 계획을 세우고 디자인한 후 밭을 분양받고 거름을 뿌리고 밭을 만들고, 채소들을 가꾸어 공양 간에 공급한다. 학기 중에 비가오거나 야외활동이 불가능 할 때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유기농 텃밭' 교재를 가지고 밭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등을 공부한다.

(2) 고등과정

고등과정 시수는 일주일에 두 번 120분씩이다. 1,2기들은 여름 해외연수로 봄에는 개인 텃밭을 가꾸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다. 이번 3기때부터는 여름연수가 겨울로 이동하며 한해 농사중 기본인 나락농사를 처음부터 수확과 가공 요리까지 한다. 매주콩 농사를 지어 수확하여 직접 메주를 만들고 해외연수에서 돌아와 장담그기를 한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해 공부한 후 봄에는 감자 가을에는 고구마 작목반을 만들어 생산 가공 판매를 함께 해나간다. 봄에는 개인텃밭을 하고 가을에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채소를 가꾸어 산내들 매장에서 판매한다.

3. 교육과정에 대한 제안

(1) 중등과정

제안 배경 : 1,2학년 때는 텃밭을 가꾸는 것에 흥미와 호기심 성취감 등을 많이 느끼며 수업이 풍요롭게 진행이 되는 데 3학년 때는 똑같은 스타일의 수업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식상함을 느끼는지 수업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학생들이 살아갈 곳은 도시이고 그러하기에 도시에서 가능한 텃밭 방식을 배워야 한다.

제안 - 2학년 때는 개인텃밭과 병행하여 프로젝트 수업으로 팀별 김치거리 채소를 가꾸고 수확하여 직접 김치를 담근다.

3학년 때는 현행의 야외 텃밭 가꾸기 대신 베란다 채소 가꾸기를 한다. 또한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새싹채소를 기른다.

(2) 고등과정

협동조합 방식의 농사를 확대한다. 우선 현행의 감자 고구마 작목반은 그대로 하고 나아가 꾸러미 채소 가꾸기를 한다. 학생들을 기본 세팀정도로 나누고 꾸러미 신청자를 모집하고 한 가정에 필요한 채소거리들을 고민하고 텃밭 계획을 세운 후에 농사를 지어 꾸러미 채소를 공급한다.

4. 교육과정의 정리

학년	현행	제안	목적
1학년	개인 텃밭 가꾸기	유지	밭을 만들고 채소를 기를 수 있다.
2학년	개인 텃밭	개인텃밭, 김치 만들기 프로젝트	농사를 짓는 자신감과 가꾼 채소를 요리할 수 있다.
3학년	개인 텃밭	베란다 채소, 새싹 채소 가꾸기	도시에서도 채소를 기를 수 있다.
언니네	개인텃밭, 협동조합 작목반, 메주 만들기, 일 년 나락농사와 가공	협동조합 확대	협동조합을 이해 운영할 수 있다. 한 가정의 먹을 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

5. 수업 결과에 대한 공유

(1) 중등과정

농사일지를 충실히 작성하여 교과발표회때 전시한다.

(2) 고등과정

매 수업 마다 사진을 촬영하는 친구를 정하고 그날 하루 이 친구는 일하는 모습과 작물의 상황을 찍고 농사일지를 정리한 것을 워딩하여 학교 게시판에 올리고 꾸러미 가정들에게 소식을 보낸다. 최종적으로 교과발표회때 ppt로 발표한다.

(3) 자치살림

기자를 선정하여 이 친구는 자치살림때 사진을 찍고 취재를 하고 정리하여 재미있는 학교 이야기에 글을 올린다.

9월 연구 모임

9월 농사력

8월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시기였다면, 9월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때이다.. 더운 때가 물러가고 선선한 때가 다가오니 서늘한 기후에 잘 자라는 작물을 심어 가꾸어야 한다. 거듭 우리가 공부 하지만, 농사력은 별다른게 아니라, 결국 '계절과 기후'에 따라 그리고 '계절과 기후에 따른 작물의 자람'에 따라 농사 짓는 이가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할 일을 말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력을 이해하고, 농사력에 따라 농사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계절의 변화 (더 정확히는 순환)를 몸으로 익힐 수 있는 좋은 공부가 된다. 계절의 변화 (또는 순환)를 몸으로 익히는 공부는 자연에 대한 감수성과 관계를 회복하는데 있어 중요한 공부이다. '철'이 없이 살아가는 지금, 더더욱 자연의 리듬과 변화를 몸에 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번째 봄

두번째 봄이 왔으니 (사계가 순환하는 우리 기후에서는 봄의 기후 또는 기회가 두번 온다.) 봄에 심었던 상추 등의 쌈채류,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감자 등등도 심어 가꾸어 먹을 수 있다. 다만 첫번째 봄은 추웠던 기후가 따뜻해지는 변화라면 두번째 봄은 더웠던 기후가 서늘해 지는 변화라는 차이가 있으니 작물을 기를 때 그런 차이를 유의해야 한다.

가을 농사

겨울을 나는 밀과 보리도 가을에(정확히는 10월) 심어 가꾼다. 양파와 마늘도 가을에 심어(양파는 씨를 뿌리고 모종을 내고 마늘은 씨마늘을 심는다.) 겨울을 보내고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될 무렵 거둔다. 무엇보다 가을 농사에는 김장농사를 빠뜨릴 수 없다.

김장 농사, 먹거리와 문화

우리 문화권에서는 채소를 먹기 곤란한 겨울 내내 (겨울에 석유로 기른 신선 채소가 마트에 즐비한 지금은 시절이 달라졌지만) 채소를 절여 먹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가을 농사는 김장에 주재료인 배추, 무, 갓, 쪽파 등등을 심어 가꾸는 김장 농사를 빼놓고는 이야기 할 수 없다. 김장 농사를 지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권에서는 채소를 절여 먹는 문화를 왜 가지게 되었는지, 지역마다 채소를 절여 먹는 방식이 다양한 까닭 등등'을 이야기 나누며 먹거리와 우리 문화에 대해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먹거리는 삶의 방식 혹은 문화적 정체성과도 관계를 가진다. 지금은 패스트 푸드 혹은 정크 푸드 化(化) 되었지만, 햄버거나 피자도 사실은 본래 그 나라 문화권에서는 지역 문화의 독특한 산물이다. 또 다른 한편 지금 유행하고 있는 또는 보편화 되고 있는 먹거리 문화를 통해 우리 삶의 방식도 되돌아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이유로 우리 주변에 패스트 푸드 또는 정크 푸드가 가깝게 자리하게 되었는지, 그 문화가 어디서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먹거리와 생명, 생태 이야기

먹거리는 그 자체가 생명이고 생태이다. 정확히는 (생명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생명과 생명들간의 유기적 관계이고 그물망이다. 더 장황히 이야기하면 그 자체가 '우주'이다. 여기서 '우주'는 관념이 아닌 구체적 사실이고 현상이다. 우리가 키울 배추는 가을 빛과 가을 기운을 먹고 자란다. 대기 중에 공기를 호흡하고, 땅 속에 담긴 물(이 물도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에 담긴 것, 하늘에 내린 비는 공기와 땅에 있던 수분이 순환 된 것)을 먹고, 흙 속에 있는 온갖 영양분을 몸으로 끌어 올려(이 영양분은 흙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생명활동을 하면서 배추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 그 이전에 오랜 지구 역사 속에 만들어지고 남겨진 것들, 그 더 이전에 우주로 부터 온 것들) 자란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먹거리 문화(김치, 채소절임)에 따라 '음식'으로 바꾸어 먹고, 그리고 그것으로 몸을 이루고, 몸과 정신을 움직이 에너지로 삼아 우리 역시도 살아간다. 내가 자연과 우주, 다른 생명과 구체적 관계(은덕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농사라는 활동을 통해, 생명 속에서 생명을 기르고 가꾸며 그리고 그 생명을 먹으며 직접적으로 몸으로 경험하는 일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후쿠시마 이후를 고민한다면,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준비하고 시도한다면 생명과 생태(생명과 생명들간의 관계망, 그물망)를 배우며 '생명과 생태(=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문화, 문명)을 '체득, 체화, 체현'해 나갈 수 있는 공부야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공부에 있어 농사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다른 한편) 꼭 생명과 생태에 대한 공부가 아니더라도,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필수로 익히고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농사'라고 생각한다. (글로벌 시대를 위해 영어 학습에 들어가는 에너지의 반에 반만이라도.) 국어와 수학, 과학, 외국어를 당연히 배우듯, 농사도 삶을 위해 당연히 익히고 배워야 할 무엇이 아닌가 한다. 석유로 유지되고 있는 산업 농(農)이 아직은 유효하지만, 지속가능할 수 없고, 우리의 먹거리(식량 주권)를 다른 나라와의 시장 무역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지금 현실도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야생(野生)이 아닌 문명(文明)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상,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농(農)이 아닐까. '교육 농(農)'은 '사람'과 농

(農)을 다시 잇고, 농(農)을 산업의 눈과 시장의 눈이 아닌 교육의 눈, 인문과 생태, 전인과 통전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 농(農)을 삶의 방식으로, 삶의 문화로. 삶을 위해 향유하는, 예술적 영감을 얻고, 감성과 영성의 원천으로 삼는 그런 것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관심, 노력.

사 레 나누기

삶을 바꿀 작은 혁명을 아이들과 시작하다

도시 학교에서 농사를? 어설퍼도 괜찮을 우리의 이야기

김상일 서울 천왕초 31kim@hanmail.net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나는 농사나 농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다. 내게 농 촌의 기억이란 어릴 때 외갓집에 갔다 벽을 까맣게 덮고 있던 수많은 벌레들을 보고 그야말로 경악했던 일 그 정도다. 무언가를 기르고 돌보는 재주도 떨어져서 내 손에 들어온 식물들은 죄다 흙으로 되돌아가는 운명을 맞아야 했다. 그런 내가 올 해 1년 동안 농사를 배우고, 아이들과 함께 농사를 지어 보기가 지 했다(정확히는 농사 흉내를 내 보았다). 사실 예전부터 가르치는 일이 나한테 맞는 걸까라는 고민이 들 때면 왠지 나한 데는 농사가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러다 농사에 대해 막연하게 갖고 있던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하게 된 것은 섬진강에 놀러 갔을 때이다. 섬진 강을 보면서 처음으로 도시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모를 그때가 오면 농사를 지으러 떠날 수 있도록 농사 기술을 익혀야겠다 싶었다. 그때부터 귀농학교와 도시농부학교 등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는데, 마침 교육농(農)연구소와 교육공동체 벗이 기획한 '교사 농사 아카데미(현재 정식 명칭은 농사학림)'를 알게 되었다.

- . 1년간 함께 논, 밭 농사를 함께 지으려고 합니다.
 - . 함께 농사를 짓는 과정 속에서 우정을 나누고, 1년간 한 작기의 농사를 지으며 농 사를 몸으로 이해하고, 꾸준히 농촌을 방문하여 농촌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 학생들과 학교를 경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농사 방법과 요령'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 맨 처음 올라온 제안문에서 내가 중요하게 읽은 부분은 여기까지였다. 이 제안 문을 보고서 이왕

농사를 배울 거 여기서 배우면 되겠다는 편한 생각을 갖고 참여 를 신청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육과 농사보다도 그냥 농사를 배우고 싶은 마음 이 컸던 것 같다.

농사에 대한 관심이 교실로 옮겨 오기까지

그러나 앞선 제안문의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다. ‘무엇보다도 함께 어울려 농사지으며 학교 현장에서 가능한 농교육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모색해 보았으면 합니다.’

돌이켜 보면 나는 농사를 배울 생각만 했지 농사를 ‘아이들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농사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지만 학교에서 농 사를 배운다고 하면 실과나 과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 정도밖에 못 떠올렸다. 그렇 지만 1년간 매달 한 번 흥성이라는 낯선 땅을 오 가면서 어떻게 아이들과 농사를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나의 고민도 조금씩 커져 갔다. 농사학림에 참여하면서 농사란 게 쉽지 않다는 건 확실하게 알았다. 농사를 그 저 몸만 쓰는 일로 생각했으니, 얼마나 농사에 무지했던 것인가. 농사를 짓기 위 해서는 작물에 대해 알아야 하고, 땅에 대해 알아야 하고, 계절에 대해 알아야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식이 단순히 교과서로 작물을 공부하고 잠시 화분에 식물 을 키워 보는 것으로 얻어지진 않을 것이다. 자기가 먹을 것들을 직접 땅을 일구고 심고 보살피고 가꾸고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몸으로 익혀야 하는 것이다. 그 래서 한 학년, 단 1년이라도 제대로 농사를 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 다. 때마침 농사학림에서도 농(農)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고, 이를 직접 실천해 본 뒤 나누자는 제안을 했고, 나 역시 농사학림에 서 배운 것들을 우리 반 아이들과 나눠 보고 싶었다. 일단 학교로 돌아와서 무엇이든지 아이들과 함께 심어 보기로 했다. 그런데 도 시 학교에서 농사를 지으려 할 때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농사를 지을 장소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를 둘러봐도 무언가를 심을 만한 곳을 찾기가 어렵다. 보도블록을 조금 걷어 내거나 화단을 뒤엎어 보고 싶은 마음도 슬며시 들었지만 뒷감당 하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학교 뒷산은 구청에서 경작을 금지한다는 풋말을 여기저기 세워 뒀다. 결국 올해는 화분이나 스티로폼 용기를 구해 작물을 심어 보기로 했다.

시작은 우유갑에 상추 심기

심을 작물은 교과서에 나오거나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로 하기로 했다. 처음 심어 본 것은 상추였다. 흙은 아이들과 천왕산에 올라가서 조금 퍼 온 흙과 운동장 흙, 산 흙(식물이 사는 흙)을 썼다. 원래는 고추와 토마토 같은 다양한 작 물의 씨앗을 관찰한 뒤 직접 심어서 모종을 내 겠던 큰 꿈을 가졌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주고 온도를 잘 맞춰 주어야 하는 등 모종을 내기가 까

다로운 고추와 토마 토는 시작부터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키워야 할지, 물을 충분히 주려 면 바닥에 비닐을 깔아야 할지, 씨앗은 대체 어디에 심어야 할지……. 그래서 결 국 고추와 토마토 대신 키우기 쉬운 상추를 심게 된 거였다. 4월 말쯤, 미리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고 나서 우유갑을 깨끗이 씻어 말려 두라 고 말했다. 그런 후 물이 잘 빠지도록 바닥에 송곳으로 구멍을 냈다. 구멍으로 흙 이 많이 빠질 것 같아서 거즈 붓대를 밑바닥에 넣기도 했는데, 상추는 밖에서 키우는 게 좋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 흙을 우유갑에 약간 모자 라도록 넣은 후에 상추 씨앗을 심었다. 혹시 짝이 안 날까 걱정이 되어서 여러 개 를 뿌렸는데 생각보다 잘 자랐다. 오히려 씨앗을 너무 많이 심으니까 여기저기에 서 자라나는 상추 싹을 솥아 내기도 힘들고, 아이들도 솥아 내는 것을 무척이나 아 쉬워했다. 왜 옆의 친구 것은 싹을 하나만 뽑고 자기 것은 두 개를 뽑느냐고 억울 해하는 아이도 있었다. 사실 상추가 자라기에 우유갑은 작은 편이다. 상추가 좀 더 자라면 하나 자라기에도 비좁아 보인다. 우유갑에 상추를 심을 경우 씨앗을 5개 정도 심었다가 4개는 솥아 내고 잘 자라는 하나만 잘 키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자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상추를 교실에서 키웠는데, 평소 에 보던 상추 모양이 나오지 않고 힘없이 키만 자랐다. 햇빛을 별로 못 받아서 그 런 거라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모두 밖으로 내보냈더니 그제야 잘 자라기 시작했다. 힘없이 자라는 상추에 실망하던 아이들도 잎을 활짝 펴고 잘 자라는 상추를 보고는 깜짝 놀란다. 농사학림에서 박형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햇빛을 먹을 수 없지만, 상추는 햇빛을 먹을 수 있고 먹어야 한다, 우리는 상추를 통해 햇빛을 먹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아이들에게 해 주었다. 가끔 상추를 보러 가면 잎을 따서 먹어 보기도 했다. 안 먹는다고 피하는 아이 들도 있지만 내가 먼저 먹어 보고 “누구 줄까?” 물어보면 몇몇 아이들이 와서 먹어 본다. 우리가 키운 것도 엄연한 상추이건만 “상추 맛이 난다”며 신기해하기도 하고, 쓰다면서 얼굴을 찡그리기도 한다. 그리고 상추를 수확하기로 한 날, 아이 들이 맛있게 먹으리란 기대를 안고 슈퍼에서 쌈장까지 사 갔다. 그러나 급식 시 간에 상추를 씻어서 같이 먹을 사람은 쌈장을 받아 가라고 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상추를 먹는 아이들이 그리 눈에 띄지 않았다. ‘먹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싶었다. 예를 들면 삼겹살 파티를 한다든지, 함께 비빔밥을 만들어 먹 는다든지 하는 보다 재미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강낭콩의 한살이 지켜보기

4학년 과학에서는 식물에 대해서 배운다. 이런 교육과정을 잘 활용해서도 농사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식물 단원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의 씨앗을 관찰하는 활동을 하는 것

이다. 그리고 이 씨앗이 다 자란 모습과 그중 우 리들이 먹는 부분은 어딘지를 보여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식물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열매를 먹는 작물, 잎이나 줄기를 먹는 작물, 뿌리를 먹는 작물로 분류해 보는 것도 좋겠다. 여러 작물 중에서도 나는 강낭콩을 택했다. 4학년 과학 교과서에 강낭콩을 심 고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교사들도 아이들과 강 낭콩을 길러 본 경험이 있을 것 같다. 마침 초등 교사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페트병 화분 만들기'라는 플래시 파일을 본 나는 아이들과 페트병을 활용해서 강낭콩을 심어 보기로 했다. 페트 병 화분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1.5ℓ 페트병을 반으로 잘라 윗부분을 주둥이가 아래로 가도록 돌려서 밑부분에 끼운다. 흙은 이 윗부분에 넣는데, 흙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주둥이를 거즈 봉대로 막은 뒤 거즈 봉대 끝이 밑부분으로 내려가게 해서 물이 거즈 봉대를 따라 아래로 흐르도록 한다. 그런데 아이들 각자 페트병 화분을 만들어 강낭콩을 심으려 하니 그 많은 흙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또 학교 뒷산에 가서 흙을 좀 퍼 올까 하다가 강낭콩 심기는 4학년 전제가 하는 활동이라 그것도 쉽지 않을 듯해 결국 다른 반들과 같이 흙 을 주문했다. 도시에서는 흙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죄다 콘크리트로 덮어 놓아서 어디 흙 나올 곳이 없다. 결국 학교 안에 농사지를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한생 각으로 다시 돌아간다. 보도블록으로 덮여 있는 곳이나 화단을 텃밭으로 바꾸어 보면 어떨까.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흙을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페트병에 심은 강낭콩은 잘 자랐다. 위로 길게 자라나서 유인 줄도 만들어 주었다. 천장에 테이프로 실을 붙이고 페트병과 연결했다. 창가에 줄줄이 세워 놓은 강낭콩이 줄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참 예쁘고 건강해 보였다. 그런데 위로는 잘자라는데 나중에 보니 열매가 많이 생기지 않았다. 흙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에도 햇빛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게 문제인 듯했다. 강낭콩은 씨앗을 3개씩 심었다. 상추와 마찬가지로 자라는 걸 보고 약한 녀석 들은 뽑으라 했더니 아이들은 왜 뽑아야 하나고 아쉬워한다. 페트병은 강낭콩이 자라기에 좁아서 하나라도 잘 자라게 하려면 나머지 것들은 뽑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 주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가 보다. 이번에도 내가 싹을 몇 개 뽑았더니 누 구 것이 뽑혔다고 야단이다. 어느 정도 자란 후 꼬투리가 좀 커진 것을 열어 보았더니 빨갭게 강낭콩이 들어 있다. 성격 급한 아이들은 아직 채 익지도 않은 꼬투리를 따서 열어 보기도 한다. 수확이 좀 많이 되면 집에 가져가서 쌀에 같이 넣고 밥을 지어 보라 하면 좋은데, 그리 많이 열리지 않아 아쉬웠다. 강낭콩을 키우는 동안 관찰 일지를 쓰고, 마무리하면서는 강낭콩의 한살이를 만화나 그림, 글 등 자기가 하고 싶은 방법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아이 들이 쓴 관찰 일지 중 일부를 소개한다.

물물 주느라 너무 힘들었다. - 정○○

물을 주며 정성을 주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하지만 강낭콩에게 열매를 받으면 너무 보람차요. - 김○○

강낭콩 심는 것이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어려운 것만 같았는데……. 강낭콩이 시들면 나도 힘들고 풀이 죽는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꽃이 피면 너무 좋고 기쁘고, 다 행히 꼬투리까지 생기니 너무 기쁘다. 이 방법으로 다음에도 꼭 심어 보고 싶다. - 김○○

이왕 하는 거 고추, 토마토, 시금치에도 도전

이왕 농사짓는 거 더 다양하게 작물을 키워 보잔 생각에 모종 내기가 어려워 포기 했던 고추와 방울토마토도 결국 모종을 사 와서 함께 심어 봤다. 시금치도 심었다. 먼저 방울토마토는 모듬별로 플라스틱 화분 하나에 흙과 비료를 섞어서 담은 후에 각자 자기 모종을 심도록 했다. 모종도 잘 사야 하는데 우리는 꽃이 달린 모 종을 사 왔더니 잘 자라지 않았다. 아무래도 심을 시기를 놓친 모 종이 아니었나 싶다. 어느 책에서 보니 너무 오래된 모종은 좋지 않다고 한다.

화분은 밖에다 두고 일주일여 한 번씩 아이들과 함께 나가 물을 주기도 하고, 과학 시간에 꽃이나 잎 그리기 활동을 하기도 했다. 방울토마토 모종은 한 화분에 4개씩 심었더니(심지어 5개를 심은 화분도 있었다) 좁은 화분에 너무 많이 심어 서인지 별로 잘 자라지도 못하고 조그만 방울토마토 몇 개밖에 달리지 않았다. 그 래도 아이들은 방울토마토가 달렸다고 신기해하면서 무척 좋아했다.

고추 모종과 시금치 씨앗은 급식소에서 구한 스티로폼 박스에 심었다. 그러나고추는 열매를 달지도 못한 채 시들어서 아이들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처음에는 잘 자라는가 싶던 시금치도 어찌 해야 할지 모르고 방치한 끝에 아이들에게 '낮선 풀'이 돼 생명을 다하고 말았다. 이들을 기르면서도 충분한 흙과 햇빛이 농작물 기르기의 기본임을 배웠다. 내년에는 미리 스티로폼을 많이 확보해서 스티로폼 하나에 모종 하나씩을 심어 보면 어떨까. 물론 그러자면 그 많은 흙을 어디서 구 해야 할지 또 고민이긴 하지만.

농사의 꽃, 벼농사도 짓다

토마토나 고추는 그래도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옥상 화분에 심는 걸 본 기억이 난 다. 하지만 벼를 심는 건 올해 농사학림에서 처음 경험해 보았다. 부끄러운 얘기 지만 모내기를 할 때 모를 찢어서 못줄에 맞춰서 한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왜 선배들이 농활 가자고 꼬일 때 못 이긴 척 한

번 가 보지 않고 도망만 다녔을까. 도시에서도 벼를 심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본 것은 두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에서였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인데 텃밭과 텃논을 갖추고 있었다. 부모, 아이, 교사가 함께 텃밭과 텃논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거둔 것으로 아이들이 직접 음식을 만 들어 먹는 경험을 한다. 텃논은 땅을 파고 방수천을 깔 뒤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어 서 만들었다. 모를 심고 수확한 후에는 짚으로 새끼를 꼬아서 줄넘기를 하기도 하 고, 밥을 지어 먹기도 한다. 학교에서도 아이들과 벼를 심어 보기로 했다. 농사학림에서 열탕 소독한 벼씨를 얻어 와서 플라스틱 두부 용기를 활용 해 모판 만들기에 도전했다. 일본에서 나온 어느 책에서 본 것처럼 페트병에다 벼씨를 심고 싶은 아이들에게는 미리 페트병을 가져오라고 했다. 페트병은 몸통의 한 면을 잘라 내고 흙을 채운다. 흙은 두껍게 넣어야 나중에 모가 자랐을 때 쓰러지지 않을 것 같다. 모가 좀 더 자라면 물에 담 가 뒤야 해서 급식소에서 커다란 스티로폼 상자를 주워다 물을 채우고 그 안에 페트병과 두부 용기를 놓았다. 문제는 스티로폼이 약하다는 점이다. 물이 든 스티로 폼 상자를 옮기다가 상자가 부서져서 쏟아진 물을 치우느라 고생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도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직접 논에서 모 내기를 해 본 것이다. 모판을 논에다 던져 보기도 하고(멀리 던져도 모판이 뒤집어지지 않고 바르게 떨어진다), 모를 찢어서 부드러운 흙 속에 심어 보기도 했다. 도시에서는 모판을 구 하기 힘든 터라 농사학림에서 모내기하고 남은 것을 얻어 와서 필요한 다른 반에 도 나눠 주고 우리 반 아이들과도 함께 심어 봤다. 네모난 플라스틱 상자를 사서 아이들에게 여기에 모를 심겠다고 했더니 우리도 모내기하는 거냐고 좋아했다. 어떤 아이는 시골에 가서 모내기한 일을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기도 하고, 다들 언제 모내기를 할 거냐며 관심을 보였다. 모내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플라스틱 상자가 앞으로 우리들의 '논'이라고 얘기한 뒤 '상자 논'의 이름을 짓고 이름표를 예쁘게 꾸며 보라고 했다. '더위 먹은 벼', '대한민국 벼' 등 재미난 이름들이 나왔다. 모를 심을 때 농사학림에서 배운 대로 자랑스럽게 모판을 던졌더니 아이들은 아무렇게 던졌는데도 바르게 떨어지는 모판을 보며 신기해했다. 모는 이렇게 찢 는 거라면서 아이들 앞에서 모를 찢는 시범을 보여 주었더니 다들 자기도 해 보겠 다고 난리다. 흙을 담은 상자논에 물을 채운 뒤엔 모듬별로 모를 찢어서 나눠 주 고 네다섯 포기씩 심도록 했다. 벼는 자라면서 분얼이라고 해서 새끼를 치면서 큰다고 하는데 농사학림에서 설 명을 들을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왔지만 직접 키워 보니 알 것 같다. 처음에 심은 모는 네다섯 포기밖에 안 됐는데 나중에 상자가 가득 찰 정도로 벼가 늘어난 것이다. 잘 자랄까 걱정했던 것과 달리 벼는 아주 잘 자랐다. 학교에서 벼가 누렇게 익 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다. 우리가 심은 벼는 교장 선생님의 영상 편지에 배경으로 잠시 나오기도 하고, 학교에서 열린 '천왕 우리 쌀 축제' 때 벼 그리기 활동에 모델로 서기도 했다. 우리도 벼를 수확하

기 전에 벼의 한살이를 만화나 그림, 글쓰기, 시화로 표현하 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이 '벼'를 주제로 만든 작품을 학교 전시회에 내기도 했 다. '고개 숙인 벼', '인사하는 벼'처럼 상투적인 표현들도 있었지만, 가위로 벼를 자를 때 벼가 아플까 봐 미안했다는 다소 유아틱하지만 솔직한 자기 생각이 묻어 나는 시도 볼 수 있었다. 그때 나온 시 중 한 작품을 소개한다.

학교에서 벼를 심었다.

벼를 심은 땅이 갈라질까 봐,

내 마음은 콩닥콩닥!

벼를 수확할 때

가위로 잘라 아플까 봐

벼야, 미안.

우리의 밥이 되는 벼

뜨거운 전기밥솥에 들어가는 벼

미안하지만 밥이 되어라~~~^^*

- 흥○○, 〈벼〉

다 자란 벼는 아이들과 수확을 했다. 양이 많지 않아서 낫이 아닌 가위로 벼를 자르고 손으로 이삭을 털어 냈다. 신문지라도 깔고 할 것을 그냥 보도블록 위에서 했더니 보도블록 사이사이에 낫알이 끼서 아이들이 그 낫알을 빼낸다고 애를 먹었다. 벼에서는 기본적으로 쌀을 얻지만 벼짚도 소중한 자원이다. 벼짚으로 흙을 덮 어 줄 수도 있고 벼짚을 발효시켜 퇴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농가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고마운 작물인 것이다. 다만 학교에서는 조금 예외가 있다. 일단 벼 이삭이 밥을 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게 나온다. 적은 양이지만 공동육아 어린이집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쌀을 찌 먹어 보는 것도 시도했는데, 결국 냄비만 태우고 실패했다. 벼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고 한다. 매일 같이 먹는 밥이지만 벼를 직접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 같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이 벼를 키우 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수확을 할 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앉아 수다 를 떨면서 벼를 털어 내는 모습을 보며 농사라는 게 공동체를 단단히 해 주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다. 막상 학교에서 벼를 길러 보니 키우는 일 자체는 생각보

다 어렵지 않은데 범씨나 모판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또 수확한 이후에 밥을 지어 먹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내년엔 이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풀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보아야겠다. 도시 학교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 을 한 해 내가 아이들과 해 본 농사의 모습은 이러하다. 이 1년의 경험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남아 있을까. 솔직히 한 번의 체험이나 이벤트로 끝난 것은 아 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 아이들이 작물을 심고 가꾸는 과정에 생각만큼 손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아쉽고 이렇게 키운 작물들로 제대로 음식을 만들어 먹지 못한 것도 아쉽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작물을 직접 길러 본 경험, 자신들의 생활 가까이에서 작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 그 자체도 소중한다고 본다. 도시 학교에서 농사를 해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거듭 말했지만 흙도 구하기 어려운 지경인데 하물며 도시에서 농사지을 땅을 찾기는 정말 어렵다. 우리 학교 에서는 상자 텃밭을 만들어서 5학년이 관리하고 있는데 꼭 상자 텃밭이 아니더라도 올해 내가 해 본 것처럼 일단 아이들 가까운 곳에 뭔가를 심어 보면 어떨까 싶다. 우유갑도 팬찮고 급식소 주변을 기웃거리려 보면 다양한 용기를 찾을 수 있다. 요즘 아이들은 먹는 것도 마트나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듯이 한다. 내가 먹는 것들이 어떻게 길러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 식탁 위에 오는지 알 길이 없다. 그렇 다 보니 아이들이 자기를 둘러싼 세상과 점점 단절되고 개별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문제는 세상과 내가 연결되지 못한 채 나 혼자 똑 떨어져 있다고 여기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농사는 나 와 내가 먹는 것들을 이어 주고, 또한 나와 땅을, 나와 사람들을 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농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학교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를 통해 학교를 생명을 배우고 삶을 배우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이들이 직접 논과 밭을 일구어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고, 거기서 난 이익을 지역으로 되돌리는 무모한 상상을 해 본다. 단지 이벤트처럼 농사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도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화단을 줄이고 보도블록도 걷어 내고 그 땅 위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작물 들을 심고 가꾸면 정말 좋겠다. 지난 1년 동안 나의 농사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다. 팜 워허스트 Pam Warhurst 가 TED 에서 강의한 <우리의 주변 풍경을 어떻게 먹거리로 채울 수 있을까>에 나오는 내용처럼 도시에도 농사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는 생각이 더 커졌다. 도시에서 무 연가를 생산하고 나누는 일을 하는 건 소비만 하는 도시의 삶을 바꿀 절호의 기회 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역별로 가까이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농사를 지어 보면 어떨까. 단순히 논과 밭을 가꾸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가 먹을 것들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면 더 좋겠다. 올 겨울에는 내년 농사를 계획해 보자!

10월 연구 모임

갈무리의 달 10월

10월은 논과 밭에서 부지런히 거두어주고 갈무리 하는 때이다. 논에서는 벼를 거두어 주고, 밭에서는 들깨와 참깨, 콩, 고구마 등을 거두어 준다. 거두어 주며 동시에 심어 주어야 하는 때이다. 모종을 내둔 양파와 씨 마늘을 10월 하순경에 심어 준다.

수확과 교육

교육에 있어서, 수확은 농사에 있어서 '절정'이자 '결론'에 가깝다. 기다림과 수고로움을 보답 받는 것이 수확이다. 그렇다면 교육에서 '수확'을 어떻게 접근하는게 좋을까? 댓가나 보답, 혹은 화폐로 교환 가능한 생산물 보다는 '생명'이라는 화두로 이야기로 풀어가면 어떨까? 심었던 생명을, 기르던 생명을 거두어 주는 그리고 그 생명을 먹고, 우리는 다시 생명을 이어간다는. 생명의 순환과 관계로 풀어가면 어떨까 한다. 작물들은 햇빛과 물, 공기, 그리고 토양에 의지해 '양분'을 먹고 살아간다. 햇빛과 물, 공기는 자연이 거저 주는 것이다. 은혜 또는 은덕에 가깝다. 그리고 토양은 무기물과 유기물이 결합된 것이다. 무기물은 아주 오래 시간 자연 현상을 통해 암석이 침식 된 것, 또 그 암석은 아주 아주 오랜 전 우주로부터 온 것이다. 유기물은 결국 다른 생명 또는 다른 생명의 일부 혹은 부산물이 토양에 남겨진 것이다. 우리는 결국 자연 안에서, 다른 생명 또는 다른 생명들의 관계를 '수확'하여 먹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우리 역시도 약속 된 시간이 되면 '자연'의 관계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사실 우리가 거둔다기 보다는 자연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닐까? 10월 갈무리 달에는 '수확'한다는 것에 생명의 눈으로,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면 어떨까?

사 례 나누기

지금 '농부'로 살아가는 교육 - 텃밭과 부역을 학교의 중심으로! / 박형일

그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텃밭, 텃밭에서 좀 놀았으면 좋겠다. '수업'이라는 이름으로도 좋고, '놀이' 라는 이름으로도 좋다. 삶의 일부로, 문화로 농(農)을 누리고 향유했으면 좋겠다. 텃밭에서 흙장난도 좀 하고, 어제 심은 당근이 싹이 돋았나, 그제 심은 완두콩 은 소식이 좀 있나 궁금해하며 몰래 파 보기도 했으면 좋겠다. 새콤달콤 딸기도 따 먹고, 토마토도 한입에 베어 물어 그 싱싱한 향긋함도 누리 봤으면 좋겠다. 철마다 열릴 앵두며, 보리수며, 오디, 산딸기, 까마중 열매도 따 먹어 보고 그 재미를 느껴 봤으면 좋겠다. 오디 따 먹다가 시커메진 친구 손이며 입 주변을 깔 깔거리며 놀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철이 오고 가는 것도 알고, 철따라 피고 지는 꽃이며 나무며 채소도 알았으면 좋겠다. 예이 몰라도 좋다. 그냥 그 재 미와 신비를 느껴 보고 한 조각 몸속에 남겨 두었으면 좋겠

다. 텃밭에서 놀다가 곤충도 만나고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하면서 그러다 친 해지기도 했으면 좋겠다. 외수레를 밀다가 넘어져도 보고, 서툴지만 호미와 삽으로 땅도 좀 파 봤으면 좋겠다. 일하다 굵은 팜방울도 흘려 보고, 동무들과 어울려 '흠뻑' 일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장난치다, 피부리다 같이 일하는 친구들한테 핀 잔도 들고 선생님한테 혼도 좀 나 봤으면 좋겠다. 텃밭 옆 텃논에서 내가 매일 먹는 '쌀'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이라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다 벼를 만져도 보고 괜히 냄새도 맡아 봤으면 좋겠다. 이삭이 맺히면 몇 알 털어 입속에 넣어 보고, 오도독오도독 씹어도 봤으면 좋겠다. 작은 논 속에서 꼬물꼬물 울챙이며 송사리도 만나고, 그놈들 잡으려다 몰래 눈에 첨병 들 어가기도, 잡으려다 놓치기도 해 봤으면 좋겠다. 국어 수업, 수학 수업도 가끔은 텃밭해서 했으면 좋겠다. 시도 써 보고 글도 써 보고, 내가 만든 이랑 길이기도 재어 보고, 내가 수확한 호박 무게도 재어 보면 좋겠다. 미술 시간에 풍경화니 세밀화니 하는 것들 말고 텃논, 텃밭에 나와 벼도 그려 보고, 가지며 토마토며 자세히 들여다보고 빛깔도 생김새도 그려 봤으면 좋겠다. 과학 시간에 배운 이슬도 텃밭에 있고, 식물도 곤충도 텃밭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글'로, '사진'으로만 배우지 말고 '몸'으로도 배웠으면 좋겠다. 학교에 도서실, 컴퓨터실, 영어실이 있듯이 텃밭도 있고, 텃논도 있고, 부역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쁘고 편하게 지어진 부역, 그 부역에 둘러 모여 함께 가꾸고 수확한 채소에 얹힌 이야기도 나누고, 그걸 가지고 요리도 해 봤으면 좋겠다. 닭도 키우고 토끼도 키워 봤으면 좋겠다. 밭에서 김을 매서 풀을 수확해 닭도 주고 토끼도 주고, 그것을 쪼아 먹는 닭의 모습이며 오물오물하는 토끼 입을 한참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암탉이 막 낳은 따끈한 알도 느껴 보고, 암탉이 알을 품는 모습이며, 깨어난 병아리들이 어미를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도 봤으면 좋겠다. 아침! 닭똥, 토끼똥,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물로 퇴비간에서 퇴비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것이 다시 땅으로 돌아가 다시 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순환'도 몸으로 겪어 배워 보면 좋겠다. 기다려도 봤으면 좋겠다. 오늘 심은 고구마 줄기가 내일 당장 고구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명이 자라는 데는 무 엇보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워 봤으면 좋겠다. 벼가 알곡을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함께하는지, 손바닥 안의 작은 씨앗이 어떻게 그리 큰 것이 되는지, 그 안에 해도 담기고 땅도 담기고 시간도 담기고 나도 다른 생명도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우주를 저 멀리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통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르고 먹는 곡식이며 채소를 통해 만나고, 나도 세상과 우주와 연결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세밀하게 느끼고 구체적으로 겪어 배워 봤으면 좋겠다. 텃논과 텃밭, 부역에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농사를? 학교에서 농사를!

이름도 생소했던 '학교 텃밭'이 '학교 농업', '스쿨팜 School-farm', '에듀팜Edu-farm', '식 생활 체험장' 등 참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이곳저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갑작스러운 학교 농(農) 혹은 학교 텃밭의 부흥(?)이 반갑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 안타깝기도 하다. 농업계 쪽에서는 학교 텃밭

이 하나의 '블루오션'으로서 교육적 전망 보다는 (교육은 하나의 명분이고) 경제적 전망으로 주목받고 있고, 교육계에서도 학교 텃밭이 또 하나의 '체험 활동', '특색/특별 활동'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이 강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과 같은 식의 텃밭 부흥과는 다른 의미에서 보다 많은 학교에서 '농사' 를 지어 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어나 수학, 영어를 배우듯 학교에서 당연스럽게 농(農)을 배웠으면 좋겠다. 삶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지금, 농(農)이 교육과정의 주변에 서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서야 한 다고 생각한다. 학교에 교실, 도서관, 운동장이 있듯이 이제는 학교에 '텃밭'과 '부역'이 교육의 공간으로 자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農)은 우리 삶의 일부다. 먹지 않고 사는 이 누가 있으며 자연에 빚지지 않고 사는 이 누가 있겠나? 산업화, 도시화라는 이름으로 저 구석으로 쫓아 버린 농(農)을, 이제 우리의 기억과 경험 속에서 사라져 버린 농(農)을 교육의 이름으로 다시 불러내 만나야 한다. '아이들을 농사꾼으로 만들 셈 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주저 없이 '그렇다'고 대답 하겠다. 아이들은 농부가 되어야 한다. 더 정확히는 아이들이 '학생 농부'가 되어 해 보아야 할 '교육적 경험'이 있다.

농부의 경험, 농(農)의 눈으로 세상 보기

농(農)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가꾸고 기르는 일이다. 아이들이 해 보아야 할 '교육적 경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체적으로 만나 기르고 돌보는 경험, 생명을 길러 보고 먹어 보며, 다른 생명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는 것'을 익히고 배우는 경험이다. 땀 흘려 일 해 보고, 혼자 그리고 여럿이 (친구와 다투기도, 다독이기도 하면서) 자연 속에서,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부해 보는 경험. 그러면서 내가 다른 생명과 연결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세밀하게 느껴 보고 겪어 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나의 일부로 '신체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실제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해외에는 내가 꿈꾸듯 말하는 텃 밭 교육을 '현실'로 펼쳐 내고 있는 곳이 여러 곳 있다. School garden, Edible schoolyard, Food for life, Incredible edible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미국의 Edible schoolyard와 영국의 Incredible edible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이 사례들은 기회가 되면 이후에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았으면 한다). Edible schoolyard는 '텃밭'과 '부역'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농(農)' 또는 '음식'을 교육과 정의 핵심에 둔다. 글쓰기 수업, 과학 수업, 수학 수업 등 여러 수업이 텃밭과 부 역에서 농(農)과 연계해 이루어진다. 농(農)이 교육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서서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Incredible edible 역시 흥미로운 사례이다. 지역사회를 (이들의 표현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풍경'으로 가꾸어 나가는 활동은 학교의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바가 크 다. 해외에서는 '농업'에서 '음식'으로 그 표현과 관심, 관점을 옮겨 가는 추세이 다. 농업이라고 했을 때는 농업인들만의 문제라 여기기 쉬운데, 음식/먹을거리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일상이고 문제라는 것이 보다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Incredible edible에서는 먹을거리야말로 남녀노소 모두의 '언 어'이자 '관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역사회의 풍경을 이에

맞춰 바꾸어 나가는 동시에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학교 텃밭이 단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활동'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고, 지역의 이슈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그 힌트를 보여 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이런 해외 사례는 아무리 빛날지언정 우리의 사례는 아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극과 영감, 희망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의 '정답'이 될 수는 없다. 각 각의 사례는 그 사회가 가진 고유한 문제의식과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만의 문제의식과 고유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사례'와 '답'을 찾아야 한다. 아니 함께 '길러야(Grow)' 한다. 우리 밖의 사례가 아닌 우리 안의 사례를.

'활동'이 아닌 '일상'으로

나는 교육에서 농(農)이 하나의 '활동'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육의 방식 혹은 철학으로, '일상'으로, '문화'로, '삶의 방식'으로 다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령기 때문에 학교 텃밭도 하나의 '활동'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화로, 일상으로 가져가는 방식이었으면 한다. 그 구체적 모습이 될까? 그건 나도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난 1년간 농사학림의 교사 농부들이 각자의 현장 속에서 펼쳐 낸 실천들 속에서 나는 충분한 가능성을 본다.

11월 연구 모임

처음 그 자리로

11월은 가을을 지나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이다. 하지만, 자연은 아직 잠들지 않았고, 농사 일은 계속 된다. 양파와 마늘은 겨우내 얼어 죽지 않도록 보온을 해주고, 땅이 얼기전 이듬 해 농사 지을 완두콩 발과, 감자 발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밀과 보리, 양파, 마늘은 11월말 12월초가 되면 비로소 겨울 잠에 빠져든다. 점차 함께 자리를 시작했던 2월, 처음 그 자리의 풍경으로 모든 것이 되돌아간다. 자연이 순환 되는 것이다. 농사도 그 자연의 순환 속에 어김없이 함께 한다.

꼬박 11번의 만남.

1월 부터 지금까지 꼬박 11번을 한달에 한번씩 어김없이 만났다. 서울에서 강원도에서 기타 등등 곳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흥성까지 발걸음 하는게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 순환하는 사계를 함께 하며, 한 해 농사를 같이 지어보자는 '약속'을 다함께 지켰다.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가고 소멸되어가는 농(農), 그러나 다시금 농(農)의 눈으로 우리 삶의 자리, 교육의 자리를 되돌아보고자 하였다. 교육의 눈, 전인의 눈, 생태, 인문의 눈으로 바라보는 농(農)은 그 자체가 교육을 위한 훌륭한 '텍스트'이며 또 하나의 교실이며 학교이다. 우리는 그 '가능성'에 대해 함께 대화하고자 했다.

교사 농부, 전농(全農)?

하농(下農)은 풀을 기르고,

중농(中農)은 곡식을 기르고.

상농(上農)은 땅을 기르며

성농(聖農)은 사람을 기른다 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여기에 우리는 풀, 곡식, 땅, 사람 모두를 기르는 전농(全農)을 덧붙여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농(全農)이야 말로 교육 농(農), 교사 농부의 모습이 아닐까? 이 모임을 거름삼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 '교육 농부'로 '교육 농사'를 지어가자.

2012 새로운 농을 만나다. 조경삼

農 - 향수

아버지의 교육열에 어릴 적 홀로 고향을 등져야 했던 나에게 農은 그리움이었다. 동네 형들이나 친구들은 아마도 질리도록 일을 했겠지만 나는 일을 도울 만한 나이가 되기도 전에 집을 나왔고, 어쩌다 집에 갈 때면 타향살이하는 안쓰러운 자식에게 부모님은 절대 일 하라시는 법이 없었다. 부모님 곁에 있고 싶어 얼쩡대노라면 얼른 들어가 공부나 하라실 뿐. 철이 들고 서툴게나마 도울라치면 어김없이 병이나 버리고, 껌을 부리면 그만 들어가라는 말씀이었으니 제대로 진하게 일해 본 기억이 없다. 그렇게 질려 본 적이 없으니 나에게 農은 생활, 현실이 아닌 향수이고, 그리움이고 부모님이었던 것이다.

農 - 아버지 따라하기

교사들에게 3월에 가장 부담스러운 행사를 고르라면 아마도 '학부모 총회'가 꼽힐 것이다. 그 행사 때 나를 소개하는 문구 중 좋아하는 것, 혹은 관심 분야로 계속 자리잡고 있는 것이 식물 키우기였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초창기부터 아이들과 허브나 꽃 화분 키우는 것을 좋아했는데 아마도 내가 농촌에서 자란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식물을 키우다가 문제가 생기면 도움을 받는 것이 아버지였다. 비료나 농약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곤 했다. 그러다가 8년차 쯤 되었을 때 주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된다. 교실에서 시들시들 다 죽어가 내 놓으면 가져다 건강한 모습으로 살려 놓으시던 그분. 비결은 관심과 땅의 힘이었다. 그 때 실내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은 식물들에게 고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 때 가르치던 5학년 아이들과 함께 실과에 나오는 작물들을 심을 텃밭을 빈 공간에 만들었다. 그리고는 아버지 따라하기가 시작되었다. 퇴비를 뿌린 다음 고랑을 만들고, 비닐을 덮고 고추, 가지, 토마토 등을 심었다. 탄저병 나면 고추는 끝이라는 아버지 말씀에 이랑에는 부직포를 씌우고, 병이 생기면 아버지께 물어 집에 있는 약을

언어다 주고 한 덕분에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풍성한 찬거리를 얻을 수 있었다. 떠나오기 전 해엔 좀 늦게 시금치 씨앗을 뿌리고, 비닐 터널에 보온 덮개까지 준비하여 돌봤지만 결국 맛보기에 실패하고 남아있던 선생님들이 잘 먹었다는 감사 인사만 전해 받았다. 거산에 오니 나만 하던 텃밭 농사를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습은 더디고, 소출도 적고, 발 쫄도 답답하였다. 이걸 못 기다리는 것이 주사님이었고, 나 역시 그랬다. 풀이 수북한 밭을 볼 수 없어 부직포를 깔았고, 병든 고추를 볼 수 없어 주사님과 농약을 쳤다. 물론 아이들이 없을 때. 모양을 훨씬 좋았고, 소출도 다른 학년에 비교할 바가 아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일일뿐 아이들은 텃밭에서 저만치 멀어져 있었다. 그저 심고, 한참 있다 수확만 했을 뿐 배움은 없었다.

농 - 농사학림 따라하기

거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내가 선생님들에게 제기했던 것은 농사도 연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아이들과 텃밭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이다. 이런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농사 기법'이 아닌 '교육적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해마다 있는 생태 연수에서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2011년 여름, 2012년 겨울 생태연수에서는 갖골 생태연구소와 연결하여 농에 관한 내용을 연수 받게 되었다. 그 때 강사로 오셨던 박형일 선생님께 이번 '농사학림' 프로그램을 소개받고 3월부터 참여하게 되었다. 3월에 만난 속 깊은 이랑과 유기물을 이용한 멀칭은 새로운 충격이었다. 비닐만 알면서 '생태교육'을 이야기하던 나에게 '순환'과 진정한 '생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학교로 돌아와 잠시 고민에 빠졌다.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 아버지들의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것이었다. 그 때 2학년에서 어린이용 삽을 구매하고, 어설피게나마 밭을 꾸미는 것을 보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작물의 집'이라는 이랑을 만드는 것부터 아이들과 함께 해야 진짜 아이들의 것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2학년 삽을 빌리고, 학교 예산으로 농기구 '포크'를 사서 텃밭을 만들었다. 흥성에서 했던 것처럼 흰 줄을 치고, 3.3*1의 한 평 텃밭을 나눈 뒤 한 모둠씩 맡아 텃밭을 만들었다. 두 시간 쯤 아이들의 삽질이 계속되었고 밭의 모양이 조금씩 만들어졌다. 밭 위에는 작년에 주사님이 모아 놓으신 낙엽들을 덮어 멀칭을 하고 날아가지 않게 나뭇가지들을 얹어 놓으니 텃밭이 완성되었다. 아이들도 자기가 만든 작물들의 집에 뿌듯한 모습이였다. 다음으로는 여름에 부모님께 대접할 요리를 정하고, 요리에 필요한 작물 중 7월에 수확 가능한 작물로 뽑아 모종을 심었다. 요리는 다 달랐지만 작물은 피망, 토마토, 오이, 딸기, 당근 등으로 비슷하게 모아졌다. 멀칭을 짓히고 작물을 심은 다음 다시 잘 덮어주었다. 비닐 멀칭을 한 곳보다 더 생기있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유기 멀칭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 아침이면 텃밭을 먼저 둘러 작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교실로 올라가곤 했는데 아이들도 가방을 맨 채 달려와 반갑게 인사하고 물을 주거나 관찰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고추에 노린재가 생기자 물총을 준비해서 떨어뜨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없이 농약부터 찾던 내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다. 순환을 깨뜨리지 않는 해충 방제와 '제초가 아닌 역초'라는 가르침도 내 생각의 전환을 가져왔다. 그래서 아이들과 유기농약과 액비에 대해 공부하고 실제 만들기 어렵지 않은 것을 골라 만들어보았다. 유기 농약은 난황유와 은행잎 농약, 액비는 깻묵, 썩물, 계란껍질 등을 역시 모듬별로 한 가지씩 정해 만들었다. 화학 농약처럼 효과가 있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에게도 박멸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별레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 되지 않았을까? 학기가 끝나갈 때 쯤 '텃밭 잔치'를 했다. 많은 가족이 참여하였고, 어설피 요리하는 어머니들의 손을 빌어 멋진 요리가 되었다. 텃밭 한 구석에 심었던 한련화는 멋진 데코레이션이 되어 음식을 돋보이게 하였다. 잡채, 스파게티, 피자, 김밥, 당근+토마토 주스에 어머니들이 준비하신 냉면 그리고 허브차까지 곁들여진 흥겨운 '가든 파티'였고, 1학기의 텃밭 프로젝트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다시 2학기 농사를 위한 준비를 했다. 남아있던 작물들은 다시 그 자리에 잘게 부숴져 멀칭이 되었고, 개학 후 아이들과 함께 이번엔 김치를 정했다.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김치들을 정한 뒤 거기에 맞게 무, 배추, 썩갓, 쪽파 등을 어떻게 심을지 디자인한 뒤 모종을 사와 심었다. 그런 다음 농사학림에서 했던 것처럼 한랭사를 씌웠다. 그리고 여름 방학 전 만들었던 액비를 개봉하여 집에도 한통씩 보내고 일주일에 한번 씩 텃밭에 주었더니 주사님이 화학비료를 주신 무, 배추에 못지않게 잘 자라 한랭사를 밀쳐낼 정도가 되어 걸어 주었다. 1학기만큼의 관심은 없지만 여전히 월요일이면 텃밭을 살피고, 물도 주고 기록으로 남기는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느낀다. 이제 11월 말이나 12월 초 쯤 텃밭에서 수확된 무와 배추로 김치를 만들고 어머니들이 준비해주시는 수육을 곁들여 두 번째 텃밭 잔치를 열 예정이다. 당장은 먹은 기억만 남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괜히 농에 끌렸던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살면서 스며들어 있다가 언젠가 기억난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일이다. 속 깊은 이랑, 유기 멀칭, 순지르기, 퇴비만들기, 혼식, 유기농약 등 기법을 따라하며 한 해를 지냈지만 단순히 기법만 남은 것은 아니다. '순환', '교육과 농'에 대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달라진 점이다. 이제 거산에서 5년 만기가 되어 내년에는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되는데 아마도 학교를 찾는 1순위 기준은 '텃밭이 있는 곳'이 될 것 같다. 물론 도시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경험하기 힘든 것을 함께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리 마음이 끌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 학교에서 아이들과 텃밭 농사를 짓는 교육농으로 살아가면서 '순환'을 몸으로 가르치는 교사로 남고 싶다.

씨앗이 된 농사학림 / 김미라(푸른숲학교)

농사학림이 시작될 때는 황량한 봄이었는데 이제 산야는 온통 익어가는 열매들로 가득하고 한 줍 햇살도 소중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작은 배추 씨앗을 보면서 커다랗게 포기 찬 배추를 상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농사학림에 참여하면서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처음에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농부의 딸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방과후나 주말에는 자연스럽게 농사일을 거들어야 했지만 그것이 즐겁거나 보람있다고 느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농사일이라면 오히려 '가능하면 안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해 왔어요. 집에 있는 텃밭 돌보는 것도 눈치껏 남편을 돕는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그러저러한 이유로 처음에는 교육 속에서 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농을 이야기할 것인가 등의 제게는 다소 거창한 목표와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횡수를 거듭할수록 제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퇴비에 대해 배운 날에는 집에 돌아와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치우고 재활용할 수 있는 고무통을 찾아 음식물 퇴비통을 만들어 놓았고, 속깊은 이랑을 배운 다음에는 텃밭을 속깊은 이랑으로 바꾸겠다고 남편을 설득하여 밭을 만들었고, 비닐멀칭 대신 아이들과 야산에서 낙엽을 긁어모아다가 고추밭을 덮었답니다. 이젠 풀도 뽑아버리지 않고 두둑을 덮는 데 쓰고, 심지어 다른 밭에서 뽑아버린 풀까지 걷어다가 덮고 있지요.^^ 텃밭을 돌보며 작물을 경작하며 텃밭에 대한 애정도 점점 늘어났지요. 이걸 심을까 저걸 심을까 남편과 즐거운 상의도 하고 수확물을 나눠먹으며 마음의 선물을 하나 가득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1평의 땅을 경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를 변화시킨 것은 땅을 경작한 경험이 아니라 '농사를 바라보는 시각, 먹을거리에 대한 바른 생각, 소비가 아니라 생산이어야 하는 농사, 농사를 이야기하는 교육' 등 생각지 않았거나 못했던 부분을 자극하고 종자, 식량문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수업이었습니다. 그간 농사에 대한 생각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가, 우리가 먹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교사로서 학교 안에서 아이들과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2학기 들어서 동네 분이 학교활동에 쓸 수 있도록 100여 평의 밭을 제공해주셨고, 저는 겁도 없이 9학년 아이들과 농사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에 흙과 퇴비(똥)와 인간의 순환고리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밭도 일구고 많이 늦었지만 배추와 쪽파도 심었습니다. 목공수업과 농사수업을 연계하여 학교의 숙원 사업이었던 퇴비장 정비를 시작하였고, 내년에는 잘 숙성된 퇴비를 밭에 뿌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속에서 농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논하기에는 경험과 고민, 의식의 수준이 아직 많

이 부족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농사학림을 통해 푸른숲학교 고등과정의 새로운 퍼즐이 맞춰지고 있고 교사로서 저의 진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농사학림! 감사합니다.

농사학림 / 성미산학교 최경미(사이다)

무능력과 귀소본능

그동안 나는 "그래도 무언가 해봐야 하지 않는가, 뭔가 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주변의 주문은 나를 피로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런 긍정성은 나를 고갈시켜왔으며 배제시켜 왔다. 하지만 후쿠시마 재앙은 나에게 파국을 절감하게 만들었으며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위기감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 준 계기였다. 지금 이 상태를 중단시켜야 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생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와 공포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문명의 전환에 대한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였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문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 현재 나는 너무나 무능력한 상태이다. '다음'을 상상하거나 '다시'를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생산적 활동이라도 배워야겠다는 희망으로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다.

돌이켜 보니 거대한 전환에 대한 명분 외에도 나에게서는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었다. 오랜 불감증과 무감각에 익숙해졌던 내가 흙과 파릇파릇한 싹들, 그리고 햇살과 하늘이 다시 그리워지게 된 건 단순한 감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당연한 귀소였다. 그 옛날 어른들이 연뿔빛이 좋아지고 꽃이 좋아지면 늘어가는 증거라고 했는데 그 말은 잘못되었다. 그들은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회춘하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다시 내가 흙을 밟고 농사를 꿈꾸게 되는 것도 어쩌면 귀소 본능에서 기인한 것이니라. 그래서 나는 회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흙으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을까. 후쿠시마 재앙이 불러다 준 전환에 대한 의무감 혹은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해방구를 찾는 희망으로? 그것보다 더 막강한 어떤 힘에 이끌려서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한 것은 바로 회복해야 될 감각 때문이지 않을까. 어릴 적 나는 방학 때마다 한 달여씩 섬에 사시는 할머니 댁에서 지냈다. 흙과 물이 귀한 섬이라 거기서 나는 모든 생물들은 소중했다. 새벽에는 바다에 나가고 돌아오면 하루 종일 논과 밭에서 지내는 할머니와 큰엄마를 따라 흙에서 놀았다. 그러면 할머니가 감자 사이에 몰래 심어 둔 토마토를 따서 입 속에 쏘옥 넣어주시곤 했는데 사실 그 재미로 따라나섰던 것이다. 과일이나 채소가 다 귀한 터라 스스로 짓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섬이었다. 그래서 집집마다 과실나무를 심고, 밭에 온갖 채소들을 심어야 했다. 하루 종일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살구며 앵두며 오디며 자두를 따먹던 그 여름, 가을이면 도토리를 줍고 감과 돌배, 밤을 따 먹던

그 가을. 산과 밭을 돌아다니며 감자, 콩, 옥수수를 구워먹고 근처 무덤가에 누워서 따가운 햇살을 받았던 그 기억들, 그 풍요롭고 따스한 땅에 대한 감각이 온 몸에 각인되어 있었음을 이제야 인식했던 것이다.

農=교육, 시도들

삶을 전환해야 한다는 말 속에는 이미 농이 곧 삶이고, 삶은 밭(교육)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진리가 숨어있다. 후기 근대의 위험 사회는 생명에 상호의존해서 살기보다는 산업, 기계가 만들어낸 생산물들을 소비하며 살아왔다. 그 삶의 방식의 전환의 매개가 '농'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농부로 대변되는 삶의 태도로 땅을 살리고 생명을 대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생태계 혹은 우주의 리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농사학림을 통해서 이런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기에 충분한 시간들이었다. 또한 농사를 배우는 시간은 '기도와 노동'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익숙하게 마주하고 있던 세계와의 낯설게 다시 공부할 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생태계를 디자인해보며 궁리해보기 : 때와 장소를 읽어내고 몸을 풀고 꿈꾸기. 집약적으로 농사계획을 세워보기.

생명의 터전인 흙/땅 가꾸기, 생명들의 거처인 이랑 짓기 : 흙/땅은 거대한 생태계 자체이다. 흙을 돌보고 이랑을 짓는 일은 생명을 키우고 가꾸는 기본.

퇴비와 녹비 : 순환을 통해 흙/땅의 생명성을 높이는 일. 녹비는 땅을 먹이는 농사.

잠들어 있는 생명인 씨앗 : 농사의 시작이자 끝. 상품이 아니라 생명.

다른 생명들과의 관계 : 제초가 아니라 억초, 곤충들과의 공존하는 방식

자연의 리듬에 대한 감각 : 계절의 변화에 따라 결실을 맺고 다시 씨앗을 심고 가꾸는 순환 고리 삶의 방식이자 민주주의의 실현, 먹거리 : 농사보다 더 각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 삶의 전환을 교육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실마리.

이 귀한 앞들을 구체적인 삶의 맥락 안에서 이행해야 제 빛을 발할 것이다. 하지만 도시에서 땅을 찾아 흙을 가꾸는 일은 의지만큼 쉽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 땅/흙을 점거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다. 점거 방식은 무난한 것부터 시도하고 힘을 받게 되면 좀 도전적인 것으로. 우선 주먹가 골목에 버려진 상자 텃밭과 마을의 곳곳에 버려진 화분에 씨앗과 모종을 심었다. 생명력이 강한 콩부터 심

었다. 땅의 기력을 회복할 수도 있고, 하나의 씨앗에 많은 결실의 경이로움까지 볼 수 있으니 금상첨화. 결실을 맺은 콩의 절반은 10대들과 밥을 같이 해서 나눠 먹고 그 절반은 다음 해 씨앗으로 받아 두었다. 그리고 나서 허브와 다시 콩을 심었다. 허브는 마을 사람들이 분양을 해갔다. 그래서 그 상자 텃밭과 화분들은 공동의 가든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마을의 비어 있는 땅에 해바라기 씨와 상추와 깻잎, 고추를 심고 다녔다. 소위 말하는 게릴라 가드닝이라는 것을 시도해 본 것인데 보기 좋게 결실을 맺기 전에 누군가 다 뽑아 가 버려서 대략 난감한 상황의 반복. 그리고 나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깨부수고 게릴라 가드닝을 해보려고 10대들을 설득하는 데 일 년이 다 가고 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의료생협을 만든 그룹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콘크리트를 부수고 게릴라 가드닝을 지난 봄에 했던 청년 그룹을 소개받았다.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봄에는 같이 해볼까 하는 기대가 다시 생겼다. 그래서 진짜 주차장을 밀고 밭을 만드는 꿈을 실현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고 싶다. 그리고 이 야만스러운 땅에 생명의 씨앗을 퍼트리려고 한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나는 늙고 게을러진데다 무중력 상태에 빠져 있어서 빨리 봄이 와서 회춘하길 기다리고 있다.

이 후

나는 도시에서 땅을 점거하고 흙을 살리고 씨를 뿌리고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씨앗을 나누는 삶의 사이클을 회복하고 싶다. 농사학림은 그것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길 기대한다. 농사학림 시즌 2는 게릴라 가드너들의 허브이자 농교육 운동을 퍼트리는 구심점이 되어주길 바란다.

“그 순간 별다른 시도를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여기에 또 다른 형태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한 일로 부자가 되기는커녕 언제 돈을 받을지도 모르는, 연대에 기반을 둔 삶이지요. 그저 살아남는 것일 수도 있지만, 최선의 삶으로서의 생존이지요. 나누고 도와가며 사이 좋게 지내고 열심히 일하는 것 외에 그 누구에게도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그저 좋아서입니다. 가비오파스에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경쟁이나 위계 질서와는 다른 어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무엇이라 할지 모르겠으나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156쪽.<<가비오파스>>)

농사학림 시즌 2에 부쳐

벼 농사는 계속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밭에서 하는 농사야 집약적으로 지을 수 있지만 논 농사는

그 자체로 상징적이어서 말입니다. 쌀을 지켜야지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모르겠지만 십시일반 해서 땅을 임대하고 함께 농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의 논 농사, 거둬들이 쌀의 일부는 의미 있게 쓰여도 좋을 듯 하구요.

씨앗 도서관은 활발하게 공유되도록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종 다양성과 토종 종자를 지키고 나누는 일은 완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인도의 나브다나 운동을 참고해서 만들어보는 어떨까 하는데 우선 학교부터 나누는 것부터 해보면 어떨까하는데. 현재 네트워크하고 있는 농사학림의 교사들부터 시작해서 전파하기. 지금 필요한 건 다중지성의 힘(=의리)과 시도.

다음 해에 새로운 기수를 받는다면? 올 해의 경험을 잘 리뷰해야겠지요?

따로 또 같이 가는 방식도 좋을 듯하고. 같이 모여 공통으로 하는 일과 그룹별 다른 할 일? 아님, 기존 멤버들은 새로운 멤버와 벼농사를 중심으로 모여 일을 나누고 경험들을 공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보고!!

농사학림, 지극히 개인적인, 어쩌면 보편적인 진로 상담 요청

신소희 /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돌, sososohada@gmail.com

오늘의 시작을 미루고만 싶어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날, 가끔 첫차를 탄다. 새벽 버스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다. 대개 배낭을 메고 모자를 눌러 쓴, 작업복 바지를 입은 4~50대 아저씨들이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표정이 없다. 아저씨들은 북정동이나 수진리 고개에서 내리신다. 차창 밖으로 아저씨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를 나누거나 당신들을 일터로 데려갈 봉고차를 기다리며 서성이는 모습이 보인다. 성남 태평동 일대의 새벽 인력시장은 서울 신정동, 영등포역 일대와 더불어 수도권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그렇게 가끔 새벽 인력시장 풍경을 볼 때면 묘한 반가움과 더한 두려움, 그리고 아주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그 무표정한 얼굴들이 웃거나 얘기할 때, 혹은 어린 자식을 대할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보았기 때문이다. 그 분들의 아이이기만 했을 때 알 수 없었던 하루하루 일거리를 구해야만 하는 고된 삶의 무게를 어렵듯이 알 수 있을 것만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또 그만큼 열심히 잘 살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잘 살아내고 싶은 절실함이 있는지 자신할 수 없어서이다.

이 글은 아마도 이런 얘기가 될 터이다. 엄연히 말하자면 이 글은 교육농(農) 이야기가 아니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 짧은 평생을 살았다. 부끄럽지만 스무 살 때 농활을 가서야 고기쌈 싸먹던 깻잎이 바로 그 들기름을 만드는 깨의 잎이었는데 처음 알고 신기해했던 영락없는 서울 사람이다. 지금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학교를 나온 도시의 가난한 청소년들을 만나는 도시의 가난한 청년으로써 내가 살아보고 싶고,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좋은 삶이 어떤 모습인지 내내 고민만 하다가 올해 농사학림을 만났다. 설레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었던 봄, 뜨거운 햇볕 아래 달고 단단하게 여물어가는 열매를 기다리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다. 농사학림에서 농(農)적 삶, 농(農)적 진로라는 말을 처음 만나고 역시나 설레고 뜨거워진 마음으로 시작한 고민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글은 어쩔 줄 몰라 털어놓는 진로 고민 상담 같은 거다.

내가 일하고 있는 디딤돌학교는 경기도 성남에 있다. 성남은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 도시로 구시가지인 수정구, 중원구와 신시가지인 분당구로 나뉘어 있다. 디딤돌학교는 구시가지인 수정구 수진동과 태평동에 위치해 있다. 1960년대 후반 서울시의 인구과밀 해소와 불량주택 정리 방안의 일환으로 성남이 만들어졌다. 청계천변, 용두동, 마장동 등지에 살던 판자촌 주민들이 성남으로 강제이주를 당했고, 당시 가뭄이 심했던 호남지역의 농민들이 고향을 떠나 미처 서울에 진입하지 못하고 성남에 자리 잡았다. 예산부족과 건설업체의 비리 등으로 제대로 도시정비가 되지 않은 채 성남 땅은 1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체계 없이 수용하였다. 그래서 성남 구시가지는 가파른 언덕의 연속이다. 그 언덕들에는 낡은 주택들이 해변 바위의 따개비마냥 따닥따닥 빼곡히 붙어있다. 두세 사람이 걸어가면 꼭 차는 좁은 골목에 3~4층 높이의 낡은 다세대주택들이 담장도 없이 두 뺨은 뭉개 말갛 한 간격으로 줄지어 서있다. 반지하 뿐 아니라 2, 3층도 햇볕이 안 들긴 마찬가지다. 차가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골목은 그나마 대로(大路) 측에 속한다. 벌써 십 년도 더 된 재개발 소문 때문에 사람들은 녹슬고 고장 난 대문도, 비가 세는 외벽도 좀처럼 손 볼 생각을 않는다. 오히려 집값이 올라 세입자들만 살기 더 어려워지고 있다. 창턱이나 2층 올라가는 계단, 좁은 골목길에 나온 작은 화분 하나 없다. 디딤돌학교 아이들 대부분은 풀 한 포기 보기 힘든 이런 골목길에서 전깃줄로 조각조각 난 좁은 하늘을 보고 자랐다.

디딤돌학교는 1995년 수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중학생들을 위한 주말학교로 시작하여 2001년 수서청소년수련관에서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전일제학교로 개교하였다. 2003년 성남으로 터전을 옮겨 지역사회배움터를 지향하며 '학교밖청소년배움공동체디딤돌'로 다시 시작하였다. 올해로 성남에 자리 잡은 지 꼭 10년 째, 현재 30여명의 학생들과 8명의 상근교사, 20여 명의 자원활동가가 함께 계속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

디딤돌학교에 오는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이 어려운 이유들을 저마다 다 다른 모양새로 눈에 '잘 보이게' 가지고 온다. 일반학교 교육에 불만을 느끼고 자기 배움을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또는 부모의 의지로 일반 학교를 떠난 다른 대안학교 아이들과는 사뭇 다르다.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이나 받아들이고 배우는 속도가 다르기도 하고,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기본적인 생활관리나 사회규범 학습을 놓치기도 하였다.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 혹은 가족들과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서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학교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은 방임, 학교폭력, 게임중독, 분노조절 실패, ADHD, 비행청소년 등 문제가 딱지를 달았다. 예전에는 디딤돌 아이들을 이렇게 '문제아', '빈곤청소년', '학교부적응 학생' 등으로 대상화하는 인식에 대해 스스로 불편함을 느꼈다. 하지만 아이들을 오래 만날수록 아이들이 드러낸 문제에서 더욱 건강한 힘을 발견한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 다른 말로 문제 있는 사람도 없다. 자기의 어려움을 드러내어 아파본 사람은 두려워 게 없다. 누구보다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모르는 게 창피하지 않고 그냥 좋음과 그냥 '띠꺼움'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도 있다. 그의 날 것 그대로가 온전히 인정될 때, 아이들은 자기를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설명할 언어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또 한 번 넘어지는 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렇게 디딤돌에서 아이들은 씩씩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삶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 결핍, 불만족, 불안들을 드러내고 들여다보고 객관화하는 연습을 한다.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수다를 떨고, 여행을 하고, 사진을 찍으며 '개인의 내밀한 역사'를 담담하게 툭툭 내뱉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갑자기 꽃망울 터뜨리듯 울컥 쏟아내기도 한다. 그 과정을 함께하는 아이들은 자신과, 그리고 주변과 새롭게 관계 맺기를 경험한다. 결국 좋은 삶이란 그 관계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정성껏 쌓아올리는 일임을 서로를 통해 알게 된다. 디딤돌 선생님이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나는 역시 아이들이 어렵사리 보내주는 믿음의 눈빛과 아름다운 이야기의 힘으로 크는 중이다.

디딤돌에는 졸업이 없다. 학생들은 열네 살부터 서른 한두 살까지 있다. 물론 일상적으로 디딤돌 공간에서 매일 만나는 아이들의 나이는 보통 열네 살부터 스물한 살까지다. 하지만 디딤돌 학교 이후에 어떤 스물다섯, 스물아홉을 살고 있는 지 종종 만나 이야기하고, 전해 듣고 있다. 디딤돌의 첫 학생들은 나와 비슷한 또래이다. 가끔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만나 밥이라도 먹을 때면 호칭을

어찌해야 할지 난감할 때도 많다.

4년 전, 내가 디딤돌에 와서 처음 만났던 열여덟, 열아홉 아이들도 이제는 스물둘, 셋이 되었다. 그 아이들이 디딤돌에 있는 동안 무엇이 될까보다 어떤 마음과 관계들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얘기하고 준비하였다. 그 과정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인력시장에 나가서 전날 밤 함께 준비했던 주먹밥, 샌드위치 등의 아침찬을 나누며 일을 구하려 나오신 아저씨들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프로젝트도 있었다. 그때 프로젝트를 함께 했던 아이들 대다수의 아버지가 바로 일용직 노동자였다.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며 자연스럽게 과거 자기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의 삶을 궁금해 하고 이해하려고 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마음을 열어줬던 구체적인 사람이 그 아이가 꿈꾸는 미래가 되었다. 실제로 소박하고 진솔하게 살아가는 주변의 어른들을 찾아가 만나고 짧은 기간 현장에서 일을 배우기도 하였다. 아이들은 그냥 제빵사나 액션배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제빵사', '항상 열심히 운동하며 노력하는 액션배우', '어려운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회복지사', '나 같은 학생들을 만나는 디딤돌 선생님'이 되기를 꿈꿨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지금 군대에 가있기도 하고, 이미 아기 엄마아빠가 되기도 하였다. 대학에 진학한 아이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다. 선택할 수 있는 보기에 대학은 없는 경우가 많았다. 몇몇은 PC방이나 편의점, 핸드폰 가게, 오토바이 배달 알바 중이거나 계속 알바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직업훈련학원을 전전하기도 한다.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백만 원 남짓 월급을 받아 적금이나 보험을 붓고 있다는 자랑도 듣는다. 그리고 그냥 집에 있기도 한다.

아이들은 언제나 그랬듯 누구보다 더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 모른다. 함께 얘기했던 꿈들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을 살고 있는 과정 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들의 이야기를 먹고 자라는 나는 아이들이 '사실은 외롭고 불안하다', '돈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살아내는 현재를 보며 조급함과 부채감을 느낀다. 우리가 함께 얘기했던 '잘 사는 것'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위해 현재를 마지못해 살아내는 것, 그저 버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던 현실의 조건들은 잠시 잠복해있었을 뿐 디딤돌학교를 나와 세상을 만나는 순간, 벗어나기 어려운 굴레가 되어 버렸다. 경쟁사회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가며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가진 속도와 방식, 지향점이 다르다. '좋은 삶', '좋은 관계'에 대한 욕구는 가졌는데 그를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실현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인 대안이 없다. 개인의 '의지'와 '능력'의 몫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는 걸까?

그래서 '대안학교가 아닌 대안사회가 필요하다'는 말에 진심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다. 디딤돌도 학교이기보다 지역사회배우터로, 학교박청소년배움공동체를 지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머리를 모아 궁리하고, 이런 저런 일들을 만들어보지만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 물론 성남에서 비슷한 고민들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해보고 시도해보는 노력들이 참 많다. 엄기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두더지들처럼 알고 보면 같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땅굴을 파고 있는 다른 두더지들도 있음이 힘이 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함께 일을 만들어 보는 경험이 더 필요하다.

한편 나는 어떻게 살아야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야 절실했었다. 디딤돌에서 만난 아이들이 하나 둘 어른이 되어 고된 삶을 감내하고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모른 척 하고 유예해왔던 내 삶의 과제들을 발견한다. 이름만 '길잡이'교사이지 먼저 가는 건 아이들이다. 정작 디딤돌 안에서 가장 큰 보호를 받으며 아이들의 빛나는 생명력에 기대어 어른인 척 살아왔다. '열심히 잘 살고 있나?'라는 질문에 자신이 없는 건 그 때문인지도 모른다.

일단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은 먹거리를 일상적으로 먹고(사실은 좋아하고), 운동도 잘 안한다. 천천히 오래 걷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지 못하는 핑계 거리는 참 많다. 잠자는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늘 바쁘다. 쌓여만 가는 일들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소한 일로 화가 나기도 한다.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말하지만 그 믿음이 진심이 아닐 때도 있다. 그리고 아이들이 미울 때도, 너무나 혼자 있고 싶을 때도 많다. 아이들 일, 학교 일로 마음을 쓰다가 그런 꿈이라도 꾸는 날이면 억울하기까지 하다. 불필요한 소비와 도시적 욕망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커피 마시고 택시를 타는데 꽤 많은 돈을 쓰기도 하고, 계절이 바뀌면 예쁜 옷도 사고 싶다. 올 여름엔 밀양 소식에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에어컨을 얼마나 틀었는지 모른다. 가끔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 하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면서도 나는 정작 매일 샤워하면서 물을 펄펄 쓴다. 집에 조금의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한 것도 얼마 전의 일이다. 지금 학교에서 받는 월급으로 도시에서 독립적인 주거와 생활을 유지하는 건 아끼고, 아끼고, 또 아끼면 가능하겠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실은 그렇게 아등바등 살 자신이 없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의 의식과 생활이 멀어짐에 따라 마음의 빛은 점점 불어났다. 그래서 작은 바람에 진심마저 흔들리는 날들도 있다. '지속 가능한' 삶의 규모와 방식'이 필요하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십대가 되면서 누군가 내게 꿈을 물으면 그냥 별 고민 없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시골에 내려가 작은 학교를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실은 그에 대한 별다른

열정이나 포부는 없었다. 나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 시골살이는 전혀 몰랐고, 대학 졸업을 코앞에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기 전까지는 내가 선생님이로 살 것이라 생각하지도 못했다. 어쩌면 또 관념적으로 배운 허영이었을지도 모르고, 몇몇 사람들의 반응처럼 안 살아봐서 뭘 모르는 낭만적인 이상이이었을지도, 혹은 치열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듣기 좋은 대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나의 삶은 도시에 있었고, 그 밖에는 상상할 수 없었으므로.

하지만 진지하게 다시, 나는 언제 온전히 스스로 가장 행복했을까 자신에게 물었을 때 문득 생각나는 풍경이 있다. 스물 두 해 여름, 몇몇 친구들과 한 달 동안 도보여행 중이었다. 도로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눈앞에 산이 서있었다. 큰 산. 수천, 수백만 개의 나뭇잎들이 햇빛과 바람에 반짝이며 짙랑거리는 모습이 갑자기 발견한 엄청난 신세계처럼 느껴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든 생명들 - 나무, 풀, 꽃, 그림자, 작은 새, 벌레, 작은 돌, 또 이름 모를 무엇 - 을 품고 있는 산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다. 산과 나무와 바람,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은 너무나 흔한 말이라 늘 교과서나 노랫말에 등장하고, 또 매일 보던 것이라 여겼지만 개념이 아닌 실재(實在)로 만난 건 처음이었달까. 매일 그런 풍경을 한없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개념들을 실제로 만나며 느끼는, 관계의 확장에서 비롯한 순수한 삶의 기쁨 같은 것이 참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농사학림에서 새로 만나는 언어들, 경험들이 수년 전 보았던 여름 산 같다. 씨앗에 얽힌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시 보이는 세계와 몸으로 익히는 삽질, 숨 쉬는 생명으로서의 흙과 풀, 벌레들의 발견, 땀 흘려 함께 일하는 기쁨이나 역시 내가 관계한 땅과 작물, 몸으로 느껴지는 계절의 흐름 같은 것들, 그리고 좋은 이웃과 벗으로 이러한 경험들을 나누고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부러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활과 욕구들을 다시 디자인하고 연습할 수 있는 환경.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지속 가능한' '삶의 규모와 방식'은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농(農)적 삶인 것 같다. (아직은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나의 언어가 아니라는 부끄러움으로 작게 쓰고 싶었다.)

그래서 속제는, '그럼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까'이다. 결국 함께 고민했던 어떻게 살까의 문제는 삶으로 살아 보이는 수밖에 없다는 걸 사실은 진작 알고 있었다. 내가 선택하려 하고, 좋은 삶으로 여기는 것이 농(農)적 삶이라면 그 가치들을 반걸음 뒤의 아이들에게 내 방식대로 전하고 살아내 보이는 것이 길잡이 교사의 역할이다. 진짜 선생님이 될 마음이 이제야 생긴 것 같다.

'일단 올해는 이렇게' 농사학림에 참여하며 고민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언어로 이런 고민들을 주변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거침없이 던지고 있다. 따뜻한 격려나 조언들

도, 약간의 걱정들도, 그리고 더 제대로 고민하고 구체화하라는 - 다른 말로 네 생각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 충고들도, 고민만 하지 말고 당장 움직여 몸으로 살아보라는 지지(?)들도 모두 고마울 따름이다. 하지만 '일단 올해는 이렇게' 조금 더 내 생각들을 들여다보고 언어화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한편으로는 학교 거실과 계단 창가에서 화분 텃밭을 가꾸고, 성남시 농업기술센터에서 7~8평 쯤 되는 밭 한 덩이를 받아서 그야말로 굉장한 경험을 해보고 있다. 직접 심고 가꾼 채소들을 먹을 수 있고, 주변과 나눌 수 있는 기쁨도 있지만 작물 하나하나의 이름과 생김을 알게 되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도 참 경이롭고 근사하다. 작은 플라스틱 컵과 화분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보며 끈질긴 생명력을 느끼는 한편 햇빛과 호흡, 땅의 힘이 무엇인지 직접 눈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다. 텃밭에다가는 잔뜩 옥식 부러 작물들을 가깝게 심어놓은 탓에 옥수수 옆에서 햇빛이 모자라 죽어간 근대와 서로를 밀어내 쓰러지며 자라는 토마토들, 호박잎의 습격을 받아 사라진 수박, 도무지 밭 디딜 틈 없는 고구마밭, 또 게으름으로 때를 놓친 모내기 등 아주 다양한 실패의 경험을 했다. 내년을 생각하면 역시나 참 고마운 일이다.

이 모든 경험들 중의 제일은 밭을 빼앗긴 경험인데 얼마 동안은 너무 화가 나서 그 일을 꺼내고 싶지도 않았다. 여름작물 수확이 끝날 즈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의 학교들이나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들에게 나눠준 밭을 일괄적으로 갈아엎어버린 것이다. 그동안 부지런히 딸기, 오이, 가지, 상추, 깻잎, 단호박, 참외를 수확해 먹긴 했지만 아직 많이 남은 옥수수, 수많은 토마토들, 그리고 무엇보다 고구마. 날이 뜨겁고 가물어서 두 번씩이나 심은 고구마밭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실은 무, 배추를 심기 위해 밭을 갈 예정이니 수확을 해달란 문자를 받긴 했다. 그렇다고 멀쩡히 잘 크고 있는 고구마밭까지 갈아버리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며칠 후에는 그 자리에 비닐멀칭을 해서 일괄적으로 배추를 심어놓았다.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얘기하니 "그동안 잘 관리하셨어요?", "일괄적으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었어요." 하는 반응.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화내는 법을 배우지 못해 직성이 풀리게 화도 못 내고, 화를 낸다 해도 고구마밭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결국 다른 땅 한 덩이를 준다는 말에 잠시 고민하다가 치사하지만 받았다. 고맙지는 않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를 아이들이 보고 있다. 아직은 나도 처음 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준비가 되지 않아 '같이 해보자'는 아니었는데 결국엔 함께 하고 있다. 나중엔 창가와 계단 화분에 물을 주는 일도 다른 손이 할 때가 많았고, 학교에서 키우게 된 달팽이 먹이를 가져오라는

채근으로 나를 텃밭으로 보내는 것도 아이들이었다. 밭을 갈거나 작물을 심을 땀, 맛있는 참을 미끼로 아이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같이 가기도 하고, 상담을 핑계로 함께 학교를 나와 텃밭에 데려가기도 하였다. 점심시간 식탁에 앉아 나누는 세상 이야기들도 달랠졌다. 먹거리나 기후변화, 구제역, 4대강 등 그 전에도 똑같은 주제로 수업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었는데 어느 새 수업이 아닌 일상에서 다른 관점과 온도로 말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며칠 전, 일 년 만에 찾은 내 성천의 금강마을이 그러했듯이 '한낮 뜨겁게 달궜었다 조금 식은 듯한' 나의 언어가 아이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깊숙이 가 닿는 상상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작게 텃밭을 가꾸거나 창가나 계단에 화분을 내놓고 정성껏 키울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올해의 이런 고민과 경험들이 내년에 어떤 형태로 실현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실은 당장 농촌으로 내려가 전면적으로 살아보고 싶기도 하다가 앞에서 투정은 많이 했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재밌게 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연결해야 하나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지금 성남에서, 아이들과 나의 현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상황들과 실천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한 게 아직은 올해니까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어쩌면 보편적일지 모르는 진로 고민들이다. 그리고 한편 '이렇게까지 고민이라고 주저리주저리 떠들었는데 설마, 내년엔 뭔가 하고 있겠지'하고 스스로 의지를 다지려는 의도가 있음은 약간의 반전이랄까. 부끄럽다.

2. 대안학교 농사교사 모임 : 교육 농(農) 생산자 협동조합

가) 개요

대안학교 농사교과 담당 교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농사 담당교사는 아니지만) 농사 교육 전반에 관심을 가진 교사들도 함께 참여한 자리였다. 실상사 작은학교, 산돌학교, 느티울 학교, 간디학교, 성미산 학교, 페다고지, 칠보산 학교, 풀무 학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 대부분이, 학교에서 교육과 농사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농사 담당교사들인 만큼 농사철에는 만나지 못하고,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을 이용해 만남을 가졌다. 서로 만나 자신의 고민과 사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공동 프로젝트(치킨 트랙터, 협동조합)를 정해 그 실천 결과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나) 활동 내용

교육 농(農) 연수회는 크게 현장 사례 나누기와 프로젝트로 진행 되었다. 프로젝트는 다시 개별 현장 프로젝트와 공동 프로젝트로 나누어 진행 되었다.

첫째, 현장 사례 나누기는 학교 별로 농사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중점과 관심을 두고 있는지, 수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고민과 질문을 안고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

누는 자리였다. 우리는 이 자리를 통해 자기 현장을 넘어서 다른 현장의 실천과 고민을 듣고 나눌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현장을 다른 눈으로 다르게 바라 볼 수 있었다. 둘째, 프로젝트는 각자 현장에서 무엇을 새롭게 또는 지속적으로 시도하는지 밝히고 그것을 학기 동안 실천하고 그것을 기록하여 다른 참여자들과 공적으로 나누기 위해 시도 되었다. 공동 프로젝트는 사례를 나누는 과정 속에, 각자 열심히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일년 동안 각자의 현장에서 시도해 보고, 그 과정과 결과를 나누자는 의견이 나왔고, 그것을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올해는 ‘협동조합’과 ‘퍼머 컬처(치킨 트랙터)’가 공동 프로젝트 주제로 시도 되었다.

활동명 (일 시)	활동 내용	비 고
겨울 연수회 (1.6~8)	첫째 날에는 서로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장의 상황과 사례를 나누었다. 참여자들이 각자의 상황과 자리에서 ‘농사’를 어떤 관점과 관심으로 보는지, 교육적으로는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산청 간디학교 실상사 작은 학교, 산돌학교, 교육 농(農) 연구소가 주제, 사례 발표를 하였다. 둘째 날에는 주제를 나누어, (월드카페 방식으로), ‘모임을 어떻게 이어 갈지’, ‘농사 교재 만들기’, ‘농적 진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여름 방학에 모임을 약속하고 학교별 프로젝트와 공동 프로젝트(협동조합, 퍼머컬처)를 실천하고 과정과 결과를 나누기로 하였다.	-실상사 작은학교 -산돌학교 -간디학교 (산청, 금산) -민들레 학교 -칠보산자유학교 -성미산 학교 -풀무학교 -교육농연구소 -페다고지 -대안교육연대 -순청사랑어린이학교
여름 연수회 (7. 27일~28)	겨울 연수회에 이어, 각자의 현장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공동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모임의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한 방안과 서로의 고민과 현장의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었다.	-실상사 학교 -산돌학교 -금산간디학교 -페다고지 -칠보산자유학교 -교육농 연구소 -성미산 학교
겨울 연수회 2013. 1 중	(2013년 1월 둘째 주 예 정)	12월에 예정하였으나 학기말인 관계로 방중인 1월로 하순으로 연기

사) 세부 내용

모임을 열면서, ‘교사이자 농부로, 그리고 무엇보다 ‘작가’로 우리의 모임과 자기 현장 이야기

를 성실히 기록해 나누자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참여자 대부분이 학교에서 농사를 담당하고 있고, 농사 외에도 학교에서 여러 업무와 일을 담당하는 있는 바쁜 형편이라, 처음의 기대 만큼 서로의 ‘기록’을 나누는 일은 하지 못하였다. 그런 결과로 함께 한 모임 외에 일상적으로 활동한 결과물이 여기 보고서에 충실하게 옮겨지지 못한 점이 무척 아쉽다. 이후 모임의 과제가 아닌가 싶다.

겨울 모임

자신의 현장 이야기를 나누며 지금 농사 교육에 대한 (조금은 다르지만)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하였다.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해볼 수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었다.

- 농사 교육이 아닌 교육 농

이제 농사 교육이 아닌 교육 농(農)이라고 말하고자 합니다. 교육 농(農)은 아직 구체적 '내용'이 기보다는 '좌표'입니다. 농사 교육에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교육적 상상력을 던지자는 제안입니다.

교육 농이라는 표현은 그동안에 농(農)을 주제와 소재, 내용으로 하는 교육이 '농사를 교육'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었지 교육의 눈으로 전인의 눈으로 통전의 눈으로 농(農)을 바라보고 접근하는데에는 소홀했다는 문제제기를 담고 있습니다.

'농사가 중요하니 농사를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관성과 당위를 비워내고 교육 본질에서 다시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농사를 기술교육, 노작교육, 노동교육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해 온 농(農)에 깃들어서 있는 전인성, 통전성, 인문성, 생태성, 역사성 등을 폭넓게 사유하고 탐구해보았으면 합니다.

- 어떤 농사로 교육과 접속해야 할까?

교육과 농이 새롭게 접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기적으로 다시 관계를 맺고 교육과 삶의 맥락에서 농적인 가치와 전망이 탐색되어야 합니다.

삶의 방식로서의 농(農)
접속되어야 하는 농은 산업의 방식로서의 농업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서 농(農)입니다. 태양에너지와 땅에 기반하고 '소농'을 중심 한 자급적이고 자립적이며 자치적인 (그래서 자유한) 삶의 단위와 방식을 꿈꾸는 농(農)입니다.

유기 농(農), 원예적 농(農), 디자인적 (퍼머컬처) 농(農)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탈석유가 가능하고 적정규모 지역단위, 마을 단위에서 순환과 자급이 가능한 유기 농(農)이며 (한편 교육에 유리하고 적합한) 원예적 규모와 방식에 농(農)이고 디자인적 농(農)입니다. 교육에 보다 적합하고 유리한 농(農)은 생산력을 중심에 둔 생산 농(農) 보다는 다양한 작물을 집약적 방식으로 기르고 가꾸는 원예 농(農)입니다. 그리고 노동집약적, 에너지 집약적 농사가 아닌

디자인 집약적에 퍼머컬처 계열의 농(農)입니다.

- 학림(學林)을 이루어

자기 현장에 뿌리를 내리 되 울타리를 넘어 협력하고 협동하여 교육 농(農)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실현했으면 합니다. 교사로서 농부로서 작가로서 활동하였으면 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을 잘 활용해 일상의 기록을 나누고, 일년에 두 번 여름과 겨울에 직접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겨울에는 한 해 농사계획을 공유 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민과 질문도 이야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함께 공동수업(생산자 협동조합, 퍼머컬처 수업)을 기획하고 함께 실천해 본 후 다음 모임 때 나누는 일도 하였으면 합니다. 여름에는 중간 발표이자 점검 삼아, 겨울에 했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 중에 바뀐거나 겪은 어려움이나 고민은 없는지 이야기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서로 만나 나가 보면 어떨까 합니다.

- 기타 : 소감문, 실상사 이영준 선생님

대안학교 교사 한마당에서 농업교사 모임을 하고 겨울에 풀무에서 모임을 갖자고 이야기 하고 난 뒤 가는 세월도 훌쩍 벌써 풀무에 도착을 했다. 기차역에 도착하니 마침 산돌학교 샘이 전화를 주셔서 샘의 차를 얻어 타고 같이 맛난 순대국을 먹고 풀무학교에 왔다. 이내 첫 모임이 시작되고 반가운 얼굴, 처음 뵈는 얼굴들 가슴이 설렌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고 모임의 취지에 대해 교육농 연구소 박형일 샘의 소개를 듣고 이어서 산청간디 학교 샘의 농사이야기를 들었다. 이 샘은 교사한마당때 오시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이 산청간디 학교 샘이 경력이 10년이 되고 농업교제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섭의를 했었다. 역시 풍기는 포스 사뭇 농부의 향기가 난다.

산청간디 고등학교는 2반 20명씩 총 120명이고 교사는 16명 강사 샘은 60명이나 된다. 1학기 때 개인텃밭 작물선정과 작물조사 발표를 한다. 이때 필수 조사내용은 작물 작업별 타임테이블이라고 하고 이 작업테이블을 보면서 상담을 한다. 2학기 때는 무 배추를 심고 (400포기 이상)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1년 내내 채소를 재배한다. 즉 늦가을에 쌈채류와 시금치등 씨앗을 파종하면 이곳에서 싹이 나고 겨울을 보내고 날이 풀리면 바로 올라오므로 개학과 동시에 봄채소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여름작물도 심는데 계절학교를 6차례를 하므로 이 학생들과 노작활동으로 여름작물을 관리한다. 처음에 유기물이 거의 없이 척박하던 땅들이 지금은 유기물이 7%이상 나온다고 하니 진정한 농부님이다. 주로 낙엽과 왕겨로 멀칭을 해주면서 유기물을 공급하고, 고랑에는 부직포를 깔아서 풀을 억제한다. 힘드신 점은 인가고등학교 이다보니 선지출이 안 돼 초기에는 농자재 구입에 애를 먹으셨다고 한다.

학생들은 작물을 키우고 일정한 양만큼 학생들에게 선물로 주고 나머지는 식당에 기여하는 방식으

로 처리를 한다. 그리고 학생 작물을 학교 식당에서 먹을 때는 칠판에 크게 학생 이름을 써서 학생들이 크게 만족한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박형일 샘의 말씀을 들었다. 샘은 농사교육 vs 교육농의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단순 노작만 하는 수업에서 벗어나 먹을거리교육, 경제교육 나아가 협동조합을 교육하자. 그리고 디자인 농업을 교육하여 단순 채소밭에서 벗어나 허브 채소 꽃 과실 나무등 입체적인 텃밭을 디자인 하자. 그리고 통합수업으로 토양을 실험 탐구하며 미생물과 발생물 조사를 하자. ‘우리집 녹색혁명 도시농부 더 베이스씨 이야기’와 ‘미국농부 조엘의 혁명’ 두 편을 간단하게 보았다. 다양한 외국의 농업 사례 영상도 보았는데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며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펼치는 것을 보았다.

첫날 저녁에는 동네 모두랑 식당이라는 곳에서 맛난 저녁을 먹고 옆 마을 협동조합 카페 뜰에서 앞풀이를 하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풀무 요구르트를 먹고 다른 분들은 지역 유기농 막걸리와 맥주를 먹었다. 원래 이날 카페는 휴가인데 저희를 위해 특별히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아침을 모두랑에서 먹고 동네 마실을 다녔다. 어린이집과 도서관을 둘러보고 마을 헌책방에서 가서 그물고 출판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책들을 둘러보았다. 그 다음 학교체험 빵집으로 이동해 설명과 맛난 빵을 눈과 입으로 시식을 하였다.

둘째 날 첫 강의는 풀무학교 교무담당이신 정민철 샘의 말씀을 들었다.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고 인상적인 몇 가지만 간추려 보겠다. 풀무학교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80년대 까지는 지역의 수준이 학교의 수준보다 떨어져서 이래저래 학교에서 선도하는 분위기에서 90년대로 가면서 유기농업이 확대되고 해외와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수준이 역전이 되고 2000년대 전공부가 생기면서 다시 학교의 수준이 지역의 수준을 앞지르면서 이런저런 마을의 활동들이 활성화 되고 전공부 학생들이 마을에 남아 정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공부 학교와 지역 사이에 다양한 중간조직들을 고민하고 있고 많이 활성화 되고 있다. 현재 갖골 연구소와 교육문화 단체들이 중간조직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마을에 정착하기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도 한다.

그리고 전공부는 학교의 범위를 계속 확대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풀무고등부에 안에는 제빵 도예 목공실등 다 가지고 있으면서 밖으로 나올 필요를 못 느낀다. 하지만 전공부는 목공실 빵집 연구소 등 이런저런 기관들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구성하고 독자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의 활동들은 지역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현재 어른들만을 목표로 삼지는 않고 자라는 아이들을 목표로도 생각한다. 이를테면 마을의 헌책방에 원주민 어른 신들이 오시지는 않아도 어린이집 아이들이 들락거리면서 추후 30년 후에는 자연스런 문화가 형성될 거라 생각한다.

점심이후에는 제 차례였다. 실상사 작은 학교 4년간의 농사를 돌아봤는데 4년간의 목표는 학생들이 농사에 흥미를 느끼며 스스로 텃밭을 디자인하고 1년 동안 일하며 작물의 특성을 몸으로 배운다. 또한 자치살림 시간에는 학교 공동 농사를 지으며 노동의 힘겨움과 흥겨움을 몸으로 느끼도록

한다. 이런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들을 하며 배움이 일어나도록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려고 한다.

두 번째는 산돌학교 샘의 농살림 수업 소개를 들었다. 학기당 3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1. 내가 키운 배추로 봄김치 담기 2. 메주로 장담기 3. 뿌리채소 열매채소 잎채소 가꾸기

4. 윤리적 소비 공모전

가을학기에는 약이되는 가을절기음식을 수행한다.

저녁에는 주제를 세 가지로 간추려 자유 모둠 논의를 하였다. 1. 이 모임의 주제와 형식을 고민 2. 농업 교재, 수업모형 연구 3. 농적진로 이야기 . 처음에는 다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모둠별로 흩어져서 20분씩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이 되면 자기가 관심 있는 모임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이였다.

농업교재 모임에 대해 간추려 보겠다. 우선 과학 농사 통합수업을 진행하고 싶다. 그리고 농업교과샘과 다른 샘들과 공유회의를 하면서 농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싶다. 그리고 농업교재에 한 부분으로 개인텃밭 유형에 대한 구체적 수업 모형이 필요하다. 교사가 준비해야할 타임테이블과 밭 디자인 작물배치 조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작물별 작업테이블, 수확물 나누는 방법, 모둠할 때 주의할점, 농사일지 쓰는법 등 구체적인 팁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리고 교재에 천연살충제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소개하고 아이들의 동기 유발하는 방법들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별 프로젝트 수업모형을 신자. 산돌학교 모형과 작은 학교에서 하려고 하는 모형들(밭 논 생물 조사 프로젝트, 양계, 퇴비 만들기, 퍼머컬처 디자인, 일 년 논 작업 프로젝트), 그리고 기초이론으로 생명의 순환원리와 유기물에 대하여. 다양 한 소책자 - 작물, 퇴비, 생태화장실 실재 구현, 세시풍속 절기 소책자) 농업교사 아닌 분들과 통합수업, 농사일지 쓰는 법, 디자인 집약적 농업의 실제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 다음 아침에 다들 모여 모임의 후속예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임의 이름은 교육농 생산자 협동조합으로 정했고, 운영위원으로는 교육농 연구소의 박형일, 산돌학교의 한선혜샘, 실상사 작은 학교 이영준 이렇게 세분이 하시기로 했다. 다음 모임의 날짜는 확정은 못하고 2월말 서울에서 모이기로 정리하고 풀무 연구소에 가서 여러 가지 해외 농기구들 둘러보고 점심을 먹고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개인적인 소감은 농업교사 첫모임으로서 많은 이야기와 고민들 그리고 이런 고민들을 장기적으로 나눌 조직을 꾸려서 마음 뿌듯함이 크다. 여러 대안학교 사례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부분 배웠고 더 풍성한 배움을 실험할 자신이 생겼다. 또한 혼자서는 어려운 교육농 가치 정립과 교재 만들기를 과제로 긴 호흡으로 고민할 동지들이 생겨서 기쁜 마음이다. 누구의 말처럼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을 뛰는 마음자세로 과실을 기다리는 소비자가 아닌 스스로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농부의 생산자의 마음으로 걸어간다.

여름 모임

- 사례 발표

칠보산 자유학교

대안학교에서 농사수업을 경험한 학생들, 특히 졸업생들로부터 다시는 농사를 안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곤 한다. 그럴 때마다 농사 수업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된다. 선생님들이 장화 신고 밭갈이하고 아이들 손 잡고 농사수업 가는 모습을 보며 일부 학부모들은 '가식적이다. 농사가 얼마나 힘든데...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도 없는 사회구조' 등에 대한 여러 평가와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럴 때 그런 학부모들과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지, 내 자신의 농사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 질문이 든다. 그런 고민과 질문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다. 텃밭수업을 진행하면서는 생태적 감성, 생명의 철학이 몸에 배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초등과정의 아이들과 농사를 함께 짓고 있기 때문에 '감성'과 '재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의 함께한 농사일지 나눔)

실상사 작은학교

주 1회, 교사와 학생 전체 자치살림(1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났다. 작업장, 빵만들기 나무다루기 옷만들기 작업을 월요일 하루 전체로 배치했다. 세상보기 이동수업이 4월 말~5월 초(15일 간)로 이동되어 농사에 지장을 주게 되어 못자리 만들고 이웃 학부모에게 맡기게 되었다. 언니네 수업 7월 출발한 해외이동수업을 겨울로 옮기고 농사에 전념하기로 하였다. 나눔협동조합의 날(매월 마지막주 하루)에 지역 활동가,스님,학생 전체 울력으로 모내기를 하였다. 협동조합 프로젝트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3월 특집)' 내용을 나누고 작목반 만들고 농산물을 협동의 방식으로 생산, 판매해 보았다. 축제 때 요리해서 판매하고 수확량의 20%를 기부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익은 공동을 위해 사용하기로 하고, 협동조합 총회를 통해 원칙을 확정하고 감사와 고구마 작목반 결성했다. (축제 감자요리 154,000 판매 수익 올리고 장학금으로 41,000원 기부.) 하지만, 협동조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몇 가지 고민과 의문이 들었다. 하나는 공동 농사, 생산과 판매 등 활동은 그 전에도 하던 것이다. 협동조합 방식은 뭐가 다른가?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 그 밖에 화단만들기 '원예도감' 보면서 시도하고 있고, 언니네 수업 하면서 어느 해보다 빠르게 했는데 학생들 성취감 높았다. 하면 할수록 농사는 교과과정의 일부라기 보다 생활의 한 부분을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산돌 학교

1,500평의 학교 경작지에서 비닐멀칭없이 농사 짓는 것이 아직 어렵다. 적정규모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있다. 올해는 겨울에 소개한 농살림 수업을 지속하고 있다. 학생들의 참여와 평가가 긍정적이다. 농사를 농업이 아닌 살림의 계열과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공동프로젝트로 '치킨트랙터'를 해보고 있다. 진항하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계속적으로 보완해 보려고 한다.

금산 간디학교

농사가 선택수업인데, 선택하는 학생이 적고, 선택한 학생들(기초 5명, 심화 3명 선택했다.)도 움직

임이 소극적인 편이다. 올해 가정텃밭, 식당 납품을 중심으로 했다. 치킨 트랙터를 시도해보고 싶었으나 여력이 안되어 2학기 때 시도해 보려고 한다. 틀 두둑을 사용했을 때 토질이 개선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 이후에 화훼와 채소를 함께 농사 짓는 채소정원과 완주 지역을 함께 견학해 보면 어떨지 제안해 본다. '물의 정원 사토야마' 영상을 보면서 사람과 자연,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이유를 찾았다. 둠벙, 작은 연못을 만들어 다양한 생태 관찰지를 만들며 원예적인 농사에 대해 계속 연구하며 시도하려고 한다.

페다스쿨

페다스쿨 친구들과 삼동마을 주민 4명, 매주 금요일 발일,농일 시작하고 있다. 1학기 때는 '농부의 철학듣기, 감자심기,논갈기,모내기,감자수확' 등을 하였다. 모내기를 끝나고 보니 길가에서 봤던 논과는 다른 우리 논이 모습에 뿌듯했다. 2012다다농활 '농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패션쇼,마을 어르신의 삶 나누기, 농민운동사, 밤술걸기, 불타는 농활의 밤, 서정홍 농부시인 만나기, 명상과 100배, 농민가와 춤, 쌀과 민주주의, 허수아비 만들기, 수제비잔치, 영암사지 답사 등을 진행하였다. 이후에는 배추심기, 벼수확, 마을잔치, 지역 신문에 농민 인터뷰를 연재하여 농적가치 확산에 노력, 1년 농사 나눔, 자연농법과 힘 들이지 않고 농사 짓는 농법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천해 보려고 한다. 현미채식 식당 운영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다. 페다고지는 노동자교육단체가 문화공간으로 변신, 청소년 문화활동 중인 곳이다. 농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물질 기반을 만들기 어렵다. 지역의 어른들과 기관들이 공적으로 기반 조성하는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성미산학교

평창 (구)재산초등학교에 농장학교를 시도하고 있다. 1년 과정으로 (감자씨묻기~김장까지) 방학은 없고 농사 이외에 다른 수업 없이 시작하였다. 키워드는 순환과 자립이다. 전담교사 개인적 사정으로 전임이 불가능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있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주변에 유기농 하는 농가나 찾아갈 스승이 없다는 것도 어려운 점이다. 의미있는 시도이고 실험이지만, 학교 차원에서도 올 한해를 지내보고 제대로 된 평가 속에서 이후를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선생님들의 조언과 도움을 바란다.

3. 교육 농(農) 연구회

가) 개요

'한달에 한번(교사 농사학림), 일년에 두 번(교육 농 생산자 협동조합)에 두 모임과 달리 좀 더 상시적으로 만나 연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교육 농(農) 연구소를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한 풀무학교 고등부, 전공부, 정농회, 갯골 생태농업 연구소 등이 모여 함께 관련 주제를 연구하고, 풀무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나) 활동 내용

프로젝명 (활동 기간)	프로젝트 내용	비고
생산자 협동조합 수업	학생들이 현장감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농사의 전 과정을 주도하여 책임져 보는' 농사 교육 수업 모형을 연구하고자 했다. 학생들이 배움을 위해 '생산자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작목반을 구성 하여 함께 농사 지으며 협동조합을 경험하고 공부하였다.	
농진로 교육	농사를 산업의 계열에 '산업 농(農)'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문화, 방식의 계열에서 바라보고, 자신의 진로와 연관이 다양하게 전망하며, 농촌적 진로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연구하고자 했다.	

마) 세부 내용

1) 생산자 협동조합 수업

- 수업 배경과 의도

학생들이 농사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무엇보다 끝까지 책임져 보는 '교육적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학생들이 농사의 전 과정을 주도하여, 협동조합 형태로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책임져 보며 농사를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이해하여 받아들이고, 그 과정 속에서 협동과 협력, 농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배우기를 기대하였다. 풀무 고등부 학생들이 활발한 동아리 활동과 밀도 있는 자치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주도하여 일을 풀어나가는데 능숙'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이런 풀무 학생들의 달란트를 농사 수업에 접목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가 개교 이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줄곧 강조하여 왔고 지역 농민들 역시도 영농조합이나 작목반을 조직해 생산과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동조합' 모델을 응용하고 접목하는 수업 '이 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농사 수업에 녹여내고, 동시에 학생들로 하여금 현장감 있게 농사를 익히고 배우며 지역 농민들과 지역 단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국내와 해외에 관련 사례를 탐구해 보니, 국내에서는 풀무학교가 초기부터 '구관부' (소비자 생협)를 설치해 학생들로 하여금 협동조합을 교육적으로 경험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으며, 미국에 M.L middle school(Califonia)의 경우, 학교내 coop을 결성해 학생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공적인 방식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그 외 일본, 유럽에도 다

수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국내는 그 사례가 드물었으나 세계 여러 곳에서 협동조합이 여러 형태와 방식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되고 응용되고 있었고, 이를 농사수업과 ‘생산자 협동조합’ 방식으로 연결지어 보고자 하였다.

이런 의도와 배경을 가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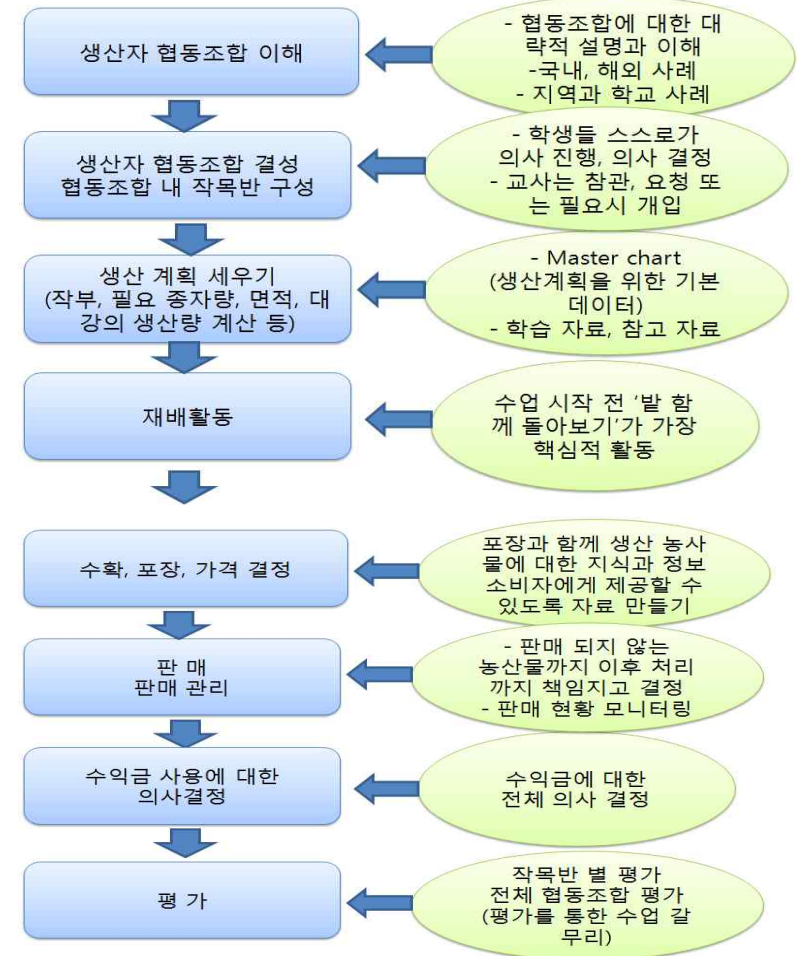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작목반을 구성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농사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져 보는
생산자 협동조합’ 수업을 계획하게 되었다.**

- 수업 개요와 내용

- * 여는 이야기 : ‘내가 왜 이 수업에 참여했는가?’ . 수업에 전체의 흐름과 ‘몸으로 하는 공부’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 생산자 협동조합 소개와 설명 : 학교, 지역의 다양한 형태와 방식에 협동조합 사례 소개
 - * 생산자 협동조합 결성, 작목반 구성 (4명씩 총 4개 작목반 구성)
 - * 작목반 별로 작부 계획 세우기 (교사는 다양한 자료와 함께 필요 종자량, 생산량, 필요 면적 등 기본적 데이터 제공)
 - * 전체 작부 발표 (생산계획 공유와 생산물품, 생산량 조정)
 - * 발 디자인, 발 만들기
 - * 재배 활동 (함께 발 돌아보며, 지금 시기에 필요한 농사 일 나누기, 관찰 내용 함께 이야기 하기. 교사는 작물의 상태와 그때의 시기에 따른 농사일 설명. 작목반별로 돌아가며 순회 지도와 동기부여)
- 재배활동에 있어 핵심적 활동은, 수업 시작 전 함께 작목반별로 함께 발을 돌려, ‘다른 작목반 활동을 공유’ 하고, 작물 상태를 관찰하고 교사와 질문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오늘의 농사 일을 찾아 내고, 함께 일머리를 세워 농사일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사는 순회하며 적절한 지도와 피드백, 동기 부여를 한다.**
- * 수확, 판매, 유통: 학생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적기에 수확해 포장 후 가격결정 판매 (1학기:풀무 학교 생협, 일본의 직매소 방식 시도/ 2학기: 풀무 축제, 흥동 거리 축제 : 농민장터 방식 시도)
 - * 수익금 분배/운용 : 수익금을 어떻게 공적인 방식으로 운용하고 활용할지 결정. 교사는 논의

과정을 참관하되 의사발언하지 않으며 (요청이 있으시 도움 발언 가능) 의사결정은 학생들이 전거로 알아서 하도록 한다.

- 생산자 협동조합 수업 모형 (2012)



- 기타

* 이후 풀무학교 생협과 보다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꼭 농사수업이 아니어도, 학

생들에게 ‘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을 교육적으로 접근하는데, 지역으로 나와 있는 학교생 협이라는 조직이 좋은 현장 배움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 흥동 길거리 축제는 준비 단계부터 학생들이 결합하도록 유도. 농산물 판매 보다는 공부한 내용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누는데 보다 집중하면 어떨까 한다.
- * 수업의 밀도와 강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 * 이 수업모형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조력자이며 안내자, 하지만, 수업 전 과정에 있어 ‘긴장감’과 ‘현장감’을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 학생들이 농사의 전 과정을 주도하고 집중력을 잃지 않고, 책임져 보는 것이 이 수업 모형의 핵심적 부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학생들이 수업의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몸으로 밀어올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교사는 어떤 방식과 내용의 자극과 도움을 주어야 할까? 이후 연구과제이다.

2) 농(農)진로 캠프

- 수업 개요와 내용

농(農)적인들 뿐만 아니라, 촌(村, community)적인 것들의 교육 가능성을 탐구해보고자 했다. 무엇보다 진로교육을 우리의 관심과 연결 짓고자 했다. 그동안 지역 이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현장’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진로 교육과 연결 짓지는 못했다. 풀무 고등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 중 ‘진로 시간’과 방학을 이용해 ‘캠프’ 형태로 농(農)적인 진로 교육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농진로 캠프를 진행한 박은빈(교육 농 연구소)의 소감문을 세부 내용을 대신해 옮기고자 한다.

농촌에서 농사만 짓는다고? 우린 꿈도 짓는다!

- 농(農) 진로 캠프 ‘길을 찾다. 길을 묻다.’ 그 후

농(農) 진로?

내 나이 스물넷.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내 또래들을 둘러보면, 도시의 반경을 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빙빙 돌고 있다. 그들 가족의 역사는 대개 조부모 세대부터 ‘먹고살기’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에 왔거나, 그게 안 되면 자식들을 도시에 있는 대학에 보내며 위안을 삼았다. 그렇게 지금 20대들에게 농촌이란 곳은 가끔씩 부모들이 향수에 젖어 꺼내 보거나 설날 때나 찾아가는 시골집일 뿐, 더 이상의 관계를 맺기엔 너무나 먼 곳이 되어 버렸다. 농촌의 모습은 또 어떠한가. 돈이 없으면 소외되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기까지 한 사회 구조에서 농업은 마지못해 찾는 돈벌이 기술로 전락하였고, 농업이 근간인 농촌에는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과 ‘어떻게 하면 도

시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아이들만 남았다.

그런데 ‘농(農) 진로’라니. 도시에서는 농촌에서는 어려모로 다루기 어려운 주제임에 분명하다. 참고로 나는 이 글에서 첫 번째, ‘농 진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그 범주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농’에 대한 이미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걸 꼭 강조하고 싶다. 농촌에서 살거나 농사를 짓는 것만이 농 진로가 아니라는 것이다. 농 진로는 아마도 농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마음껏 품는 것이 아닐까 어림짐작해 본다. 두 번째, 농적인 삶이 왜 이 사회, 이 시점에 이야기되어야 하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다. 다만 어쩌다 교육농(農)연구소에서 풀무학교 고3 친구들과 농 진로 캠프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하자면, 그 시작은 나와 풀무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다.

나는 도시에서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다. 그러다 부모님의 소개로 풀무라는 신세계를 만나 농촌에서 살아가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농촌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까?’ 고민하다 보니 풀무에서 3년 동안 복지부 활동을 하며 내내 나를 따라다닌 ‘복지’란 주제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 말고 별다른 상상을 하기 어려웠던 난 사회복지학과를 갔고, 마음껏 복지에 대한(결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공부를 했다.

복지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가진 건 지역 복지와 주민 조직이었다. 그런 내가 풀무학교가 있는 흥동을 한 사례로서 들여다보게 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리하여 대학을 다니는 동안 종종 흥동을 방문하였고, 마을 분들과도 자연스레 관계가 만들어졌다.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때쯤 짐을 싸들고 흥동에 내려와 촌년 살이를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은 교육농(農)연구소에서 일하며 농의 정서를 몸으로 배우고, 그것을 다른 청년, 청소년들과 나누는 작업을 하며 지내고 있다. 나 또한 농적인 삶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가까이 있는 풀무학교 고3 친구들이 한창 고민하고 있는 진로 문제와 나의 이야기가 자연스레 연결되었다.

“고3이 다 그렇지 뭐.”

“그래도 우리는 좀 다르지 않아?”

열아홉 살과 스무 살의 사이는 불안감, 조급함, 막막함으로 가득 메워져 있다. 곧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 앞당겨지며 긴장감은 점점 고조된다. 대학, 공부, 먹고사는 문제, 취업과 같은 고민들은 충남 흥동 시골 바닥에 있는 풀무학교 고3도 피해 갈 수 없다. “너는 진로가 어떻게 되니?”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것이 최악의 질문이자 금기어와 같다고 말한다. 진로는 그만큼이나 지긋지긋하고 숨이 턱턱 막히도록 조여 오는 무엇인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확실한 그림을 그려 놓아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잘 안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걸 가지고 먹고살 수 있을지 자신이 없고, 3년 동안 풀무학교에서 지내며 배운 농촌과 농을 내 꿈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는 게 친구들의 고민이다.

이쯤에서 풀무학교 친구들에게 농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 건지 궁금할 만도 하다. 풀무학교의 정확한 명칭은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이다. 굳이 기나긴 명칭을 밝힌 까닭은 풀무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농’임을 말하기 위해서다. 풀무학교 아이들은 3년 동안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밭농사, 논농사 이외에도 가족을 기르며 농을 만난다. 이를 통해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으며 자연과 마을과 더불어 살아야 함을 배운다. 그러니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데 농을 빼놓을 수가 없다. 꼭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당위적인 분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풀무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학교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탓에 정작 학교가 속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 농촌에서 살고 싶어도 무얼 하며 살아야 할지 멍뭇하게 된다. 3년 동안 학교에서 배운 게 농사이고, 농촌을 둘러보면 온통 논과 밭뿐이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것 말고는 뭘 할 수 있는지 영 모르겠는 것이다. 우리에게 농촌에서의 다양한 삶이 정말 가능한지 직접 몸으로 만나 보는 시간이 필요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다

우리는 ‘마을 분들이 머무르는 현장을 접 찾아갑니다’, ‘이야기, 생각, 장면을 적극적으로 기록합니다’ 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농 진로 캠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반짝거리는 눈을 가진 풀무학교 열아홉 살 동생들 민경, 상정, 상민, 세울, 솔비, 은소리, 예열, 정호, 현진이가 참여하기로 했고, 창업(졸업)생 회배도 소식을 듣고 궁금하며 달려왔으며, 풀무학교 한동혁 선생님이 맛있는 점심을 선물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나 뵙고자 한 마을 분들이 바쁜 와중에도 모두 기꺼이 시간을 내주셨다는 것 아닌가. 이게 다 풀무학교를 향한 마을 분들의 애정이 아닐까. 다시금 지역의 힘을 느낀 순간이었다. 지역에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어른들이 계신다. 편의상 분류를 해 보니 스무 가지가 넘는 분야가 나왔다. 출판, 농민단체, 음악, 농업, 건축, 언론, 도서관, 역사, 디자인, 자연과학, 문화 기획, 장애 아동 교육, 생활협동조합, 유통, 의료, 원예, 미술, 기계 등. 그렇다 보니 이분들을 2박 3일이란 짧은 시간 안에 만날 수는 없었다. 그래서 3명씩 나누어 각각 5-6명의 마을 분들을 만나 집중적으로 인터뷰를 하도록 했다. 마을 분들에게 자기 삶을 주제로 강연을 부탁드리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고,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이 많을수록 자연스러운 대화가 힘들어지기에 최대한 적은 인원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진행했다.

친구들과 만난 마을 분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30-60대 어른들, 지역에 있는 20대 풀무학교 창업(졸업)생들, 친구들과 비슷한 포대로 지역에서 농사를 배우고 있는 전공부(풀무학교 대학 과정) 학생들. 일정은 만나고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기록하는 게 전부였다. 친구들은 주로 그분이 무얼 하며 사는가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궁금해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행복한 삶은 무엇인지, 먹고사는 데 문제는 없는지, 농촌에서 사는 건 어떤지, 고등부와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교류해 나갈 수 있을지 등을 마음껏 물어보았다.

그물코출판사 사장님을 만났을 때였다. 술비가 먼저 어떻게 먹고살아야 할지 걱정이 된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자 장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라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였다. 하루는 책이 팔려서 통장에 9만 원이 들어왔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 9만 원이면 담배 사고 저녁에 친구들에게 술 한잔 사기 딱 좋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90만 원이 들어왔으면 무서웠을 거라는 거다.

그물코출판사에서 일하는 수진언니를 만났을 때도 친구들의 눈이 또 한 번 반짝였다.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친구에게 그분은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자신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오랜 시간 품어 왔던 꿈은 아니라며, 우연히 마주친 일들,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즐기면서 열심히 하다 보니 우연찮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만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였다. 대개 진로를 고민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들 생각하지만, 방금 이야기는 친구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의 전환’ 이자 ‘용기’ 가 되었다. 그밖에도 농(農)생태원예조합 가꿈, 청년협업농장, 갯골생태농업연구소, 정농회, 녹색당, 흥성신문, 흥성유기농영농조합, 동네마실방 뜰, 흥동빼뚜기합창단, 동네의료상담소 등에서 일하는 마을 분들을 만났다. 워낙 많은 분들을 여러 조로 나누어서 만나다 보니 소개하기가 어려워 마침 예열이가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둔 게 있어 그중 몇 부분을 아래 옮겨 보았다.

상민 지금 마을에서 의료생활에 대해 고민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요?

동네의료상담소 누가 나한테서 도움을 받는다는 재미,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에요. 도시에서 상담을 하면 그런 걸 직접적으로 느끼기 힘들거든요. 이곳에서는 내가 아는 사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도시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행위를 돈이라는 가치로 바꿔 버리는 요즘에 돈이 아닌 관계와 재미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이 마을에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열 흥동에 사는 분들을 보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문제는 좋아하는 것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그 일을 내 업으로 삼고 먹고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농(農)생태원예조합 가꿈 좋아하게 되면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한다면 잘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죠.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건 좋은 거예요. 주변에 보면 생활 때문에 하기 싫은 직장에서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반면에 돈은 별로 못 벌지만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조금 벌어 가난하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가난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면 자기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현진 지금 선생님은 농촌에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농촌에서 사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지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청년협업농장 먼저 물어볼 게 있어요. 농촌이랑 도시가 차이가 나나요? 전 여기가 농촌인지 도시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하도 질문을 하니깐 여기가 농촌인 것 같은데, 아침에 깨면 세수하고 학교 갔다가 다시 집에 오는 생활은 도시나 농촌이나 같아요. 여기에 있으니까 농촌이 좋다고 얘기하지 만약 제가 도시에 있었으면 도시에 대해 좋게 말했을 거예요. 솔직히 똑같아요. 농촌과 도시의 긍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찾는냐의 문제죠. 저는 ‘농촌은 좋은 놈, 도시는 나쁜 놈’ 이런 도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꼭 농촌에서 살아야 하는가요?

지금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냐고도 물었죠? 하고 싶다, 하기 싫다의 기준이 뭔가요? 그게 애매

하거든요. 백날 가만히 있는다고 하고 싶은 일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흔히 자기 적성에 맞으면 하기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기 싫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미술 하는 사람한테 미술 하는 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예요. 창작을 하는 고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웬만하면 하지 말란 말도 해요.

중요한 건 지역이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필요한 일을 찾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주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에게 필요한 일을 해요. 돈이 필요하니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일들만 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주변을 좀 둘러본다면 지역이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조율하면서 하는 거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변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속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구구절절 쉬지 않고 눈을 마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세어 보니 풀무학교 학생 아홉 명을 위해 이틀간 지역에 있는 주민 서른여섯 명이 움직였다.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마을 분들의 존재가 참 든든하겠다 싶었다. 나와 내 친구들도 고3 때 이렇게 마을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내심 부럽더라.

농에 대한 오해와 이해

2박 3일간, 친구들은 농촌에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농적인 삶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다. 어찌 보면 그럴 만도 하다. 일정 안에서 ‘농’을 전면에 내걸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없었다. 그 누구도 농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2박 3일이란 짧은 시간으로 한 사람 인생이 짜잔 바뀔 수도 없다. 그렇다고 농 진로 캠프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놓쳤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농촌이 일터이자 삶터인 사람들을 만났다는 그 자체일 것이다. 대화 속 배경은 농촌이었고, 대화를 나누는 구성원들 마음 저변에는 모두 농(農)이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캠프 후에 적어 준 글 속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었다.

동네마실방 틀을 운영하시는 아저씨께 도대체 농촌과 문화를 어떻게 접목시켜야 하는 거냐고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흥동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연극을 하는 사람은 없다. ‘농촌’과 ‘연극’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 그런 질문을 했다. 아저씨가 해 주신 대답을 듣고 나는 문화와 농촌에 대해서 내가 참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평소에 농촌에는 문화가 없다고 생각했고, 어릴 때부터 농촌에 살았기 때문에 문화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사는 공간, 거기가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에든 존재하며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었다. 이미 농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여 주고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니 ‘농촌’과 ‘연극’을 잇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내가 농촌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문화이고, 그 문화 속에서 (또 그 문화를 나누는 공간인 틀에서) 연극을 하면 그것이 바로 농촌과 연극이 이어지는 지점인 것이다.

정농회에 계신 선생님을 만나고 제일 크게 받은 충격(?)은 무교회 집회나 마을 곳곳에서 정말 많이 뵈었던 분이라는 것이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용기에 감탄했다. ‘성서 안의 공동체’ 단지 그것을 좇아 흥동으로 내려오셨다는 선생님. 선생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계신다고 했다. 나는 이제껏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찾아 그것을 나의 직업으로 삼고, 그것만 보며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렸다고 싶었다. 적어도 농부라면, 아니 지역에 사는 지역민이라면, 도시인들처럼 하나에 목숨을 걸 필요가 있을까?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간다는 건 나 자신을 발전, 아니 좀 더 성숙시켜 간다는 걸 의미하지 않을까?

대화를 통해 관점이 뒤바뀌고 시야가 넓어진 모습들이 보인다. 이 친구들은 더 이상 머리로만 농촌에서의 삶을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 적어도 직접 몸을 움직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나눴으니 말이다. 이 만남을 계기로 친구들은 길을 가다 마을 분들과 마주치면 한 번 더 인사하고, 한마디 더 이야기길 나누며 관계를 쌓아 가게 될 것이다. 사실 농 진로 캠프는 어떻게 지속시킬지 보다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물론 하기 싫어서가 아니다. 고민의 방향과 목적지는 결국 지역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고등부와 지역의 연결 고리가 지금보다 더 다양해지고 강해지면 농 진로 캠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관계가 지역에 자연스런 일상이 되길 바란다.

길을 잃어버렸다.

역시 글의 마무리는 결국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나와 친구들의 고민으로 되 돌아온다. 마지막 날 밤에는 조별로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였는데, 그때 상정, 솔비, 정호가 불러 준 자작곡의 가사를 떠올려 본다.

열아홉 우리는 길 앞에 서 있네
복잡하고 귀찮고 조금은 설레었지
우리가 가진 생각들 잠시 내려놓고 시작해 버렸어
내가 가진 설렘, 내가 가진 떨림, 그리고 조금 복잡한 마음들도
조금씩 조금씩 일렁이기 시작했네
산다는 것은 결국 산다는 것이 당연한 진리를 모르고 있었네
산다는 것은 결국 산다는 것이 당연한 진리를 모르고 있었네

무더운 여름 이곳에서 만났지
서로의 다른 모습으로 꼭 같은 생각을 하진 않지만
우린 알 수 있었지 모두의 앞일을
내가 가진 설렘, 내가 가진 떨림, 그리고 조금 복잡한 마음들도
조금씩 조금씩 일렁이기 시작했네
산다는 것은 결국 행복한 것이 당연한 진리를 바꿀 수 없고
산다는 것은 결국 행복한 것이 당연한 진리를 비교할 수 없네

그렇다. ‘진로’ 라는 게 꼭 무거운 것만은 아니었다. 무거울 필요도 없었다. “어른들을 만나 보니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진로라는 건 어느 한순간에 끝이 나는 고민이 아닌가봐요.” 라는 현진이의 말에는 모두들 고개를 끄덕인다.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위 노래가사처럼 ‘살아가는 것’ 임을 다들 알아차렸나보다.

2박 3일 동안 이 캠프를 통해 저는 갈대처럼 흔들렸고 많은 생각이 변했어요. 우선, 저는 제 진로를 정해 놓지 않을 거예요. 이 중에서 자신의 미래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당장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무슨 몇 년 후 내 모습을 정해 놓나요? 제 말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내 앞날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관하며 기다리고 있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탄탄한 계획을 가지고 있되 그 계획이 다가 아닌 내 앞날을 준비할 거예요. 캠프에서 만난 흥동의 주민 분들은 열아홉 살 때 생각하고 계획한 진로와, 또 대학에서 전공한 것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 자신이 가졌던 진로와 지금 다르게 살고 있다고 좌절하거나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삶을 사랑하며 최선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저도 그럴 겁니다. 내가 가진 계획은 정말 계획일 뿐인 거죠.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실컷 흔들리다가 우연히 멈춰선 그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이 제가 가져야 할 태도겠죠.

세울이가 독백으로 연극을 하며 들려줬던 이야기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에 대해 질문을 받는 시기에 기꺼이 길을 잃어버리겠다고 대답한 것이나 다름없다. 잃어 보았다면 이제 진짜 찾을 수 있겠지. 잃어버려야 찾는 게 아닌가.

다. 평가 내용과 이후 사업 계획

우리는 이번 사업을 통해

1. ‘농사 교육’ 을 주제로 하는 나눔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
2. ‘농사 교육’ 에 대한 다양한 모델과 가능성을 탐구해 보고자 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교사 농사학림, 교육 농(農) 생산자 협동조합, 교육 농(農) 연구회’ 를 통해 접근해 보고자 했다.

교사 농사 학림

교사 ‘농사학림’ 에서는 한달에 한번이지만, 주말을 이용해 일년간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다. 참가 교사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 ‘관계’ 를 쌓을 수 있었고 초보적이거나 ‘연구’ 그물망을 만들 수 있었다. 다만, 전국에서 흩어져 있는 교사들이 흥성에서 모이는 것이 물리적,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2013년)는 경기도 여주, 서울, 부천, 흥성 등지에서 나누어 모이기로 했다. 나누어 모이지만 2월, 5월, 8월, 10월 (가칭 2.5.8.0 열린 워크샵) 그리고 겨울에는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서로의 활동과 고민 등을 나누기로 했다. 내년 1월 말경(1월 25일 예정)에 오픈 커피런스(가칭, 교사 농부들 모여라)를 서울 흥대 부근에서 갖고,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워 나가보려고 한다.

교육 농(農) 생산자 협동조합

교육 농(農) 생산자 협동조합 모임은 방학을 이용해 겨울, 여름 두 차례 모임을 가졌다. 각 대안학교 현장의 고민과 상황을 나누고, 공통 혹은 개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농사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찾고자 했다. 서로가 농부이자, 교사, 무엇보다 작가가 되어 서로의 과정과 결과물을 나누자고 약속했음에도 농사일과, 가르치고 배우는 일, 현장에 여러 업무에 밀려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던 점.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 그 내용을 충실하게 남기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후 모임도 대안학교 농사담당 교사들의 특성상, 겨울과 여름 연수회 중심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겨울과 여름 방학 때 압축적으로 만나더라도, 평소 ‘기록’ 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에너지를 쏟고 SNS,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을 적극 활용에 일상적인 교류의 폭을 넓혀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 대안교육 현장 교사들이 농사교육에 대한 나름의 연구와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성과’ 와 ‘시행착오’ 가 나누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안타깝다. ‘점’ 으로 고립되어 있는 대안교육 현장 농사 교사들이 서로가 만나 ‘선’ 으로 이어지고, ‘선’ 들이 ‘면’ 을 이루어 그들의 고민과 시도, 성과와 시행착오 등이 나누어 지고 소통 될 수 있는 장(場)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후 모임은 1월 둘째 주에 (장소는 미정) 다시 모여, 그동안의 모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모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시작해 보기로 하였다.

교육 농(農) 연구회

교육 농(農) 연구회에서는 흥성지역을 중심으로 풀무 고등부, 전공부, 지역 단체들과 함께 새로운 농사 교육 모형을 찾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생산자 협동조합 수업’ 모형을 통해서 ‘교사 주도형의 농사 교육’ 이, ‘학생들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학습’ 으로의 전환 가능성과 농사 교육을 통한 인문교육, 생태교육, 공동체성 교육, 경제 교육의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농사를 단순한 노동이나 노작, 산업활동의 범주를 넘어서, 인문적, 생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농사를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수업 방식을 계속 탐구하고자 한다.

‘농진로 교육’ 을 통해서 농(農)뿐만 아니라 촌(村, community)의 교육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시도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초보적이거나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농(農)적인 소재와 주제, 방식을 통해 생명교육, 생태교육, 인문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이후에도 새로운 연구 주제로, 교육 농(農) 연구회에서 ‘풀무학교 진로교육’, 지역센터 마을 활력소, ‘마실이 학교’, ‘햇살 배움터 네트워크’ 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펼쳐 나가려고 한다.

교육 농(農) 연구회는 (충남 홍성군 흥동면과 장곡면에 지역 기반을 두고) 농(農)과 촌(村)을 교육적 소재와 주제, 방식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풀무학교와 흥성 지역 관련 단체들과 보다 적극적인 연계를 가지고 계속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경험과 사례를 다른 지역 현장들과 나누고자 한다.

농(農)과 촌(村)에 뿌린 내린 교육

지금 우리 사회에 농(農)과 촌(村)은 소멸되어가고 해체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근대화’ 혹은 ‘발전’ 은 비(非)농업화 비농촌화의 다른 아니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유기적인 생명관을 가진 농적인 가치와 공동체적인 가치, 토착적이고 토속적인 문화를 담고 있는 촌적인 가치들은 우리 삶과 사회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대안적 삶을 지향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대안교육에 있어 농적인 가치와

촌적인 가치는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일 것이다. 대안적 삶의 구체적 토대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농(農)과 촌(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농과 촌은 상대적으로 대안교육 현장에서 그동안 ‘소외’ 되어왔다. 실제 교육현장, 수업현장에서 농과 촌이 어떻게 교육적으로 담아질 수 있는지 교육의 이름으로 어떻게 대화 될 수 있는지, 올해를 시작점으로 ‘서로 함께’ 고민과 연구를 시작하였으면 한다.

농사와 농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 젊은 교사들

학생 교육 뿐만 아니라 대안교육, ‘교사 양성’ 과정에서, 또는 ‘재교육’ 단계에서 농과 촌이 강조되었으면 한다. 앞으로 교사의 주축을 이루게 될 신입 교사들은 ‘산업화’, ‘도시화’ 시대만을 산 세대로, 농과 촌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대부분 전무하다. 혹, 이해와 관심이 있더라도 관념으로만 소개 받았을뿐 실제적인 경험은 없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가르칠 수 없다. 바이올린 연주할 줄 모르는 이가, 어떻게 바이올린에 대한 배움을 안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새로운 세대의 교사들에게 농적인 가치, 다시 말해 농과 촌적인 가치들을 양성 단계나 재교육 단계에서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대안교육 교사 양성과정에서나 재교육 단계에서 농과 촌을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 교육과정 속에 꼭 담기기를 제안하며 보고서를 마치고자 한다.

이 연구사업은 교보재단의 지원과 상당부분 교사들의 자부담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사업에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교보재단, 참가 교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 예산 집행 내역서

항 목	금 액(원)	산출 근거	비 고
교육 농 생산자 (1월)	1,354,300	식비 654,300 숙박비 700,000	1.6~1.8
교사 농사학림 (1월)	244,000	식비 90,000 식비 90,000 식비 51,000 식비 13,000	1.27~28 숙박비 자부담
교사 농사학림 (2월)	468,000	식비 132,000 식비 132,000 식비 132,000 식비 72,000	2.25~26 숙박비 자부담
교사 농사학림 (3월)	378,000	식비 132,000 식비 100,000 식비 146,000	3.31~4.1숙박비 자부담 식비일부자부담
교사 농사학림 (4월)	384,000	식비 120,000 식비 132,000 식비 132,000	4.21~22 숙박비자부담 식비일부자부담
교사 농사학림	324,000	식비 108,000	5.12~13

(5월)		식비 108,000 식비 108,000	숙박비자부담 식비일부자부담
교육 농 연구회	192,500	식비 150,000 식비 42,500	7.3
교사 농사학림 (7월)	212,000	식비 54,000 식비 720,000 식비 86,000	7.27~28 숙박비자부담 식비일부자부담
교사 농사학림 (8월)	182,000	식비 72,000 식비 110,000	8.11~ 숙박비자부담 식비일부자부담
교사 농사학림 (10월)	298,400	식비 150,000 식비 28,400 식비 120,000	10.27~28 숙박비자부담 식비일부자부담
교사 농사학림 (11월)	97,300	식비 97,300	11.10~11 숙박비자부담 식비일부자부담
연구 자료비	1,356,670	연구 도서 구입 1,356,670	
통신비, 교통비	132,450	교통비 132,450	
총 지출액	5,623,620		(+3,620)

※ 예산집행 내역서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 농(農) 생산자협동조합 여름 연수회, 교사 농사학림 (6월, 9월), 교육 농(農) 연구회 등은 전액 참가자 자부담으로 진행되었음.